

국립국어원 2008-1-6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세종학당>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1억 3천만, 한국어 학습 수요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마련 시급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업 생산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서방 유럽의 몇몇 제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나라나 부족을 식민지화함으로써 피식민지의 언어 침탈이 시작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소를 중심으로 군사 무력 경쟁이 강화되는 냉전의 시대를 거쳐 다시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경쟁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21세기 미래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구촌화와 언어의 단일화, 여성성의 강화 등,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지난 세기의 산업 노동은 이제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비물질적 생산’ 즉 지식, 정보, 소통, 관계 또는 극단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까지를 재화로 고려하는 비물질적 생산력이 세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질적 생산성 경쟁 시대에서 비물질적 생산성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가치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오디오, 비디오, 영상물 등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인 문자 텍스트, 아이디어, 상징, 코드, 언어적 형상,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생산을 위한 노동을 ‘정동적 노동’(안토니오 네그리, 144)이라고 한다. 이것은 편안한 느낌, 참살이(웰빙), 만족, 흥분, 열정, 창조성이 매우 존중되는 영혼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효용성이 높은 비물질적 생산물을 창출하려면 정확한 언어적 소통과 정보의 생산과 소통의 언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기업들이 노동제 생산보다 부

가 가치가 훨씬 더 큰 비물질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 자국 언어로 세계 시장을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물질적 생산의 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와 정보로 이루어진다. 문자(디자인)와 오디오, 비디오, 영상 등 각종 문화 산업의 콘텐츠의 바탕이 언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도적 언어가 비물질적 생산성 향상이나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새로운 무한 경쟁시대의 언어 정책은 지난 세기 식민 언어 정책보다 내면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변국인 중국은 이미 <공자학당>을 설립하여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자국어 자동 기계 번역, 통역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어 국외 교육 부문을 국가적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언어 보급의 방식에는 일방적인 언어 지배의 방식과 언어 공존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지배적인 언어가 피지배적 언어를 포식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여 함께 공존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제국주의적 언어 보급 기획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다중(多衆) 시대에 문화 다원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세종학당>은 바로 후자의 방식으로 다중 언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21세기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자국어 보급을 위한 경쟁을 조정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평등 원리에 의한 소통 체계를 확대시키는 모형이 바로 <세종학당>이다. 언어 전쟁으로 비유되는 이 시대의 다국 언어 정책의 철학적 기초인 문화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자국어 보급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종학당>이 설립된 것이다.

비물질적 생산성 강화와 유통을 위한 언어 정책적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효율적인 정보 소통을 위해서 웹기반 다국어 지원 정보화 기술 개발 알앤디(R&D)에 투자한다면 서로 다른 언어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시에 인류의 지적 유산인 그들의 언어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마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다국어 지원 언어 코퍼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언어끼리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원한다면 특정 언어의 제국주의화를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충돌에 의한 국가 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 시대인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국제 결혼이주민가족만 하더라도 20만 세대이니 부양가족을 합치면 거의 8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잠재적 수요자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들이 약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어 사용자 약 8천만에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자 5천만을 합치면 한국도 언어 대국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정책이 단순히 내국인을 위한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1억 3천만이라는 거대한 한국어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국인용으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하여 다양한 언어 학습자를 고려한 웹기반 다국어 지원 사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언어와 언어 간의 소통을 위한 학습 체계, 다국 언어 기계 번역, 통역 등을 지원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어 학습 체계 구축과 교원 관리, 표준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어 교육의 대안 <세종학당>

20세기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고 피지배 생산 노동자 계급으로 민중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 구도 속에서 다수 피지배층을 상징하는 계급적 개념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다시 대중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 곧 정치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발전된 생산재와 더불어 비물질적 노동의 발달로 생성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이라는 개념 역시 서로 다른 다양한 피지배층을 하나로 묶어 지칭한 개념이다. 이제 민중(民衆)의 시대에서 대중(大衆)의 시대를 거쳐 다중(多衆)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다중이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로 새로운 전 지구적 틀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위한 전통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저항, 자율, 노동자 해방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곧 사회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낡은 모델과 결별하고 상호 존중하고 동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무리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다중의 국가 개

념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세기까지는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을 위해서 지배적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방식이 전개되었다. 서방의 소수 언어가 지구 남반부 대부분 국가와 부족의 언어를 포식하였다.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많은 군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메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나라의 언어는 소멸하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부산 지역의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200년 후 한국인이 이 지구에서 소멸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도 있으며, 2050년이면 한국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다. 우리의 모국어가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에 부응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언어와 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할 시점이다. <세종학당>은 지난 시대의 언어 제국주의적 침략의 방식이 아닌 쌍방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습 교과서를 구성하여 국가 간 새로운 교류의 디딤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어 문화권역 및 한국의 문화 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세종학당>의 설립 형태는 재외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등을 거점으로 한 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로,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을 추구한다. 세종학당은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원 형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정부 부처 간에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비교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기획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21세기 이중언어교육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삼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동포를 교육 대상으로 지원(외교부)하고 있는 <한글학교>와는 교육 대상자가 전혀 다른, 현지의 일반 대중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문화부)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세종학당>이다. 이 <세종학당>은 지배적 방식이 아닌 상대 국가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상대 국가의 언어 문화를 학습을 통하여 공유하는 21세기 미래 다중 언어 교육 기획의 소산물이다.

<세종학당>은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으로 이웃나라와 함께 문화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비, 강사비, 운영비 등 지원, 성적 우수자 초청 연수, 세종학당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 지원,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융합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세종학당 활용 교원 양성 지원, U-세종학당 구축을 통한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 지원 등 최소한의 운영 지원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얻는 실용적인 한국어 국외 보급 학교가 될 것이다.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실질 학습 비용만 투자하는 <세종학당>은 젊은이들의 국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획이다.

앞으로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 분산된 한국어 국외 보급 현안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국외 학습 수요자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교원 수급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교육과정 마련 및 효율적인 교재 개발을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동안 연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이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세종학당’을 같은 철학 기초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이름(세종학당)으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어,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8년 4월

국립국어원

원 장 이 상 규

차 례

[머리말] 〈세종학당〉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1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 1

2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47

3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 99

4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 127

5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 177

6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재 개발- ————— 231

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 325

[부록] 세종학당 운영 및 관리 현황 ————— 357

1.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 목적

1.1.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고 이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해당 국가의 공공 기관을 통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사설 교육 기관 현황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기관과 비용, 또 향후 추세를 짐작할 수 있는 통계 조사·분석이다. 또 필요에 따라 몇 개국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할 것이다.

1.1.2. 연구 방법

필요한 통계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첫째,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요 관련 통계를 조사·분석한다. 이는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간접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수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조

사·분석한다. 우선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자 한다.

또, 추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설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 몇 년간의 통계 자료와 한국과의 교역 추세, 산업 협력 추세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수요 추세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진 분석을 기초로 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필요성

언어의 사멸 추세는 생물의 멸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상에 있는 약 6,800종의 언어 중 절반은 21세기 말에 사라질 것이라고 미국의 데이비드 해리스 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위스모 대학)는 경고했다. 해리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주에 1종꼴로 언어가 사멸하고, 10명 미만의 극소수만 사용하는 언어도 500종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83종의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인구의 0.2%만이 세계 언어의 반이 넘는 3,586종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증가하였다. 이것은 웹사이트의 70~80%가 영어로 제공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60여 개국 14억 명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에서 우리의 자량인 한국어의 영향력이 증대하려면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 중 한국어의 수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요와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여 사전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전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한국과 아시아권 국가 간 교류 현황

2.1. 주요 국가별 체류 외국인 현황

2006년 말 현재 국내 주요 국가별 외국인 체류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06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체류 외국인 (합법 + 불법)		910,149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382,237 (42.0%)	108,091 (11.9%)	43,207 (4.8%)	54,698 (6.0)
합법 체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체류 인원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229,982	200,822 (87.3%)	20,221 (8.8%)	4,335 (1.9%)	1,744 (0.8%)
외국인 근로자 (236,262명)	전문 인력	24,038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6,604 (27.5%)	5,163 (21.5%)	1,602 (6.7%)	1,226 (5.1%)
	예·체능 인력	3,183	필리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1,866 (58.6%)	281 (8.8%)	223 (7.0%)	106 (3.3%)
	단순기능인력	209,04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80,629 (38.6%)	24,992 (12.0%)	23,394 (11.2%)	17,866 (8.6%)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전)		87,252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51,982 (59.6%)	14,892 (17.1%)	6,273 (7.2%)	4,041 (4.6%)
난민 인정자		50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카메룬
			18 (36.0%)	13 (26.0%)	4 (8.0%)	3 (6.0%)
외국인 유학생		28,062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19,812 (70.6%)	1,694 (6.0%)	946 (3.4%)	919 (3.3%)

합법 체류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6,550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1,854 (28.3%)	831 (12.7%)	569 (8.7%)	476 (7.3%)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 외국인	211,988	중국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93,913 (44.3%)	14,168 (6.7%)	12,524 (5.9%)	12,015 (5.7%)

※ 외국인의 자녀 (20세 이하)

① 외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합법 체류 53,465명, 불법 체류 8,704명이다.

② 국민(혼혈인)의 경우 정부 공식 통계는 없으나, 약 35,000명 추정(2003년 펄백재단)된다.

2.2.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통계 현황(2006년)

2006년 말 외국인 입국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적	입국자 수	구성비 (%)	지난해 대비(%)	국적	입국자 수	구성비 (%)	지난해 대비(%)
합계	5,321,593	100.0	102.7	유럽	368,380	6.9	105.4
아시아	4,137,590	77.8	102.2	러시아(연방)	62,559	1.2	101.2
일본	2,319,874	43.6	95.8	영국	70,192	1.3	103.6
중국	780,239	14.7	133.2	독일	65,740	1.2	102.1
홍콩	134,520	2.5	85.2	프랑스	41,021	0.8	106.0
필리핀	67,941	1.3	115.1	네덜란드	15,096	0.3	109.6
타이완	368,964	6.9	95.8	이탈리아	16,612	0.3	115.1
싱가포르	71,018	1.3	109.5	그리스	3,890	0.1	116.4
타이	89,752	1.7	110.1	기타	93,270	1.8	109.4
말레이시아	74,467	1.4	90.7	오세아니아	85,524	1.6	108.4
인도네시아	36,152	0.7	92.1	오스트레일리아	65,491	1.2	108.3
인도	37,065	0.7	106.6	뉴질랜드	17,119	0.3	106.8
기타	157,598	3.0	100.0	기타	2,914	0.1	123.8
아메리카	710,445	13.4	103.5	아프리카	19,042	0.4	116.8
미국	603,741	11.3	102.9	남아프리카공화국	4,020	0.1	110.0

국적	입국자 수	구성비 (%)	지난해 대비(%)	국적	입국자 수	구성비 (%)	지난해 대비(%)
캐나다	85,612	1.6	108.1	이집트	2,371	0.0	122.8
브라질	5,874	0.1	103.2	나이지리아	3,174	0.1	99.0
멕시코	5,374	0.1	102.1	기타	9,477	0.2	126.3
기타	9,844	0.2	103.1	무국적등	612	0.0	131.0

입국자의 절대적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아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주류를 이루는 아메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타이완 순으로 입국자 수가 많았다.

2.3. KOICA의 대외 협력 현황

2.3.1. 주요 국가별 협력 현황

(단위 : 백만 불, 천 불)

순 위	국가명	금 액(₩)	금 액(\$)	비 율(%)
1	이라크	46,057	48,201	28.2%
2	인도네시아	16,865	17,650	10.3%
3	베트남	7,523	7,873	4.6%
4	스리랑카	6,533	6,837	4.0%
5	필리핀	6,348	6,644	3.9%
6	캄보디아	6,047	6,328	3.7%
7	이집트	5,038	5,273	3.1%
8	페루	4,152	4,346	2.5%
9	라오스	4,054	4,243	2.5%
10	탄자니아	3,578	3,745	2.2%
상위 10국 소계		106,195	111,140	65.0%
11	우즈베크	3,544	3,709	2.2%
12	방글라데시	3,210	3,359	2.0%
13	파키스탄	3,112	3,257	1.9%
14	요르단	3,050	3,192	1.9%
15	몽골	2,911	3,046	1.8%
16	미얀마	2,670	2,794	1.6%
17	중국	2,602	2,723	1.6%
18	모로코	2,195	2,297	1.3%
19	에티오피아	2,110	2,208	1.3%
20	아프가니스탄	2,013	2,107	1.2%
상위 20국 소계		133,611	139,833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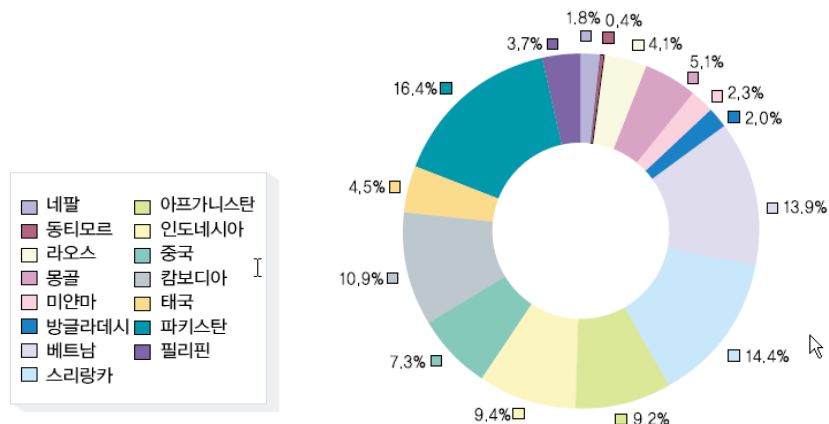
* 비율은 수원국분류불가 자원액과 다자간지원 총액을 제외한 국별지원총액163,416백만원 대비 해당 국별지원금액의 비율입니다.

2.3.2. 2006연도 중점 협력국 지원 실적(KOICA)

(단위 : 백만 불, 천 불)

년도	합계		2005		2006	
국가	금액(w)	금액(\$)	금액(w)	금액(\$)	금액(w)	금액(\$)
라오스	6,224	6,361	2,170	2,119	4,054	4,243
몽골	5,761	5,829	2,850	2,782	2,911	3,046
방글라데시	4,584	4,700	1,374	1,341	3,210	3,359
베트남	17,038	17,163	9,515	9,290	7,523	7,873
스리랑카	19,110	19,115	12,576	12,278	6,533	6,837
인도네시아	26,396	26,955	9,531	9,305	16,865	17,650
캄보디아	12,001	12,142	5,955	5,813	6,047	6,328
필리핀	11,530	11,703	5,182	5,059	6,348	6,644
과테말라	3,251	3,303	1,409	1,375	1,842	1,928
파라과이	4,162	4,189	2,365	2,308	1,797	1,881
페루	6,942	7,070	2,790	2,724	4,152	4,346
우즈베키스탄	6,426	6,523	2,882	2,814	3,544	3,709
카자흐스탄	3,047	3,093	1,369	1,336	1,678	1,756
이라크	121,680	122,030	75,624	73,829	46,057	48,201
이집트	9,200	9,336	4,163	4,064	5,038	5,273
에티오피아	4,453	4,496	2,343	2,287	2,110	2,208
탄자니아	5,907	6,019	2,329	2,274	3,578	3,745
나이지리아	1,160	1,203	163	159	997	1,043

2.3.3. 2006연도 교육 분야 아시아 지역 지원 실적(KOICA)



2.3.4. 아시아 국가별 연도별 협력 사업 총괄표(KOICA)

(단위 : 백만 원)

국가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네팔	1,173	702	1,291	1,472	2,050	1,441	1,578	1,565	1,609
대만	17	109	4	0	3	43	10	0	3
동티모르	0	0	0	385	1,688	291	41	99	371
라오스	303	353	711	878	1,775	2,418	3,868	2,170	4,054
말레이시아	103	122	293	165	107	165	138	125	39
몰디브	8	16	3	51	37	28	45	3,160	3
몽골	912	968	1,904	2,747	1,097	2,069	2,058	2,850	2,911
미얀마	770	554	826	841	1,970	1,741	2,341	3,490	2,670
방글라데시	767	612	675	1,026	1,540	1,659	1,600	1,374	3,210
베트남	4,375	7,367	5,499	6,214	5,888	4,189	11,205	9,515	7,523
부탄	198	287	153	180	192	133	160	183	72
브루나이	18	19	56	13	21	32	24	20	0
스리랑카	941	1,278	840	1,361	1,420	1,720	1,920	12,576	6,533
싱가포르	4	5	0	0	0	0	0	0	0
아프카니	95	0	0	0	5,977	25,140	19,892	3,393	2,013
인도	87	87	83	190	16	12	21	42	7
인도네시아	2,134	2,263	2,243	2,503	3,465	3,115	7,492	9,531	16,865
중국	2,047	6,053	6,674	2,158	2,999	3,393	3,958	2,871	2,602
캄보디아	422	353	738	1,363	2,208	2,790	3,824	5,955	6,047
태국	1,156	450	736	773	1,016	1,077	2,278	3,227	1,289
파키스탄	356	399	385	5,579	331	375	582	2,656	3,112
필리핀	712	642	2,514	3,922	2,266	7,108	7,286	5,182	6,348
홍콩	16	11	0	0	0	0	0	0	0
아시아 소계(23국)	16,614	22,652	25,628	31,821	36,070	58,939	70,322	69,985	67,280

2.4.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현황

2.4.1. 베트남 하노이 진출 현황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주)진웅 무역	1990	250	25000		4:18	제조업·과카, 재킷, 셔츠, 내의
(주)경덕 엔터프라이즈	1996	200	640	150	1:6	제조업, 무역업·알루미늄 압출 플랜트, 기계공구류, 알루미늄세시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주)경보 콜렉션	1995	500	1500	200	1:180	제조업-가방
(주)그라스텍 인터내셔널	2003	100	300	300	1:172	Stained Glass & Panel 제조, 창문 및 현관용 판넬 제조
(주)나담	2005		300		4:	네트워크 복& 통신 장비 제조 판매(ADSL Modem, DSLAM, ...)
(주)대우 건설	1993				1:1	건설업-건설시공 및 수주
(주)브릿지 인터라인	2004				4:20	광산 개발, 공단 개발, 리조트 개발, 주상 복합 빌딩 개발, 원부자재 수출입, 투자 자문 및 사업권획득 자문
(주)삼영 익스프레스	2002				1:1	운송서비스
(주)세령 종합 상사	1998				5:6	종합무역-수출업
(주)도화 종합 기술 공사	2007				1:2	기술용역, 설계, 감리(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도로 교통, 구조, 항만, 철도, 환경 등)
(주)신성 프린트	1999	540	540	1800	2:280	의류 프린트(니트/재킷 프린트 섬유제품)
(주)썬 익스프레스 하노이 사무소	1995	400	3600		1:3	서비스(운송)업-Forwarding
(주)씨맥스	1993	580	5000	1700	4:80	
(주)에스지위카스	2003		49000		1:21	의류 제조(재킷, 팬츠, 셔츠, 여성용 의류)
(주)엠아티퓨전	1998	100		100	1:15	항공운송
(주)지에이아이	2002				1:2	섬유원단
(주)케이티	1996	17000		40000	3:6	기타(통신서비스)-통신망 건설
(주)풍신	1996	3000	16000	3000	:48	의류, 재킷, 팬츠
(주)한강 아이앤씨	2002				1:6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주)한신 공영 하노이 사무소	2004				2:4	
3H VINACOM Co., Ltd.	2004	1000	9500	1700	0:35	Electric Cable and Telecommunication Cable compound etc.
E-미래 종합 통신(주)	2001				1:15	통신서비스 (컴퓨터 인터넷)
LG건설(주) 하노이 지사	1993				1:3	건설업-Construction
LG 비나 화장품(주)	1997	4500	4200	17500	2:470	화장품, 생활용품
LG 전자 베트남 현지 법인	1997	2600	46000		4:356	제조업-A/C, 냉장고, 세탁 기, 제조 및 판매
LG 정보통신(주) 베트남 합작 법인	1994	4000	18000	4000	3:85	제조업-교환기시스템 (Starex-VK, CDMA-WiL 등), 사설교환기
LS 산전 하노이 합작 법인	1997	2500	8081	2500	4:92	제조업-Switch Gear, 배전반
LS 전선 베트남 합작법인	1993	8100	5000	8100	2:55	광통신 전선, 통신기기 및 장비
경선산업(주)	2001	1000		750	2:130	컴퓨터 자수
광진 비나 JVC	2005					염색, 재봉사, 자수사
극동건설 하노이 사무소	1995				1:2	건설
나우통상	1998	2500	6000		1:5	무역업-섬유류, 기계류
네트워크 북 케이블 베트남(주)	2004	500	3000	500	2:50	광통신부품
녹십자 백신(주)	2003				1:2	백신제조
다비코	1997	8839	10000	15739	1:104	전력선 제조
대량비나(주)	2000	8100	6000		3:3	제조, 무역업-오토바이부 속, 공작기계
대민종합건설(주)	1998	15000			3:15	공장건축, 도시개발계획, 플랜트 설비
대성전선	1997	8840	13000	8840	1:100	전선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대신자원	2004				1:3	석탄 및 광물자원
대아비나(주)	2005	500	1000	530	2:31	죽석 케이크 스낵 (텔리만주, 매직팝)
대우인터내셔널 하노이지사	1990				2:7	무역업-Trading
대우하넬전자 주식회사	1994	13988	30000	50000	4:380	제조업-TV, REF, W/M, DY
대우하넬코퍼레이션	1995	24251	25541		1:5	공단 개발
대하법인	1993	43610	20103	43610	6:644	서비스, 기타-숙박업(대우 Hotel), 부동산 임대업 (Office, Apt)
대한 랍빠 미싱(주)	2005	1000	2500	1000	5:	공업용 재봉기 및 부품(수 입) 판매, 재봉기 부품 임 대 및 수리
대한항공 하노이 사무소	2001				2:6	항공업
메콩자동차	1991	35000	50000	20000	2:253	쌍용자동차, FIAT, IVECO
바롬항공(주)	2000	250		2500	1:18	항공화물 운송(포워딩)
방림네오텍스 (하노이 사무소)	1997				3:4	면직물
백비엘	1995	200		600	2:200	의류, 가방, 모자, 스크린 프린트
베트남 대우자동차 (비담코)	1993	10000	60000	32000	4:270	제조 및 판매-자동차 및 부품
비나국제	2002	1300	4000	1900	4:388	컴퓨터자수 및 나염스크린
비나대성케이블(주)	1992	9420	26000	3500	2:130	제조업-Communication Cable
비나도경 전자(주)	2005	362		1206	1:16	전자제품 AC POWER Cord Hamess
비나지에스씨 합작사	1994	8100	1869	8100	2:47	광통신전선
비나한국메디칼	1995	2940	4930	2940	1:259	일회용 주사기 및 일회용 소모품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비엠티어스타(봉화)	1993	352	550	352	1:35	전구생산-스타트 전구 (GLOW STARTER FOR FLUORESCENT LAMP)
비코글로윈 하노이	1994	3000	12000	8000	6:450	Padding, Bedding, Innerwear, Garment sewing
삼성 비나 보험 하노이 지점	2002	5000			0:6	손해 보험 일반(화재 보험, 적하 보험,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해상 책임 보험. 건설 공사 보험. 기타 손해 보험)
삼성 엔지니어링(주)	2001				1:4	석유 화학, 산업 설비, 환경 분야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삼솔	2005	100			1:1	반도체(웨이퍼)가공, 제조 설비, 일반 산업 설비 제어, 제작
삼풍 이녹스 하노이 사무소	2004				1:6	스테인리스 파이프
삼환 기업(주) 하노이지사	1996		12000		1:2	건설업-Construction
서룡무역	1989	500	2500	400	1:4	한약재, 식품가공, 생약 가공 추출, 식품 해산물
서흥 REF.	1997	100	1500		1:5	가방, 반사광 테이프
석우 종합 건설(주)	1995	1000	3000	500	3:75	건설업
선진 베트남	2004	200	1500	100	3:16	설계, 감리
성문 베트남	2003				2:20	라벨, 스티커 인쇄, 전단지, 카달로그, 케이라벨, 전단지
신일-토디막스	1996	1720	2600	4300	1:79	제조업-가정용 농업용 펌프, 전기밥솥
신한 무역	1998		12000		1:3	섬유 직물
신한 비나 은행 하노이 지점	1993	20000		10000	1:32	금융업-Bank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썬스타 산업 봉제 기계	2001	10		10	3:12	산업용봉제기
썬스타 자수기 하노이 사무소	2005				2:8	자수기 사후관리 및 자수기 판매 촉진
씨클로 (갸리엔(주))	2004	35	1000~1500	200	1:27	관광객 기념품 판매
아나로지스틱스	2000	100	300	50	1:12	해상, 항공운송, 베트남 수출입 화물 통관 수속 등..
아리팩	2000	1600		4000	1:260	제조업-P.P Woven Bag, ContainerBag, Geo textile
아이스피어 소프트웨어	2004				2:52	S/W 개발 (근태/인사/급여 관리, 자재 /창고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조달관리), 웹사이트 개발
에스엘디텔레콤	2001			100	29:540	이동전화
에스엠케이	1996	1500	25000	500	1:8	맨 셔츠 레디 블라우스, 팬츠
에치비 상사	2002				1:8	재킷, 팬츠, 티셔츠, 와이셔츠
엘지생활 건강	1997	4500	20000	2700	5:450	생활용품(화장품, 샴푸)
엘지전자 베트남(주)	1995	4000		4000	8:332	제조업-TV, VD Player, D-Rom, PC Monitor
영신 교역(주)	1991		15000		2:16	재킷
오리온하넬전자	1995	66372	84400	51172	15:1584	제조업-CRT(컬러브라운관)
오리온하노이금속(주)	1995	1737	8000	5790	3:100	브라운관용 금속부품 외
우리은행 하노이 지점	1997	15000	10000		2:11	금융업-금융, 은행
우보텔레콤 하노이 지사	1992		6500		1:10	
우성 아이비	1999				1:2	해양 레저용품(Inflatable 보트제조, 구명조끼 제조)
위너스 해운 항공 (위너스 트랜스)	2003				1:3	포워딩 (해상/항공 화물 운송)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제일 항역(주)	1993		700		1:5	운송업·복합운송(항공, 해상)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1993				1:4	건설
코오롱건설(주) 하노이 사무소	1993				1:2	국외건설공사 수주 및 부동산 개발
김코건설팅	2000	10		10	1:8	투자건설팅
탑툰 트레이딩	2000				1:6	화학제품, 봉제
포스코 하노이 사무소	1992				3:3	철강
풍진비나(주)	2003	5000		5000	4:392	패딩, 매트, 펠트, 침장 기타
하나글로벌(주)	1993	8100	20000		5:985	제조업·모자
하동상사	1995	36000	200000	30000	3:800	제조업-Gloves(Golf), 스포츠용품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사무소	1994				4:6	국제협력단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베트남 생산기술 협력센터(KITECH)	2001				2:5	기술협력 및 기술지원 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2004				3413:2	단지건설, 댐, 수도관련 투자 및 용역사업
한국외환은행 하노이 지점	1999	15000		15000	3:15	은행서비스, 기타·금융
한국전력공사	2004				2:1	베트남 발전사업 및 연관 사업, 전력정보 수집, 분석
한국전력기술(주)	2005				2:1	발전소, 송변전설비, 환경설비,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한비엣	1998	200	2000	300	1:300	제조/무역업-목제품, 도끼류, 기계류
현대-동안 철강 타워 생산	1996	40000	8000		2:300	제조업-Steel Tower, 송변 전용 철탑제조 및 판매

회사명	진출 연도	자본금 (천USD)	연간 매출액 (천USD)	투자 금액 (천USD)	종업원 현황 (한국·외국)	취급 분야
현대건설 주식회사	1994	4336676	4285000		1:3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 건설업
현대자동차 하노이 사무소	2004		8000		1:4	자동차(완성차,CKD)
현대정보기술	1998				2000:30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및 공급, 설비제작
삼성공업 베트남						자동차 부품
삼성물산(주) 하노이 지점	1989		50000		1:7	무역업·철강, 화학, 정보통 신 프로젝트 등 종합무역
삼성물산건설부문 베트남지점	1995				1:4	건설업-Construction

2.4.2.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구분	기업명
정부 투자 기관	KOTRA	섬 유 봉 제	PT. DNS
	석유공사(KNOC)		PT. HANIN NUSA MULYA
	한국도로공사		PT. STAR CAMTEX
상사 협의회	대한항공		PT. STARNESIA GARMENT
	금호석유화학(주)		PT. PUTRA PILE INDAH
	코오롱 인터내셔널(주)		PT. DONGIL INDONESIA
	대우 인터내셔널(주)		SK KERIS
	삼성물산		PT. SAEHAN TEXTILES
	(주)OCI상사		PT. RISMAR DAEWOO APPAREL
	(주)한화		PT. BUMA APPAREL
	현대종합상사		PT. BUSANA PRIMA GLOBAL
	(주)LG상사	신발 · 신발 부품	BOSAENG
	(주)LG화학		DONGJOE
	(주)선경		DEWA CITRA SEJATI

구분	기업명	구분	기업명
	아시아나항공		GARUDA INDAWA
	현대석유화학		INKOMULIA BERKATJAYA
	롯데상사(주)		KMK GLOBAL SPORTS
	POSTEEL		KORINESIA
	홍아해운		MITRA KUMKANG
금융기관 협의회	수출입은행		PRATAMA
	외환은행		STARWIN
	우리은행		SERIM INDONESIA
	국민은행		SEOLIN
	산업은행		TAEHWA
	클레몽금융		TONGYANG
	개발리스		UFU
	새한증권	완 구	AURORA INTERNATIONAL INDAH
	하나금융		CHOSUNESIA
	동서폴리빈도증권		DADA INDONESIA
	삼성투구보험		JEJE INDAH
	LG화재보험		LEO KORINSIA
	한진코린도보험		QUTY KARUNIA
	동부화재		RAMASHINTA CITRA KREASI
	한국수출보험공사		SUNG WON INDONESIA
	Bank DANPAC	모 발 제 품	ASTIKA SAMBO HAIR INT'L
에너지 자원 개발	KORINDO GROUP		CITRA LEESINDAH INT'L
	석유공사		DALIM FIDETA KORNESIA
	KODECO		WOJIN HAIR
	(주)삼탄		DONGAN KREASI INT'L
	KIPCO		INDOKORES SAHABAT
	EI		MISUNG INDONESIA
	한전		ROYAL KORINDAH
	PT. KIMCO ARMINDO		SUNG CHANG INDONESIA

구분		기업명	구분	기업명
제 조 업 체	섬 유 봉 제	PT. CHUNJI INT'L	기타 (전자, 기계 등)	TIGAPUTRA ABADIPERKASA
		PT. AKMUR		YURO MUSTIKA
		PT. DONGJUNG		MIWON INDONESIA
		PT. HANSNESIA		JICO AGUNG(MIWON)
		PT. SUHKWANG		LEE WON INDUSTRIAL CO.
		PT. GAYA INDAH		SAMICK INDONESIA
		PT. MOLAX		CJ SAMSUNG
		PT. KORINA		HANKOOK CERAMIC INDONESIA
제 조 업 체	기타 (전자· 기계 등)	HAENGNAM CHINAWARE	산 림 업 체	삼익악기
		LG-Philips		삼화자야
		SHIN HEUNG INDONESIA		엘리트 목재
		SAMSUNG SME		이건산업
		LG 전자		Rezki Asia Jaya
		LG EDI		Nusjaya Dwipa Agung
		PT. KOLON INA		Sujina Indah
		KOREA PRODUCTIVITY CONSULTING INDONESIA		Sinu Kayu Prima
		INFOCOM TRANSMEDIA UTAMA		대한
				세진가구
건설 협의회		현대건설		가산무역
		쌍용건설		Maju Utama
		삼성건설		신웅 Jaya
		현대중공업		Interkayu Nusantara
		SK건설		Meari
		삼보엔지니어링		유신무역
		삼안기술공사		Unggul Jaya Mandiri
				Indotama
IT 협회		AITI Investment, PT		J & S Inni
		Boleh Net Indonesia, PT		Hanam Int'l
		BtexB		

구분	기업명	구분	기업명
	Sysmall Indonesia, PT		Omega
	DooWang		하나
	Global Indopon, PT		삼경
	Hanaro Telindo, PT		광복
	Huno Integrasi Indonesia,PT		Natuna
	Idunia Technology		Dunia Wahana
	Indo4u Enterprise Solutions		Dutamas Aryalestavi
	Infocom Transmedia Utama, PT		현대목재(Utama)
	JEJE INDAH, PT		Tane Nusantara
	JM Technology		코린도
	KPCI		코테코 목재
	KT&T Global Solution		림바 선정
	KTF Indonesia		
	Leo Sis Global, PT		
	LG Electornics Indonesia		
	Mega Matrix System, PT		
	Mobictech, PT		
	Mobic Indonesia, PT		
	NefToCyber Indonesia, PT		
	Samsung Telecommunication Indonesia, PT(이진희)		
	Samsung Telecommunication Indonesia, PT(김서겸)		
	SOL AITI INDONESIA, PT		
	SYSPOL		
	Texpia Jaya		
	Total Solution Indonesia, PT		
	Transmedia Solusindo		
	Triyakom, PT		
	Winsnet Utama Indonesia, PT		
	Young Jin Telcom, PT		

2.5. 국가별 연도별 한국어 능력 시험(KLPT)

국가명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베트남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17,378	16,321	33,699
	합격자 수		11,610	16,006	27,616
	합격률(%)		66.81	98.07	81.95
몽골	응시자 수	2,986	9,482	14,606	27,074
	합격자 수	1,949	3,164	13,297	18,410
	합격률(%)	65.27	33.37	91.04	68.00
인도네시아	응시자 수	5,228	시행 안 함	45,134	50,362
	합격자 수	2,984		25,698	28,682
	합격률(%)	57.08		56.94	56.95
필리핀	응시자 수	3,210	13,468	8,314	24,992
	합격자 수	2,313	7,411	6,836	16,560
	합격률(%)	72.06	55.03	82.22	66.26
태국	응시자 수	23,438	21,850	10,663	55,951
	합격자 수	14,379	9,970	8,712	33,061
	합격률(%)	61.35	45.63	81.70	59.09
스리랑카	응시자 수	705	6,089	10,178	16,972
	합격자 수	546	3,744	2,889	7,179
	합격률(%)	77.45	61.49	28.38	42.30
캄보디아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4,658	4,658
	합격자 수			3,685	3,685
	합격률(%)			79.11	79.11
우즈베키스탄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9,844	9,844
	합격자 수			5,028	5,028
	합격률(%)			51.08	51.08
키르기즈	응시자 수	시행 안 함		801	801
	합격자 수			777	777
	합격률(%)			97.00	97.00
인도	사증 발급자 수	880	1,022		
네팔	- 2008년부터 시행 예정 - 예상 응시자 수 약 10만 명 중 약 5000명 정도 합격 예정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연도는 차기 연도의 응시 인원보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중국 무한시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000명 정도이며, 현재 한국어 관련 강의 수강생도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현지 방문 조사 및 설문 조사 분석

3.1.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3.1.1. 개요

인도네시아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 한국학(어)과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University of Indonesia는 2006년 9월 인문대에 4년제 학위 과정으로 Korean Studies Program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이 신설되었다. 이 학과에서는 총 1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한국 문학, 한국어 등 약 42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1학년 28명, 2학년 41명으로 총 69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인 약 5명과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이들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Gadjahmada에서는 한국어 과정을 2003년부터 3년제 단기 연수 과정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 4년제 학위 과정으로 한국학을 개설하였으며, 공식 명칭은 Korean Language Program이다. 4년제 과정으로 한국어 입문, 한국어(회화, 문법, 작문, 번역 등), 실용 한국어, 한국 문학 입문, 한국 문학, 한국의 역사, 한국의 사회,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등 약 47개 과목의 156학점을 이루어져 있다. 강사진은 현지인 8명과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5명의 학생이 학위 과정에 있으며 단기 연수 과정(diploma)을 거친 사람은 약 71명이다.

마지막으로 University of National은 한국어를 2005년부터 3년제 단기 연수 과정으로 개설하였으며, 학과명은 Korean Language Program이고 개설되는 과목은 약 24개이며, 현지인 4명과 한국인 4명의 강사진이 이들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66명이다.

아직 학위 과정으로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학 센터 등 어학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거나, 향후 한국어 과정 개설에 관심이 있는 대학으로는 University of Lambung Mangkurat, University of Islam Indonesia, University of Hassanuddin, University of Diponegoro 등이 있다.

3.2. 인도네시아 대학에서의 수업 현황

3.2.1. University National 학교의 학기별 수업 시간표

다음은 University National 학교의 수업 시간표이다. 한국학은 주로 회화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한국어 타자 수업도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YAYASAN MEMAJUKAN ILMU DAN DEBUDAYAAN (YMIK)

AKADEMI BAHASA ASING NASIONAL

Jl. Sawo Manila, Pejaten, Pasar Minggu, Jakarta 12520, Telp. 7828020-7806700

Fax. 7802718 P.O. Box 4741 Jakarta 12047, E-mail : unas@indo.net.id

AKADEMI BAHASA ASING

KURIKULUM JURUSAN BAHASA KOREA

Kelompok	Kode MK	Mata Kuliah	SEMESTER					
			I	II	III	IV	V	VI
A. MKU	UN00001	Pancasila		2				
	UN00003	Agama	2					

Kelompok	Kode MK	Mata Kuliah	SEMESTER					
			I	II	III	IV	V	VI
B. MKDK	AB00001	Bahasa Indonesia	2					
	AK002A	Bahasa Inggris	2					
C. MKK	AK1001A	Bacaan Korea	2	2	2	2	2	2
	AK1001	Sejarah Korea	2					
	AK1002A	Menulis Korea	2	2	2	2		
	AK1002	Pengantar Budaya Korea		2				
	AK1003	Percakapan Korea	4	4	4	4	4	4
	AK1004	Tata Bahasa Korea	2	2	2	2	2	2
	AK0005	Lab. Bahasa Korea	2	2	2	2		
	AK2002	Terjemahan Korea-Indo			2	2		
	AK2003	Surat Meny. Korea Umum			2	2		
	AK2005	Bahasa Korea Pers					2	
	AK2006	Komposisi					2	
	AK2007	Training Korea Teacher					2	
	AK2008	Kosa Kata Kanji			2	2		
	AK2004	Komputer Korea				2		
D. MKP	AK1015	Paper Writing					2	
D. MKPB	AB2005	Export Import			2			
	AB4004	Marketing			2			
	AB00003	Tourism			2			
		Komputer Umum		2				
T. TA	AK4001	Skripsi Minor/ETA						4
		Jumlah	20	18	24	20	16	12

Ket : untuk mata kuliah khususnya (Bahasa Korea) yaitu MKK

Tata Bahasa Korea : 문법

Pengantar Budaya Korea : 말하기

Bacaan Korea : 읽기

Lab. Bahasa Korea : 듣기

Sejarah Korea : 한국사

Menulis Korea : 쓰기

Skripsi Minor/ETA : 논문

Agama : 종교

Bahasa Indonesia : 인도네시아 읽기

Bahasa Inggris : 영어 읽기

Komputer Korea : 한글 타자

Surat Meny. Korea Umum : 사업 문서

Komposisi : 작문

3.2.2. University Indonesia 학교의 학기별 수업 시간표

다음은 University Indonesia의 수업 시간표이다. 주로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읽기 위주의 수업이 선행된 후 한국 문학과 역사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Nama Mata Kuliah	Jml	Semester								
		SKS	1	2	3	4	5	6	7	8
PDPT :	12									
MPK Integrated		6	v							
MPK Art/Sports		1	v							
MPK English		3		v						
MPK Moslem religion		2		v						
MPK Protestan religion		2		v						
MPK Buddhism		2		v						
MPK Hinduism		2		v						
MPK Catholic		2		v						
MKDK :	16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3				v				
Basic philosophy		3			v					
Indonesian Human & Art		3				v				
Indonesian Language		4			v	v				
Indonesian Dynamic Culture		3			v					
MKK :	39									
Pengantar Linguistik Umum		3	v							
Pengantar Literature		3		v						
History of Korea Literature		3			v					
Pengantar Korea History		3	v							
History of Korea Culture A		3			v	v				
History of Korea Culture B		3				v	v			
History of Korea Contemporary		3		v						
Fonetik & Fonologi		3		v						
Korea Language Morphology		3			v					
Sintaksis Bahasa Korea		3				v				
Semantik Bahasa Korea		3					v			
Korean Literature (Poem+Drama)		3					v			
Korean Literature (Grammar)		3						v		
MKKK :	51									

Nama Mata Kuliah	Jml	Semester									
		SKS	1	2	3	4	5	6	7	8	
Korea Language I		6	v								
Korea Language II		6		v							
Korea Language III		6			v						
Korea Language IV		6				v					
Korea Language V		6					v				
Korea Language VI		6						v			
Korea Language for Business		3						v			
Korea Language Business Letter		3						v			
Korea-Indonesia Translation I		3					v				
Korea-Indonesia Translation II		3						v			
Korea-Indonesia Translation		3					v				
MKP :	25~30										
Korea Culture		3							v		
Korea Popular Culture		3						v	v		
History of Indonesia-Korea		3					v		v		
History of Japan-Korea		3					v		v		
Korea art								v		v	
Korea Business Ethical		3						v		v	
History of Method & Theory		3					v	v	v	v	
History of Korea		3						v			
Korean Grammar		3					v				
Korean Poem		3						v			
Seminar History of Korea Literature		3						v			
Seminar Korea Pronunciation		3						v			
Korea Culture		3									
Korea Politic System		3						v	v		
Politic & Sociology of Korea		3						v	v		
History of Korea Diplomatic		3						v	v		
General History		3						v			
English		3			v	v					
Korea Language I							v	v	v	v	
Korea Language II							v	v	v	v	
Penulisan Skripsi :	8										
Seminar of Prothesis		3							v		
Thesis		5								v	

3.3. 인도네시아 사설 학원에서의 수업 현황

3.3.1. Language Corner Academy의 수업 시간표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한 비인가 사설 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의 시간표이다. 이 학원에서는 작년 한 해 약 100여명이 수강하였다고 했다.



the place to start

Jl. Radio Dalam Raya No. 4 B
Kebayoran Baru - JAKARTA
Telp. 021 - 7233456 / 7258528
www.language-corner.com
info@language-corner.com
corner@indo.net.id



Ayo GAUL sambil belajar BAHASA
Aslinya, pasti SERU!!!

Pendaftaran : Rp. 50.000,-
Buku : Rp. 100.000,-
Placement Test : Rp. 100.000,-
TOEFL Prediction Test : Rp. 100.000,-

KELAS REGULER	BAHASA	TINGKAT	DURASI	BIAYA KURSUS
	Mandarin, Jepang	Dasar 1 2 3	@ 9 minggu / 17 pertemuan	@ Rp. 690.000,-
		Menengah 1 2 3	@ 9 minggu / 17 pertemuan	@ Rp. 900.000,-
		Atas 1 2 3	@ 9 minggu / 17 pertemuan	@ Rp. 1.250.000,-
	Spanyol, Jerman, Itali, Belanda, Perancis	Dasar 1 2 3	@ 8 minggu / 16 pertemuan	@ Rp. 630.000,-
		Menengah 1 2 3	@ 8 minggu / 16 pertemuan	@ Rp. 850.000,-
		Atas 1 2 3	@ 8 minggu / 16 pertemuan	@ Rp. 1.150.000,-
	Speak English	Dasar 1 2	@ 5 minggu / 15 pertemuan	@ Rp. 575.000,-
		Menengah 1 2	@ 5 minggu / 15 pertemuan	@ Rp. 775.000,-
		Business English	Menengah 1 2	@ 8 minggu / 15 pertemuan
	TOEFL Preparation	> 480 40 Jam	@ 7 minggu / 20 pertemuan	@ Rp. 1.400.000,-
> 480 60 Jam		@ 10 minggu / 30 pertemuan	@ Rp. 1.600.000,-	

@ Biaya kursus REGULER termasuk biaya pendaftaran dan buku
 @ Sisa kelas minimal 10 orang
 @ Pertemuan seminggu 2 x
 @ Rata-rata terdiri Kelas Beginner Semi-Intensif dengan pertemuan seminggu 3 x

KELAS PAKET	BAHASA	TINGKAT	DURASI	BIAYA KURSUS
	Mandarin, Jepang	Dasar	10 minggu / 30 pertemuan	Rp. 1.200.000,-
		Menengah	10 minggu / 30 pertemuan	Rp. 1.400.000,-
		Atas	10 minggu / 30 pertemuan	Rp. 1.600.000,-
	Spanyol, Jerman, Itali, Belanda, Perancis	Dasar	10 minggu / 29 pertemuan	Rp. 1.100.000,-
		Menengah	10 minggu / 29 pertemuan	Rp. 1.300.000,-
		Atas	10 minggu / 29 pertemuan	Rp. 1.500.000,-
	Speak English	Dasar	8 minggu / 22 pertemuan	Rp. 875.000,-
		Menengah	8 minggu / 22 pertemuan	Rp. 975.000,-
		Business English	Menengah	8 minggu / 22 pertemuan
	Korea	Dasar	8 minggu / 22 pertemuan	Rp. 875.000,-
Menengah		8 minggu / 22 pertemuan	Rp. 975.000,-	

@ Biaya kursus PAKET termasuk biaya pendaftaran dan buku
 @ Sisa kelas minimal 10 orang
 @ Pertemuan seminggu 3 x

KELAS SPESIAL	BAHASA	TINGKAT	DURASI	BIAYA KURSUS
	Mandarin, Jepang	Dasar 1 2 3	17 x pertemuan	@ Rp. 650.000,-
		Menengah 1 2 3	17 x pertemuan	@ Rp. 850.000,-
		Atas 1 2 3	17 x pertemuan	@ Rp. 1.100.000,-
	Spanyol, Jerman, Itali, Belanda, Perancis	Dasar 1 2 3	16 x pertemuan	@ Rp. 600.000,-
		Menengah 1 2 3	16 x pertemuan	@ Rp. 800.000,-
		Atas 1 2 3	16 x pertemuan	@ Rp. 1.000.000,-
	Speak English	Dasar 1 2	15 x pertemuan	@ Rp. 540.000,-
		Menengah 1 2	15 x pertemuan	@ Rp. 740.000,-
		Business English	Menengah 1 2	15 x pertemuan
	Korea	Dasar 1 2 3	15 x pertemuan	@ Rp. 500.000,-
Menengah 1 2 3		15 x pertemuan	@ Rp. 650.000,-	
Indonesia		Level 1 2 3	15 x pertemuan	@ Rp. 600.000,-

@ Biaya kursus SPESIAL termasuk biaya pendaftaran, REGULER termasuk buku
 @ Sisa kelas min. 10 orang
 @ Khusus kelas KOREA minimal 15 orang
 @ Pertemuan disesuaikan dengan jadwal peserta kursus

✓ Harga sewaktu-waktu dapat berubah

✓ Biaya kursus dibayar sebelum kelas dimulai

✓ Biaya yang sudah dibayarkan tidak bisa dikembalikan lagi

Pendaftaran

Senin - Jumat 09.00 - 21.00

Sabtu 10.00 - 14.00

Jadwal Kursus

• Sabtu • Senin, Rabu & Jumat

• Selasa & Kamis • Selasa, Kamis & Sabtu

- pertemuan : session (2 hours)
- minggu : weeks

3.4. 설문 조사 분석

다음은 유효 설문지 53개를 기초로 하여 통계·분석한 결과이다.

3.4.1. 개인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

아래의 표는 설문에 응한 53명의 개인 사항에 대한 기본 자료이다. 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30세 미만이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30세 이상의 세대보다 더 많으며, 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성별에 관계없이 한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자 중에서 약 70%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도 약 23%나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수준을 고려해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직업은 학생이 약 45%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0~20세 미만	22	41.5	41.5	41.5
	20~30세 미만	27	50.9	50.9	92.5
	30~40세 미만	4	7.5	7.5	100.0
	합계	53	100.0	100.0	

[성별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	26	49.1	49.1	49.1
	여	27	50.9	50.9	100.0
	합계	53	100.0	100.0	

[학력별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중등졸업	1	1.9	1.9	1.9
	고등졸업	37	69.8	69.8	71.7
	대학재학	12	22.6	22.6	94.3
	대학졸업이상	3	5.7	5.7	100.0
	합계	53	100.0	100.0	

[직업별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무직	9	17.0	17.0	17.0
	공무원	2	3.8	3.8	20.8
	회사원	8	15.1	15.1	35.8
	노동자	8	15.1	15.1	50.9
	학생	24	45.3	45.3	96.2
	기타	2	3.8	3.8	100.0
	합계	53	100.0	100.0	

[결혼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기혼	11	20.8	20.8	20.8
	미혼	42	79.2	79.2	100.0
	합계	53	100.0	100.0	

[월수입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00 미만	36	67.9	78.3	78.3
	\$100 이상~ \$200 미만	9	17.0	19.6	97.8
	\$300 이상~ \$400 미만	1	1.9	2.2	100.0
	합계	46	8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13.2		
합계		53	100.0		

[가족 수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명	1	1.9	1.9	1.9
	2명	5	9.4	9.4	11.3
	3명	14	26.4	26.4	37.7
	4명	18	34.0	34.0	71.7
	5명 이상	15	28.3	28.3	100.0
	합계	53	100.0	100.0	

3.4.2. 한국어 관심에 대한 교차 분석

다음은 설문자의 개인 사항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교차 분석을 한 결과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사설 학원이나 공공 교육 기관보다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자국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했으며, 고등 졸업인 경우는 자국보다는 한국 취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유학을 위해서 한국어를 요구하고 있다.

응답자의 약 73%는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며, 특히 학생은 약 58%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중에도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 적

이 있으며, 노동자나 이미 취업한 회사원은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한국어 학습 방법도 학생이나 일부 회사원인 경우는 학교에서 배웠으나 공무원, 노동자, 일부 회사원은 공공 기관보다는 사설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이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중, 하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0%는 한국어를 배운지 6개월 미만으로, 한국어 수요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늘어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력×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어 학습 방법					전체
			학교	사설 학원	공공 교육 기관	독학	한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학 력	고등 졸업	빈도	16	9	5	0	1	31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64.0%	90.0%	100.0%	0%	100.0%	73.8%
	대학 재학	빈도	9	0	0	0	0	9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36.0%	.0%	0%	0%	0%	21.4%
	대학 졸업 이상	빈도	0	1	0	1	0	2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10.0%	0%	100.0%	0%	4.8%
전체		빈도	25	10	5	1	1	42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력×한국어 학습의 목적]

			한국어 학습의 목적					전체
			단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 취업을 위해	자국 취업을 위해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학 력	중등 졸업	빈도	0	0	0	1	0	1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0%	0%	0%	25.0%	0%	1.9%
	고등 졸업	빈도	12	0	15	2	7	36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57.1%	0%	100.0%	50.0%	70.0%	69.2%
	대학 재학	빈도	8	1	0	1	2	1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38.1%	50.0%	.0%	25.0%	20.0%	23.1%
	대학 졸업 이상	빈도	1	1	0	0	1	3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4.8%	50.0%	0%	0%	10.0%	5.8%
	전체	빈도	21	2	15	4	10	5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직업	무직	빈도	6	3	9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15.8%	21.4%	17.3%
	공무원	빈도	2	0	2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5.3%	0%	3.8%
	회사원	빈도	5	3	8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13.2%	21.4%	15.4%
	노동자	빈도	1	7	8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2.6%	50.0%	15.4%
	학생	빈도	22	1	23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57.9%	7.1%	44.2%
	기타	빈도	2	0	2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5.3%	0%	3.8%
전체		빈도	38	14	52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100.0%	100.0%	100.0%

[직업×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어 학습 방법					전체
			학교	사설 학원	공공 교육기관	독학	한류 영화/드라마/ 음악 등	
직업	무직	빈도	0	6	0	0	1	7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60.0%	0%	0%	100.0%	16.7%
	공무원	빈도	0	1	0	0	0	1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10.0%	0%	0%	0%	2.4%
	회사원	빈도	4	1	0	0	0	5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16.0%	10.0%	0%	0%	0%	11.9%
	노동자	빈도	0	2	4	0	0	6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20.0%	80.0%	0%	0%	14.3%
	학생	빈도	21	0	0	1	0	22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84.0%	0%	0%	100.0%	0%	52.4%
	기타	빈도	0	0	1	0	0	1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0%	20.0%	0%	0%	2.4%
전체		빈도	25	10	5	1	1	42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목적					전체
			단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 취업을 위해	자국 취업을 위해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직업	무직	빈도	0	0	7	0	2	9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0%	0%	46.7%	0%	20.0%	17.3%
	공무원	빈도	1	0	0	1	0	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4.8%	0%	0%	25.0%	0%	3.8%
	회사원	빈도	4	0	1	0	3	8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19.0%	0%	6.7%	0%	30.0%	15.4%
	노동자	빈도	0	0	6	2	0	8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0%	0%	40.0%	50.0%	0%	15.4%
	학생	빈도	16	2	0	0	5	23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76.2%	100.0%	0%	0%	50.0%	44.2%
	기타	빈도	0	0	1	1	0	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0%	0%	6.7%	25.0%	0%	3.8%
전체		빈도	21	2	15	4	10	5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 여부×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목적					전체
			단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 취업을 위해	자국 취업을 위해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결혼 여부	기혼	빈도	5	0	3	3	0	11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23.8%	0%	20.0%	75.0%	0%	21.2%
	미혼	빈도	16	2	12	1	10	41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76.2%	100.0%	80.0%	25.0%	100.0%	78.8%
전체		빈도	21	2	15	4	10	52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수입×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월 수 입	\$100 미만	빈도	24	12	36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75.0%	92.3%	80.0%
	\$100 이상~\$200 미만	빈도	8	0	8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25.0%	.0%	17.8%
	\$300 이상~\$400 미만	빈도	0	1	1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0%	7.7%	2.2%
전체		빈도	32	13	45
		한국어 학습 경험의 비율	100.0%	100.0%	100.0%

[가족 수×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어 학습 방법					전체
			학교	사설 학원	공공 교육기관	독학	한류 영화/드라마/ 음악 등	
가 족 수	1명	빈도	0	0	0	1	0	1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0%	0%	0%	100.0%	0%	2.4%
	2명	빈도	3	1	0	0	0	4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12.0%	10.0%	0%	0%	0%	9.5%
	3명	빈도	7	1	2	0	0	10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28.0%	10.0%	40.0%	0%	0%	23.8%
	4명	빈도	8	4	1	0	1	14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32.0%	40.0%	20.0%	0%	100.0%	33.3%
	5명 이상	빈도	7	4	2	0	0	13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28.0%	40.0%	40.0%	0%	0%	31.0%
전체		빈도	25	10	5	1	1	42
		한국어 학습 방법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 수×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목적					전체
			단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 취업을 위해	자국 취업을 위해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가 족 수	1명	빈도	0	1	0	0	0	1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0%	50.0%	0%	0%	0%	1.9%
	2명	빈도	3	0	1	0	1	5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14.3%	0%	6.7%	0%	10.0%	9.6%
	3명	빈도	5	0	2	3	3	13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23.8%	0%	13.3%	75.0%	30.0%	25.0%
	4명	빈도	8	0	6	1	3	18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38.1%	0%	40.0%	25.0%	30.0%	34.6%
	5명 이상	빈도	5	1	6	0	3	15
		한국어 학습 목적의 비율	23.8%	50.0%	40.0%	0%	30.0%	28.8%
전체		빈도	21	2	15	4	10	52
		한국어 학습 목적의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 수×한국어 학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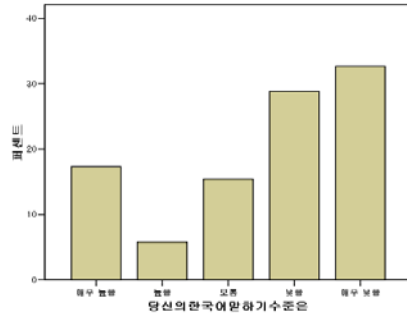
			한국어 학습 기간					전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가족 수	1명	빈도	0	0	0	0	1	1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0%	0%	0%	0%	33.3%	2.0%
	2명	빈도	5	0	0	0	0	5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26.3%	0%	0%	0%	0%	9.8%
	3명	빈도	4	5	1	3	0	13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21.1%	22.7%	100.0%	50.0%	0%	25.5%
	4명	빈도	5	10	0	2	1	18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26.3%	45.5%	0%	33.3%	33.3%	35.3%
	5명 이상	빈도	5	7	0	1	1	14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26.3%	31.8%	0%	16.7%	33.3%	27.5%
전체		빈도	19	22	1	6	3	51
		한국어 학습 기간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3. 한국어 능력에 대한 빈도 분석 및 막대 도표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재 한국어 능력과 그들의 요구 수준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한국어 수요자들은 현재 그들의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이해, 읽기, 발음, 문법, 맞춤법 등의 수준은 보통 이하이나 모두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는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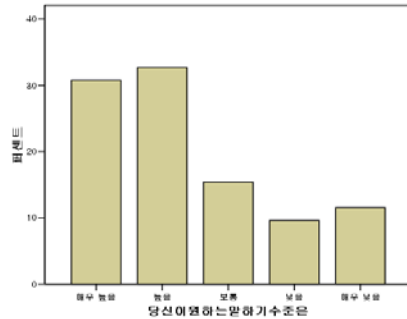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9	17.0	17.3	17.3
	높음	3	5.7	5.8	23.1
	보통	8	15.1	15.4	38.5
	낮음	15	28.3	28.8	67.3
	매우 낮음	17	32.1	32.7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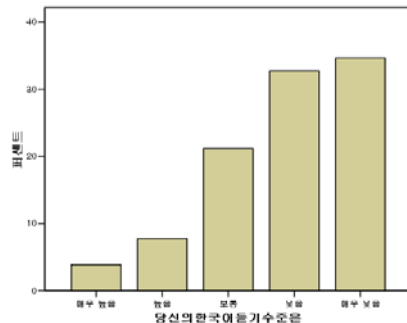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말하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6	30.2	30.8	30.8
	높음	17	32.1	32.7	63.5
	보통	8	15.1	15.4	78.8
	낮음	5	9.4	9.6	88.5
	매우 낮음	6	11.3	11.5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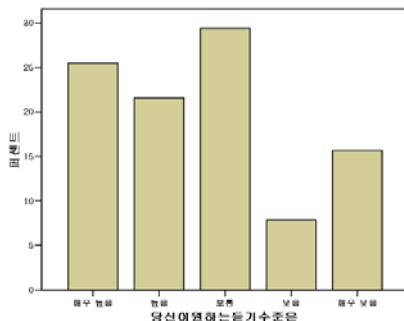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듣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2	3.8	3.8	3.8
	높음	4	7.5	7.7	11.5
	보통	11	20.8	21.2	32.7
	낮음	17	32.1	32.7	65.4
	매우 낮음	18	34.0	34.6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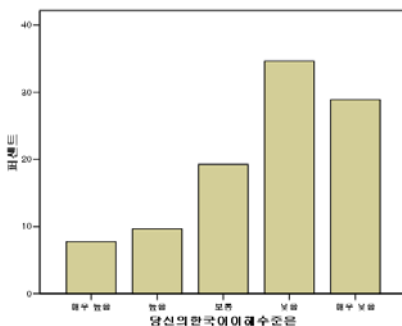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듣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3	24.5	25.5	25.5
	높음	11	20.8	21.6	47.1
	보통	15	28.3	29.4	76.5
	낮음	4	7.5	7.8	84.3
	매우 낮음	8	15.1	15.7	100.0
	합계	51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3.8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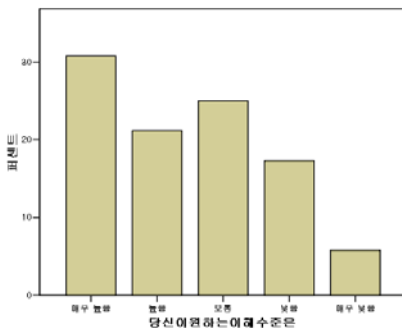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이해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4	7.5	7.7	7.7
	높음	5	9.4	9.6	17.3
	보통	10	18.9	19.2	36.5
	낮음	18	34.0	34.6	71.2
	매우 낮음	15	28.3	28.8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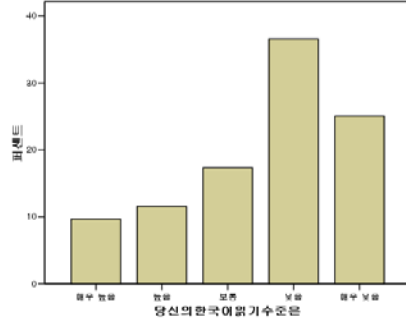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이해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6	30.2	30.8	30.8
	높음	11	20.8	21.2	51.9
	보통	13	24.5	25.0	76.9
	낮음	9	17.0	17.3	94.2
	매우 낮음	3	5.7	5.8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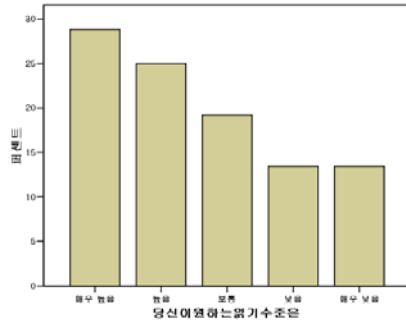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읽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5	9.4	9.6	9.6
	높음	6	11.3	11.5	21.2
	보통	9	17.0	17.3	38.5
	낮음	19	35.8	36.5	75.0
	매우 낮음	13	24.5	25.0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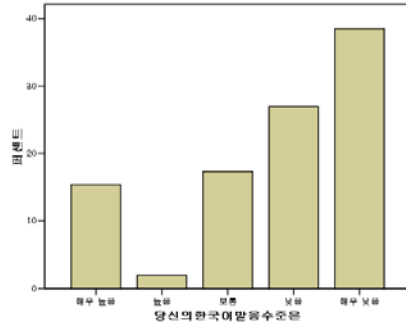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읽기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5	28.3	28.8	28.8
	높음	13	24.5	25.0	53.8
	보통	10	18.9	19.2	73.1
	낮음	7	13.2	13.5	86.5
	매우 낮음	7	13.2	13.5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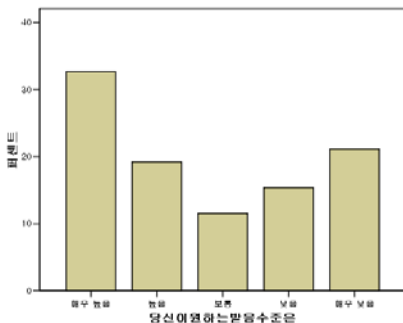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발음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8	15.1	15.4	15.4
	높음	1	1.9	1.9	17.3
	보통	9	17.0	17.3	34.6
	낮음	14	26.4	26.9	61.5
	매우 낮음	20	37.7	38.5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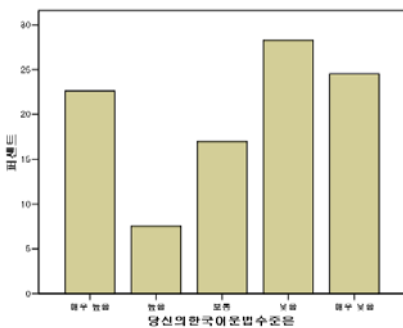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발음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7	32.1	32.7	32.7
	높음	10	18.9	19.2	51.9
	보통	6	11.3	11.5	63.5
	낮음	8	15.1	15.4	78.8
	매우 낮음	11	20.8	21.2	100.0
	합계	52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9		
	합계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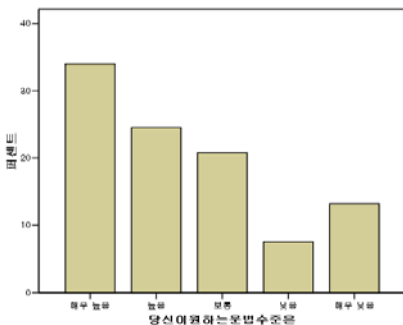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문법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2	22.6	22.6	22.6
	높음	4	7.5	7.5	30.2
	보통	9	17.0	17.0	47.2
	낮음	15	28.3	28.3	75.5
	매우 낮음	13	24.5	24.5	100.0
	합계	53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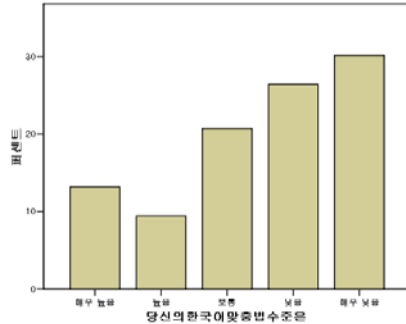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문법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8	34.0	34.0	34.0
	높음	13	24.5	24.5	58.5
	보통	11	20.8	20.8	79.2
	낮음	4	7.5	7.5	86.8
	매우 낮음	7	13.2	13.2	100.0
	합계	53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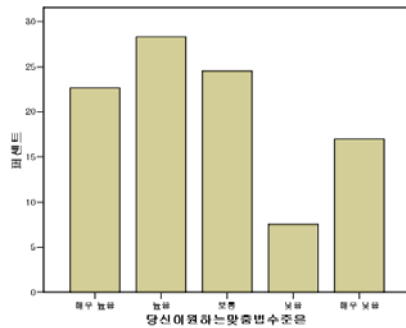
당신의 한국어 맞춤법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7	13.2	13.2	13.2
	높음	5	9.4	9.4	22.6
	보통	11	20.8	20.8	43.4
	낮음	14	26.4	26.4	69.8
	매우 낮음	16	30.2	30.2	100.0
	합계	53	100.0	100.0	



당신이 원하는 한국어 맞춤법 수준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음	12	22.6	22.6	22.6
	높음	15	28.3	28.3	50.9
	보통	13	24.5	24.5	75.5
	낮음	4	7.5	7.5	83.0
	매우 낮음	9	17.0	17.0	100.0
	합계	53	100.0	100.0	



3.5. 수요 분석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크게 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KLPT 시험을 위한 수요,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이나 관광가이드 등 현지에서의 취업을 위한 수요, 대학에서의 정규과정 으로의 한국어과나 한국학 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등 한류에 따른 자발적 교육 수요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에 의한 집단은 자카르타나 족자카르타 지역 등에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비록 한국 드라마가 TV를 통해 방송이 되기는 해도 문화적 차이가 큰 형편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 즉 몽골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해서는 많이 잠잠한 편이었다. 단지 몇 몇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진행 상황을 보면 University Indonesia에서의 한국어 전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6년에는 320명이 지원해서 46명을 선발하였고 2007년에는 1,047명이 지원하여 31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현재 등록인원은 43명이 등록 중이며 36명이 2학년으로 진급하였으며 1학년은 28명이 등록하여 유급 2명을 제외한 26명이 재학 중이었다. 졸업 후 이들은 KLPT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비해 교수진의 수준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비록 KOICA에서 3명의 교수를 파견하고 있지만 학과장조차 중국어 전공자였으며 2명의 현지인이 교수인데 학생수에 비해 교수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교육수준의 한계가 분명히 보였다. 이와 달리 University National(UNAS)는 3년제로 학생이 총 50명이 있으며 교수는 현지인 2명에 KOICA 지원 3명 현지 거주 한국인 자원봉사자 2명의 교수가 있었다.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KLPT에 관심이 있었으며 대부분 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학과장은 비교적 한국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200명이 지원하여 3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학생들의 대부분 일차 목표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관광객의 가이드이며 마지막으로 선생이나 학원 강사였다. 이렇게 보면 대학에서의 수요는 한정된 정원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적은 현지 한국 기업 취업이나 관광가이드였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요는 이미 대학이 감당하고 있어 세종학당 프로젝트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였다. 단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 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후 이들에게 한국어 강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있으면 했었다.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지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큰 수요는 역시 고용허가제에 따른 **KLPT**에 대한 수요였다. 자카르타 경우에는 현재 한국어를 개설하는 인가된 사설기관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나마 자카르타의 최대 사설기관에서조차도 한국어를 개설은 하고 있지만 수강생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개강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자카르타의 한 비인가 사설학원을 들렀는데 그 곳에서는 한국어 강좌에 작년 한 해 약 100명 정도가 수강했다고 했다. 일본어의 경우 140명 정도라고 했다. 이 비인가 사설학원의 강사는 **UNAS** 출신이라고 했다. 자카르타의 경우 비인가 사설학원은 더러 있었는데 주로 **UNAS** 대학생 가운데 3학년이나 졸업생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UNAS**의 학과장과의 면담과 설문지 조사를 부탁했을 때 3학년 대부분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이 받는 수입은 다른 강좌에 비해 두 배정도 높이 받고 있었다. **UNAS** 학생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이들이 담당하는 숫자는 4,000명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쨌든 자카르타에서는 **KLPT**에 대한 약간의 수요와 한국기업에 이미 취업한 현지 사람들의 교육 수요가 조금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지역은 족자카르타(**Yogyakarta**)와 수라바야지역(아래 지도 표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사설학원에서도 한국어 수요

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이곳의 사설학원에서는 한 클래스당 15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으며 연 3회 정도 개설되고 있다. 이 지역의 사설 학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산업 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사설학원의 강사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을 다녀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설학원에 대한 법령의 설치 미비와 통계의 부실, 노동청 송출국 담당자의 비협조로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상당한 수요가 수도 자카르타가 아닌 족자카르타나 수라바야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그 곳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만족할만한 기초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UNAS 학생들 숫자와 그들이 사설학원을 통해 강의하는 현황 등과 KLPT 응시자의 2007년 자료를 기초로 2008년 약 35,000명 정도가 KLPT 시험 응시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UNAS 한국어과 학과장인 Rura ni Adinda 교수의 의견으로는 10,000여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숫자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고용허가제에 따른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해 최대 취업가능 인원이 2007년 기준 9,000명이지만 실제로 4,000여명이 취업하였기에 비싼 응시료에 비해 2007년 KLPT에 합격한 26,000여명 가운데서도 1/6도 채 취업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서의 고용에 따른 수요는 거의 미미한 형편이었다. 자카르타에 있는 HANA Academy를 방문했을 때 그 학원에서의 교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적은 숫자였다. 이는 현지 공장에서 스테프들만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가이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해서 이 수요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어 수요가 40,000여명 수준이며 이 수준은 당분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의 주시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거의 비인가 사설학원에서 수준이하의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교육이 자칫 장삿속으로

전략해버릴 위험이 있어 보였다. 현지 강사나 담당교수 등을 만나 본 결과 그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수준은 매우 낮았다. 만약 KLPT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단순히 KLPT 시험만 되기 위해서 시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올바른 한국어의 이해보다는 취업의 단순 수단으로 전략하여 시험자체가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부가 2007년 발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보면 고용주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이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더불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위한 교육을 세종학당이 담당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한 차원을 끌어 올릴 수 있고 수요도 재창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국가	지역	산출근거	한국어 수요 예측 인원	비고
인 도 네 시 아	자카르타	Hana Academy KLPT 수강인원	200	
		한국기업의 현지 스탭	20	
		66클래스(대학생 3,4학년인 66명 학생 1 클래스) ×15명(한 클래스 당) ×4회(1년간) 400명(한 팬클럽 당)* 3	3,960 1,200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KLPT : 25,000	35,000	
	계		40,380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수요 예측 인원

2.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외 한국어 보급이 주로 국외 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일환으로 혹은 국가 간의 학술교류의 일부로서 진행된 데 대해 세종학당은 국외 대중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사회 교육 차원에서 충족시킴으로써 전례 없을 정도로 폭넓은 한국어 보급을 낳아서 획기적인 문화 교류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어떻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추산해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세종학당 설립의 필요성과 그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설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 간접적 편익을 비교한다. 직접적 편익은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및 기타 운영수

입, 그리고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과 행정요원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된다.

간접적 편익에는 국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이 증가했을 때에 나타날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국가들과 한국과의 무역 증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그리고 국외 한국어 사용인구 증가가 한국인의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켜서 발생할 한국인의 영어 학습 비용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세종학당의 설립과 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효과에는 결혼이주민과 국내 취업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사용 가능케 된 데 따른 인권 보호, 생활상의 편의 등이 있고, 교육적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국외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체계화가 주된 내용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파견,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지 생활과 현지인의 정서를 고려한 교재 개발 등이 세종학당의 운영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의 설립이 국가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국가적 투자(초기 매몰비용)를 요하지만 그것이 국가경제에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선진적 문화국가로서 세계사회에 위상을 구축하는 데에 긴요함을 밝히게 된다.

1.3. 연구 방법

영어와 같이 이미 세계 언어가 된 경우에는 국외 자국어 보급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또 외국으로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나라들 경우에도 유입된 이주민이 자국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소득, 따라서 국내 생산성의 증대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장기 시계열분석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의 국외 보급의 역사가 일천하고, 또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도 일천하다. 따라서 기존 외국 선행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모형 분석방법이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체적인 혹은 우회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어의 국외 보급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국외 한국어 보급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첫째, 국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외 한국어 보급이 현지에서 통역 고용 비용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를 추산한다. 국외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용 감소 크기를 대신 사용한다.

둘째,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국외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여서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관해 영어 사용인구의 증대가 미국 또는 캐나다의 경제에 수출증대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시계열분석이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국외 한국어 보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대입해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수출증대 효과를 우회적으로 추산하게 된다.

셋째, 최근에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생산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생산성 증대의 크기는 한국어 사용 수준과 소득 증대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추산할 수 있다.

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의 필요성

2.1. 세종학당 수요 증가 현황

국의 한국어 교육 또는 한민족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는 이미 세계 곳곳에 한글 학교 또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세종학당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최근 재외 교포 교육의 실태와 재외 교포 구성상의 변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의 변화, 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국외 한글학교는 모두 1,517개교로서 14개국에서 9,487명의 교원이 94,319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 일본에서는 244개의 강습소에서 8,982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한글 외에 전반적인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는 14개국 26개의 학교가 있어서 798명의 교원(그 중 본국에서 파견된 교원 72명)이 9,44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대체로 한글학교는 선진국에 집중적으로 있고, 한국학교는 후진국에 자리 잡고 있다. 한글학교와 한국학교는 둘 다 현지 국가의 교육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글만을 배우는 재외 동포 학생들에게는 한글학교가 보완적으로 존재하고, 현지 국가의 교육 체계가 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국학교가 전반적인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학생 숫자를 재외 동포 1천 명당 수로 표시해 보면 전체적으로 14.7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동포 1천 명당 1.46명의 학생이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일본은 강습소를 제외하면 6.5명, 이를 포함하면 16.55명). 중국의 교육 체계 속에서 소수 민족이 한국어 또는 조선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엄밀한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

는 동포 276만 2천 명에서 192만 4천 명을 뺀 83만 8천 명은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중국에서 살게 된 교포라 할 수 있다. 새로이 늘어난 교포 1천 명당 한국학교 학생의 숫자도 4.8명에 머물러 평균치에 크게 모자라고 있다. 그 외 중동 지역이 교포 1천 명당 학생 숫자 10.11명이어서 모국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

〈표 1〉 재외 동포와 한글(한국)학교 현황

(단위 : 천 명, %, 개, 백만 달러)

	재외 동포 현황			현지 투자 한국 기업		한국(한글)학교 학생 수 현황			
	숫자	구성비	4년간 증감률	건수	구성비	한글 학교	한국 학교	한국(글) 학교 비중	동포 1천 명당
중국	2,762 (1,924) ^①	39.21 (27.31)	28.82	19,253	21.9	-	4,024	3.88	1.46 (4.80)
일본	894 (296) ^②	12.69	-0.56	667	0.76	3,854 (8,982) ^⑥	1,961	5.60 (14.32)	6.50 (16.55)
기타 아시아	384	5.46	95.72	9,155 ^⑤	10.4	4,185 ^⑦	2,534 ^⑧	6.48	17.49
미국	2,017 (1,077) ^③	28.63	-6.54	7,986	9.1	43,746	-	42.16	21.68
캐나다	217 (102) ^④	3.08	27.34	398	0.3	5,776	-	5.56	26.62
중남미	108	1.53	1.89	773	0.9	2,481	729	3.09	29.72
구소련	534	7.58	-4.27	273	0.3	31,645	109	30.59	60.63
유럽	112	1.58	17.92	1,183	1.4	2,632	-	2.54	23.50
중동	9	0.13	17.92	179	0.2	-	91	0	10.11
아프리카	8	0.12	66.60	235	0.3	-	-	-	-
합계	7,045	100	11.17	88,064	100	94,319	9,448	100	14.73

① 2000년도 중국 전국 인구 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② 1952~2005년간 재일 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족 포함).

③ 2000년도 미국 통계청 인구 조사상의 한인 총수.

④ 2001년도 캐나다 통계청 인구 조사상의 한인 총수.

⑤ 기타 지역과 오세아니아 주 포함.

⑥ 244개의 한글강습소 학생 8,982명.

⑦ 모두 오세아니아 주 소재.

⑧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모두 동남아 소재.

자료 : 외교통상부

한편, 최근 수년간(여기에서는 2003-07년의 4년간에 대한) 현지 동포의 증감 상황에 비추어 한국(한글)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역시 4년간 28.82%의 교포 증가율을 보이는데 한국 또는 한글학교의 숫자가 적은 형편이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에서의 교포 증가율이 무려 95.72%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포 1천 명당 학생 숫자는 17.49명에 머물러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책 당국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재외 동포 수의 구성비에 대해 한국(한글) 학교 숫자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단연 가장 낮는데, 이를 위에서와 같이 중국 교육 체계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 교육을 받을 숫자를 제외한 최근 새로이 거주하게 된 교포의 숫자를 전체 재외 교포 구성상의 비중 11.9%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학교의 비중 3.88%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미국과 구소련은 교포의 비중에 비해 많은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가 소재해서 그나마 타국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 언어와 민족 교육을 받고 있고, 여타 상대적으로 소수가 사는 곳은 그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외 교포에 대한 교육 바깥에 새로이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한국 경제 및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순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한류)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국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01년에 30만 명 전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2003년부터는 40만 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고 나서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한국과 인력 송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3개국이다. 2005년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과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월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

팔, 키르기스, 동티모르 5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되고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 한 달 월급이 100만 동(7만 원 정도)인 베트남보다 한국은 한 달에 1,200만 동(75만 원 정도)으로 12배를 받을 수 있고, 네팔 역시 현지보다 한국에서 10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 우즈베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어 열풍이 부는 것이다(YTN, 2007.8.10, 머니투데이, 2008.1.7).

이 열풍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에 1997년에는 2,274명이 응시했으나, 2000년 4,850명, 2003년 1만 416명, 2005년 2만 3,401명, 2006년 3만 259명 등으로 시험 시행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늘었다. 그리고 연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으로 시험 시행 횟수를 늘린 2007년의 9월 16일 있었던 시험에는 전 세계 23개 나라 72개 지역에서 2006년에 비해 260% 늘어난 8만 1,600여 명이 응시했다.

현지 한국어 시험 응시료가 30달러로 월평균 임금보다 상당히 비싸거나(네팔),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몽골)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에는 수도 울란바토르 인구 100만 명의 1.5%에 해당하는 1만 5,000명이 응시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07. 5.21). 몽골, 베트남의 근로자 송출 인원은 이미 약 1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통상 한국어 학원 수강료가 월 30~50달러, 네팔인들의 월급을 생각하면 엄청 비싼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번 돈을 한국어 공부에 다 쏟는 사람이 수도룩한” 실정이다(머니투데이, 2008.1.7).

그러나 이렇게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 공급 여건은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심각한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어 강좌를 위한 시설의 부족, 교재의 부실, 강사의 자질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중국의 주중 한국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에 1천2백 명이 신청했는데 시설상의 문제로 5백 명만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곧바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

르치기 때문에 교수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쉬용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YTN, 2007.7.10). 학습 교재도 대부분 중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게 제기된다. 네팔에서도 “최근 두 달여 사이에 생긴 200여 개의 한국어 학원 대부분이 전문 교사와 교재, 교육 기자의 부족으로 초보적인 수업을 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머니투데이, 2008. 1.7). 학원 당 20명을 단위로 하는 강좌가 5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100명의 수강생이 있고, 네팔에서 200개의 한국어 학원이 있으니 2만 명의 학생이 있는 셈이다.

북경 한국 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수강자는 1994년에 700여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만여 명이 지원하여 강좌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한국어 능력 시험에 19개 도시에서 8,000여 명이 응시한 바 있다.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려면 적어도 초급 1, 2단계 혹은 중급 1, 2단계까지도 이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례로 미루어 보면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의 숫자에는 그 저변에 최소한 4-5배의 학습자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국외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세종학당의 필요성

이처럼 국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부실하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교재, 강사의 양적·질적 부족이 심각하다. 그 밖에도 각 정부 부처와 재단 등으로 나누어진 한국어 교육 지원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YTN, 2007.7.10).

전반적으로 재외 동포들에 대한 민족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그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학술 영역 혹은 유학생 상호 교류 차원에서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수준에서 학자 교류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및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외교

통상부의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부처별 국외 한국어 교육의 교육 대상과 특성 비교

구분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관계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 동포재단법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교육 대상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	·현지 외국인(일반대중)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
교육 내용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학 연구자 지원		·재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보급 ·국외 한국학 진흥 지원	·일반 대중(낮은 층위) 대상의 생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교육 성격	·재외 국민 대상의 정규 국어 교육 과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실시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사업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대 도모
교원 자격	·국어 교사 자격증 ※국어(국문)학과		·해당 없음	·국어교사 자격증 ※국어(국문)학과
교육 기관	한국학교	한국 교육원	한글학교	한국 문화원
개소 수	26개 (14개국)	35개 (14개국)	2,072개(107개국)	12개(9개국)
지원 기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글학회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 국적의 재외 국민,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그리고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 국민 대상의 정규 국어 교육과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국어(국문)학과 출신

이 교원 자격을 갖는다.

외교통상부는 재외 동포 재단법에 따라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재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국외 한국학 진흥 지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

〈표 3〉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업 성과

기관명	소속	사업항목	사업효과(연인원)		
			2007	2006	2005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통상부	한국어펠로십	·	106	84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장·단기 학생 교육 국내외 교사 연수	·	823 1,315	·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국외봉사단파견	280	170	60

그런데 재외 동포들과 학술 교류를 제외한 대중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어 펠로십 프로그램(2006년 106명)이 있고,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국내외 교사 연수 프로그램(2006년 1,315명)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지 새로이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국외 봉사 단원 가운데 한국어 강사가 있지만(2006년 170명) 이들은 단기적 활동을 하고 복귀하는 봉사 단원들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종학당은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방형 한국어 문화 학교’를 지향한다. 즉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어기본법(제19조 국어의 보급 등)에 따라 현지 외국인(일반대중),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대중(낮은 층위)을 대상으로 생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

해를 교육 내용으로 한다. 이는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대 도모를 의미한다.

3. 세종학당 설립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의 주관적 사업 구상이 아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업 결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은 그만큼 객관적이고 엄정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재형 외, 184). 그런 의미에서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역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추산할 수 있고, 그 편익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3.1.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 효과

3.1.1.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표 4〉 제1단계(2007년~2011년) 설립 및 운영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몽골 지역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25개교
중국 지역	10개교	10개교	10개교	15개교	15개교	60개교
중앙아시아 지역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15개교
계	18개교	18개교	18개교	23개교	23개교	100개교

국립국어원의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르면 <표 4>와 같이 2007년부터 제1단계로 중국에 10개교, 몽골에 5개교, 중앙·서남아시아 지역에 3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각각 10개교, 5개교, 3개교씩 확대, 2011년에는 중국에 60개교, 몽골에 25개교 그리고 중앙·서남아시아 지역에 1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표 5> 제2단계(2012년~2016년) 설립 및 운영 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계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이어 2012년부터 제2단계에 들어가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로 학당 설립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시 제1단계와 같이 2012년에 20개교를 설립하고 매년 20개교씩 꾸준히 설립하여 2016년에 총 100개교의 세종학당을 설립할 방침이다.

3.1.2. 세종학당 설립의 고용 창출 효과

일단 지역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각 학교당 교원의 수는 계획에 따라 최소 10명이고, 책임자와 행정 요원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세종학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그리고 설립 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게 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원은 지금 당장은 국외 현지에서 충원하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심사 및 인증에서 2006년에는 3급 600명, 2급 269명 등 총 869명이 인증을 받았고, 2007년에는 3급 364명, 2급 79명이 인증을 받았다. 즉, 2년에 걸쳐 2,299명이 신청을 하고 그 중 1,312명이 인증을 받은 것이다. 세종학당의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교원 수인 10명 중 5명은 국내에서 파견되고, 5명

은 현지에서 양성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발탁된 인원으로 충원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 행정을 담당하는 3인 중 책임자 1인은 국내에서 파견할 것이라 가정한다.

세종학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혹은 국외 대학은 이러한 교원 인력을 갖추어가면서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국내와 국외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산술적인 한국인 강사 인력의 수요를 도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제1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2015	총계
몽골	신설학당	5개	5개	5개	5개	5개	25개	0	0	0	0	25
	신규교원	5	10	15	20	25	75	20	15	10	5	125
중국	신설학당	10개	10개	10개	15개	15개	60개	0	0	0	0	60
	신규교원	10	20	30	45	60	165	50	40	30	15	300
중앙 아시아	신설학당	3개	3개	3개	3개	3개	15개	0	0	0	0	15
	신규교원	3	6	9	12	15	45	12	9	6	3	75
계		18	36	54	72	90	285	82	64	46	23	500

몽골 지역은 2007년부터 5개의 학당이 각각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해야 하고 2008년에 개교한 세종학당 5개교도 마찬가지로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년까지 25개 교에서 모두 75명, 그리고 2015년까지 총계 125명의 한국어 교원을 국내에서 충원해야 한다. 중국 역시 매년 10개의 학당이 학당별로 1명씩 2007-09년에는 매년 설립되는 10개 학당에서 10명씩을 5년 동안 충원해야 하고, 2010-11년에도 매년 신설되는 15개 학당에서 5년 동안 매년 15명씩의 강사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1년까지 총 165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고, 2015년까지 총 300명의 교원 수요를 낳게 된다.

중앙아시아 지역도 학당별로 1명씩 3개 학당에서 매년 3명의 강사 수요가 점점 더 발생하여 2011년까지 45명, 2015년까지 총 75명의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런 추정에 따라 제1차 계획에 의한 세종학당 설립은 2011년까지 285명, 2015년까지 총 5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교원 수요는 각 학당이 요건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을 매년 충원해 간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보다 더 많게, 더 빠르게 교원을 충원해 갈 수 있다.

〈표 7〉 제2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2017	2018	2019	2020	총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신설학당	20개	20개	20개	20개	20개	100개	0	0	0	0	100
	신규교원	20	40	60	80	100	300	80	60	40	20	500

제2단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강사 인력 수요는 2012년에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학당별로 1명씩 20개 학당에서 5년간 누적적으로 매년 20명의 강사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까지 총 300명의 교원을, 2020년까지 모두 500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제1차, 제2차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5명, 2016년까지 누계 800명이며, 2020년까지 누계 1,000명의 한국어 강사 수요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각 학당은 행정 요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3명 중 2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1명씩을 국내에서 파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1차 계획에 따라 100명, 2차 계획에 따라 100명씩을 파견하게 된다. 즉 200명의 행정 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결국,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2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3.1.3.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적 비용

모든 사업은 효과만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종학당의 경우 교육 시설을 새로이 건축해서 보유하는 방

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 내 같은 부서 소속으로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 문화원과 협력하거나, 현지의 대학교 혹은 각종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국내 대학 등과 업무 협정을 통해 개설하려는 것이 특징이다(세종학당 운영 규정 제4조, 5조).

따라서 시설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단지 세종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강의로 등 최소한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9조).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차 계획에서는 학당 설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비용, 한국어 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보급 비용,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비용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8〉 세종학당 소요 예산 및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번	추진과제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평균
	세부 과제							
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1,050	910	3,050	4,210	5,260	14,480	3,124
	1-1 시설비 지원	430	710	990	1,230	1,960	5,320	1,064
	1-2 교원 인건비 지원	520	0	1,760	2,580	2,900	7,760	1,780
	1-3 개설 지역 조사·관리	100	200	300	400	400	1,400	280
2	전문인력 양성	480	110	1,560	1,960	2,460	6,570	1,434
	2-1 교원자격 인증제 운영	60	60	60	60	60	300	60
	2-2 교원 파견	200	0	800	900	1,000	2,900	620
	2-3 초청 연수	200	0	600	800	1,000	2,600	600
	2-4 현지 교사 재교육	20	50	100	200	400	770	154
3	한국어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200	400	1,000	1,500	2,000	5,100	1,026.8
4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20	390	350	450	550	1,760	334
합 계		2,594	1,800	6,375	8,100	8,100	29,594	5,918.8

첫째,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비용은 단계별·연차별 설립 계획에 따라 지출될 것이며 이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시설비 지원으로 2007-11년에 총 53억 2천만 원이며 연평균 10억 6천400만 원, 학당별 5천32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학당은 현지 자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지 대학 또는 학교의 건물을 계약 통해 사용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수강학생 수의 상황에 따라 쉽게 개설과 폐교, 교체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순발력이 큰,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원 인건비로 2007-11년에 총 77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17억 8천만 원, 학당별 7천760만 원 정도이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전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세종학당 운영의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학당별로 최소 10명씩의 교원이 필요하도록 요건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인건비를 직접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학당 설립에 관해 협력을 맺고 설립한 대학 또는 학교 기관들이 교원을 채용,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학당별로 1명씩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개설 지역 조사·관리비용이 2007-011년에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14억 원이며 연평균 2억 8천만 원, 학당별 1천40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비는 2007-11년에 총 144억 8천만 원, 연평균 31억 2천400만 원이며 학당별 1억 4천480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비용은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 제도 운영 비용, 한국어 교육 전문가 현지 파견 비용, 현지 한국어 강사 등 초청 연수 비용 그리고 현지 교사 재교육 비용 등 다양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교원 자격 인증제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2007-11년에 총 3억 원이며 연평균 6천만 원, 학당별 300만 원 정도이다.

둘째, 교원 파견 비용으로 2007-11년에 총 29억 원이며 연평균 6억 2천만 원이며 학당별 2억 6천만 원 정도이다. 세 번째로 초청 연수 비용으로 2007-11년에 총

26억 원이며 연평균 6억 원이며 학당별 2천600만 원 정도이다.

셋째, 현지 교사 재교육 비용으로 2007-11년에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7억 7천만 원이며 연평균 1억 5천400만 원, 학당별 77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한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은 2007-11년에 24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65억 7천만 원이며 연평균 14억 3천4백만 원, 학당별 6천570만 원 정도이다.

넷째, 학당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2007-11년에 총 지출액은 51억 원이 소요되고 연평균 10억 2천680만 원, 학당별로 1천268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의 구축에 2007-11년에 5억 5천만 원이 지출되어 총 17억 6천만 원 연평균 3억 3천400만 원, 학당별로 3천340만 원이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1차 계획에서 단계별·연차별로 지출되는 예산은 2007년 25억 9천400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18억 원, 2009년에 63억 7천500만 원 2010년에 81억, 2011년에 81억을 책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1차 계획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295억 9천400만 원이며 연평균 59억 1천880만 원, 학당별로 2억 9천594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처럼 1차 계획에서는 100개 학당에 59억 1천880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이처럼 100개교가 설립될 2차 계획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648억 4천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을 합하여 총 944억 3천800만 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3.1.4.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 편익

지금까지 세종학당의 비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세종학당에 대한 직접적 경제 편익을 도출해 보면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학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요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종학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입을 통해 재원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당 설립에 따른 직접적 경제 편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수강료와 교재 수입이 직접적 경제 편익이 될 것이지만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세종학당 설립으로 인한 금전적 수입은 한국어 교육에 따른 수강생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수강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종학당의 강의는 초급 1과 초급 2, 그리고 중급 1과 중급 2를 기본 과정으로 하며 추가로 고급 과정과 맞춤형 강의에 대해서만 유료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급이나 맞춤형 강의에 대한 수요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학생들로부터의 금전적 수입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 그들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세종학당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설립 목적이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이해를 돕고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 이외에도 문화·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촉진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설립 목표 역시 단순한 한국어의 전파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파와 함께 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전파의 파생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원 조달에서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기부금과 자체 수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은 정부 보조금 57%, 민간 기부금 3% 그리고 영어 교습비, 운영 수익 등에서의 자체 수입으로 40%를 충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 보조금 85%, 민간 기부금 6%와 함께 운영 수익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9%를 충당한다. 독일은 정부 보조금 67% 과 자체 수입 33%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연간 운영 예산 약 144억 원 가운데 95%를 수강료, 교재 판매 등의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약 5%만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국외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어학당들은 정부 보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종학당도 매년 예산 대비 일정 부분을 자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각 지역의 학당은 총예산의 20%를 매년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와 교재비 기타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여 도출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세종학당이 주로 후진국에 개설됨을 고려하더라도 학습 효과 자극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강료 징수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5.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직접적 경제 효과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 효과를 살펴보자. 2007년 경제적 비용은 25억 94백만 원 이지만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월등히 작은 5억 19백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0억 75백만 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커진다. 2016년에는 편익은 32억 4천만 원이지만 경제적 비용은 162억 원으로 그 차이는 129억 6천만 원이다.

〈표 9〉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경제적 편익 (A)	경제적 비용 (B)	차이 (A-B)
1단계	2007	519	2,594	-2,075
	2008	360	1,800	-1,440
	2009	1,275	6,375	-5,100
	2010	1,620	8,100	-6,480
	2011	1,620	8,100	-6,480
2단계	2012	2,139	10,694	-8,555
	2013	1,980	9,900	-7,920
	2014	2,895	14,475	-11,580
	2015	3,240	16,200	-12,960
	2016	3,240	16,200	-12,960
	합계	18,888	94,438	-75,550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을 합계를 비교하면 총 경제적 편익은 188억 8천8백만 원이고 총 경제적 비용은 944억 3천8백만 원으로 그 차이인 75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처럼 수입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비용은 수입보다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세종학당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예단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오늘날 기술 혁신 주도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초 과학과 연구 개발(R&D) 투자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단기적인 수익성을 평가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학당의 목적은 한국어를 널리 알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란 상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경제적 외부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은 초기 일정 기간에는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효과는 단기적인 수익 효과 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3.2. 세종학당 설립의 간접적 경제 효과

세종학당 설립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는 그 설립 취지대로 외국 일반 대중의 한국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국내 외국어 교육 비용 감소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역할과 함께 어우러져 일반적으로 발생할 재외 교포 한글 습득에 따른 효과가 있다.

3.2.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표 10〉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지사 현황(2006.1.1 현재)

(단위 : 개, US\$1000)

	투자 기업, 지사 수	(신고)투자액	(실제)투자액
중국	19,253	23,781,203	15,833,021
아시아(중국 외)	8,793	23,143,876	12,983,143
북미	8,384	18,136,243	13,852,756
유럽	1,456	10,988,847	6,789,734
중남미	773	5,609,767	3,958,977
아프리카	235	1,813,070	815,869
대양주	1,029	2,625,720	1,209,733
중동	179	1,965,388	1,334,755
합계	40,102	88,064,114	56,777,988

자료 : 무역 협회 내부 자료, 2007

국내 기업의 국외 투자는 1997년을 정점으로 외환 위기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국외 지사 숫자는 모두 4만 102개에 이르며, 누계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880억 5천411만 달러, 실제액 기준으로 567억 7천799만 달러에 이른다(무역 협회 내부 자료).

특히 중국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투자기업 수가 1만 9천 253개, 신고된 누적 투자액은 237억 8천120만 달러, 실제 누적 투자액은 158억 3천302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나서 투자 기업 수가 8천793개, 신고 누적 투자액은 231억 4천388만 달러, 실제 누적 투자액은 129억 8천31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북미에는 투자 기업 수가 8천384개, 신고 누적 투자액이 181억 3천 624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138억 5천276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중동 등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국외 투자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보면 2001년과 2002년 기준으로 73만 8천531명과 78만 8천888이다. 업체당 볼 때 120.9명과 115.6명, 투자액 1백만 달러당 고용 유발 인원은 71.4명과 63.2명이다.¹⁾

3.2.1.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현지 시장 확대 효과

왕성하게 늘어나는 국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소통의 곤란함이다. 그 때문에 현지 교민들을 많이 채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급격하게 중국에 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구조 조정 탓도 있지만, 그 밖에도 중국 조선족들의 역할로 인한 진출의 용이함도 주요 변수 중의 하나였다.

〈표 11〉 기여도가 높은 이유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	뛰어난 개인능력	한국인 및 한국 기업 이해	성실성과 신뢰성	넓은 인간 관계	합 계
1 집단	빈도	54.0	11.0	40.0	11.0	4.0	120
	비율	45.0	9.2	33.3	9.2	3.3	100
2 집단	빈도	11.0	0	2.0	0	1.0	14
	비율	78.6	0	14.3	0	7.1	100
전체	빈도	65.0	11.0	42.0	11.0	5.0	134
	비율	48.5	8.2	31.3	8.2	3.7	100

자료 : 김번욱 이상직(2001; 118)

1) <표> 대 중국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 효과 추이

(단위 : 명)

	전체 산업			제조업		
	총 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인원	총 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인원
2000년	738,531	120.9	71.4	686,971	133.8	79.1
2001년	788,888	115.6	63.2	731,049	127.5	69.7

주 : 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 달러당 고용인원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 17)

그래서 많은 한국 업체들은 그렇게 중견직원으로 80% 정도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만한 조선족들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노무 인사와 조직 관리에 차별을 줌으로 현지화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국인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외 투자 기업의 현지동포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중 투자 기업의 종업원 구성 비율을 참조하면 재중 동포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중 동포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 부분에서 ‘매우 높음’ 또는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집단은 각각 11.0%, 37.8%로 대중 동포의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차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8%, ‘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2집단의 경우 약 20%는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웃돌고 있다.²⁾

한편 ‘매우 높음’ 또는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었더니 1 집단과 2 집단 모두 한국인과 한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 한국인 및 한국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는 뛰어난 개인 능력, 성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넓은 인간 관계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이외에도 기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적용될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진출 기업은 진출 초기에는 라이파이한을 고용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재중 동포가 한국인과 현지인 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의 재중 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대중 투자 기업의 조직 간 또는 종업원 간의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족별로 재중 동포의 기여도 평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재

2) 조사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3일까지, 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설문 대상을 구분하여 객관성 확보를 추구하고자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이다. 1 집단은 천진·대련 지역 대중 투자 기업 관리자(기업 내부인)로 254명, 그리고 2 집단은 경제 개발구 또는 보세구의 한국 기업 담당자, 현지 정부의 외자 유치 담당자, 현지 은행 직원 등(기업 외부인) 49명이다(김번욱 이상직, 2001).

중 동포의 기여도에 두 집단 간의 응답은 차이가 있다. 즉 기여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재중 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6.5%, 22.0%로 나타났지만, ‘재중 동포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15.7%, 53.9%로 나타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재중 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에서는 각각 6.0%, 3.6%로 나타났지만, 재중 동포 집단은 각각 1.0%, 0.0%로 나타나, 재중동포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민족별로 달리 평가하고 있다.

〈표 12〉 재중 동포 기여도 평가의 민족별 분포

		매우 높음	높음	차이 없음	낮음	매우 낮음	합계
기타 중국인	빈도	11	37	104	10	6	168
	비율	6.5	22.0	61.9	6.0	3.6	100.0
재중 동포	빈도	16	55	30	1	0	102
	비율	15.7	53.9	29.4	1.0	0	100.0
전체	빈도	27	92	134	11	6	270
	비율	10.0	34.1	49.6	4.1	2.2	100.0

자료 : 김번욱 이상직(2001), p.119

재중 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은 기여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중 동포의 집단에서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중 동포의 기여도 평가는 쉽지 않다. 성공적인 현지화는 종업원의 현지인화(現地人化)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조선 동포의 고용이나 승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재중 동포는 한국인과 현지인 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의 재중 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대중 투자 기업의 조직 간 또는 종업원 간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어 혹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현지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대우가 국외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외국계 기업이 늘어나면 그 나라 언어를 익혀 그들 기업에 입사하려는 현지인 구직 지망생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도 전반적인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 속에서도 한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은 민족을 불문하고 취업률이 높다. 연변 대학의 한족 학생들이 다니는 한국어과 학생들은 매년 거의 100% 취업이 될 정도로 취업률이 높고, 여기에 조선족 학생들을 포함하는 조문학부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80% 이상 취업이 가능하다(길림신문, 2006.12.14).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한국보다 훨씬 일찍 국의 진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 기업 진출이 1990년대 이후 특히 급증해서, 장강 삼각주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2004년 7천 개에서 2006년에는 1만 개를 웃돌았고 이중 5천 개 회사가 상해에 있다. 일본 기업의 중국 내 현지 채용이 늘어나면서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응시자들도 폭증하였다. 상해에만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2003년 8만 명에서 2006년에 12만 명으로 늘었지만 12월 3일 시행되는 일본어 능력 시험에 응시 기회를 얻은 학생은 2만 5,000명에 불과했다. 많은 일본기업이 직원 채용 시 일본어 능력 시험 성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길림신문, 2006.11.16). 이렇게 국외 투자 기업의 현지 채용 증대는 자국어 보급 확대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현지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외 투자 기업이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향한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 시장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 사람과 현지 사회, 현지 법인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또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원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³⁾

3)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광고업 혹은 유통업과 같이 현지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가 진행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經濟産業省, 2006; 120).

“본 회사와 같은 업종(광고업)의 경우 국외에서 단순한 생산 공정을 갖는 것과 달리 의사소통이 중요해지고 통역을 통해서는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본어와 현지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으면서 회사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인제가 필요해지는데,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고업)

“국의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일본어가 쉽게 통하는 대만을 거쳐서 그 후 중국 본토에 진출하게 되는데, 대만 현지 법인 사람을 사이에 넣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한 일본어 환경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유통업)

이렇게 국외에 한국어가 보급됨으로써 국외투자기업에 생산성 증대효과와 시장확대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효과의 크기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효과를 현지에서의 통역고용비용 감소효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3.2.1.2. 현지에서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투자에서 우선 부딪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을 고용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와 같이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통역을 고용하기가 쉽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의 전문 통역사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투자에서 통역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 1 한국어 통역 부족과 통역 비용 증가 사례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있는 성원건설의 관계자는 최근 한국어 통역을 구하기 위해 타슈켄트에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급여는 1년 계약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한 달에 600~1,000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대졸 초임이 1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춰 상당한 수준의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통역은 최대 1,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어 통역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07.3.17).

사례 2 한국어 통역 부족과 통역 비용 증가 사례 : 베트남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진출 초기에 라이파이한 통역을 구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임금은 현지 평균 대졸자 임금의 3~5배를 준다고 한다. 즉 평균 임금이 100달러인데 비해 300~500달러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카자흐스탄도 통역에 대해 평균 임금의 5배 정도인 1천~2천 달러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한다. 또 대체로 국외 현지인들은 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체에 취직하고자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사례 3**한국어 통역 부족과 통역 비용 증가 사례 : 중국**

한중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제1관광객 원천 국가가 되었다. 2005년 중국에 온 한국 관광객은 연인원 354만 명에 달했는데 그중 7분의 1이 북경에 들렀다. 그런데 연인원 50만 명이 북경에 관광하러 왔으나 한국 가이드는 태부족이다.

2004년 11월까지 북경시의 가이드 자격증소유자는 1만 4,591명인데 그중 한국어 안내 자격증 소유자가 단 430명으로 관광객 숫자에 비하면 1:796이다.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북경에는 한국어 자격증을 딴 가이드가 20-30명밖에 안 되었다. 2000년부터 북경에 오는 한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한국어 가이드는 모자라고 해서 북경 관광국에서는 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치는 기준을 많이 낮추어 고·중 졸업이상 학력이면 시험 자격을 주었다. 2007년 현재 한국어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는 약 2,000명 정도 된다.

이처럼 국외 각지의 통역사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된 지역별 투자 기업 수와 공급 부족 상태의 한국어 통역의 임금, 적정 수요의 한국어 통역관 임금을 통해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증가가 국내 기업의 국외 투자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적정 수요의 통역 임금을 추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 정확한 적정 통역사의 임금을 추정하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분석이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가 10달러에서 최근에는 30~50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통역의 임금이 기존보다 약 3배~5배가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 또한, 현재 공급 부족 상태의 통역 임금은 600~1,000달러를 호가하고 전문 통역은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략 1,000달러라고 가정한다. 즉 공급 부족의 통역비용이 한 기업당 600~1,500달러가 들고, 공급 부족이 없으면 적정 비용은 약 200~350달러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통역 고용 비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전 지역이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지역별 통역 고용 비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지역별 기업 수×
(공급 부족 시의 임금-적정 공급 시의 임금)

〈표 13〉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단위 : 개, \$)

지역	기업 수	공급 부족 시 통역 고용 비용 (A)	적정 공급 시 통역 고용 비용 (B)	A-B	통역 비용 감소 효과 (기업 수×(A-B))
중국	19,253	600~1,000	200~330	270~800	5,198,310~15,402,40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8,793	600~1,000	200~330	270~800	2,374,110~7,034,400
합계	28,046				7,572,420~22,436,800

주 : 중국 5,198,310\$~15,402,400\$=19,253×(600\$~1,000\$-200\$~33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2,374,110\$~7,034,400\$=8,793×(600\$~1,000\$-200\$~330\$)

위와 같이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의 감소는 세종학당 설립이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최소 757만 달러에서 최대 2천244만 달러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환율 900원을 곱해 계산하면 68억 1천3백만 원에서 201억 9천6백만 원의 통역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용감소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에 따라 발생할 국외투자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의 최소 부분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2.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는 곧 무역 증대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Hutchison(2002)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에서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과 수입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에 비해 수출에 대해 1.3배 더 중요하고 수입에 대해 1.7배 더 중요한 것이다. 수입에 대한 효과가 더 높고, 또 제2언어로 사용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미국(한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언어의 국외 보급은 교역 증대 효과를 낳고, 언어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관한 유사한 연구로 Gould(1994), Boisso & Ferantino(1997), Crystal(1997), Chiswick & Miller(1998), Rauch(1999) 등이 있다.

아직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이 영어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외국에서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분석을 참고삼아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의 교역 증대 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보급으로 인한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우선 한류의 확산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한국어 보급은 한류 문화의 보급과 함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어 보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3.2.2.1.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류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류 현상이 언론 보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53%)이 절반에 달했으나, 언론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42%)에 달하였다고 한다. 즉, 공연장,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한류의 열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한류가 일반 도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류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에 이바지하려면 특정한 연령층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한류의 경제적 효과 종합

	수출액		부가가치액 (억원)	명목 GDP 기여 (%)
	백만 달러	억 원		
상품 수출	918	10,508	5,727	0.07
관광객 유치	825	9,449	7,277	0.09
영화·방송 프로그램 수출	130	1,485	1,335	0.02
합 계	1,872	21,440	14,339	0.18

자료 : 박귀현(2005)에서 정리

따라서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면 한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 지역의 학습자들은 목적이 국제결혼과 함께 한국으로의 취업이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보급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다.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어 보급과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상품 부문에서 조사 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가 9억 1,800만 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수출액 127억 5,200만 달러의 7.2%에 달하였다.

외국 관광객 유치 분야에서는 2004년 총 관광객 증가 수 96.8만 명 중 한류로 인한 관광객 증가 수는 64.7만 명으로 66.9%를 차지하였으며, 분석 대상 4개국(일본,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 수 83.0만 명 중 78.0%를 점하여 한류가 관광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효과 64.7만 명이 한국 내에서 지출한 총지출액은 9,449억 원으로 국내 순 부가 가치 유발액은 7,277억 원에 달하여 2004년 우리나라 GDP를 0.09% 끌어올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관광객 수는 일본이 244만 3천 명이고 중국은 62만 7천 명 그리고 대만은 30만 5천 명으로 일본이 월등히 많지만, 한류로 인한 관광객 수의 비율은 일본이 20.1%, 중국 59.5%, 대만 53.5%로 중국과 대만이 월등히 높다. 1인당 지출액도 일본이 1,108.5달러, 중국이 1,338달러, 대만이 1,064.5달러로 중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

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한국어 보급 확산은 한류의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시켜 관광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3.2.2.2. 한류와 한국어 전파의 시너지 효과

이제 한국어와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의 관광 산업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한류 열풍 시기 중 문화 콘텐츠의 파급 효과로 한국을 찾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2004년 한류 붐을 일으킨 국가의 관광객 중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47%에 달한다.⁴⁾ 이렇게 관광 산업에 대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사용한다면 한국어를 통해 한류가 전파되어 한류와 한국어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 산업의 업종별 수출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에 어떤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출판업, 주로 국외 자본의 하청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음악, 영화, 방송 등과 같이 그 내용 면에서 국적성이 비교적 뚜렷한 업종은 2001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3-04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여 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05년에는 영화·방송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영화 수출은 對日 수출 급증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천6백만 달러,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수출은 동 73.3% 증가한 1억 2천 1.8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총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12억 3천6백만 달러로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갔다.

4) 한국관광공사, 2004

〈표 15〉 2005년도 문화 산업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 천 달러)

	만화 산업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캐릭터 산업	디지털 교육 및 정보 산업	합계 (영화 제외)
중국	8.9	87.0	0.6	8.8	36.7	3.7	19.7
일본	10.4		31.5	61.9	8.5	53.9	30.1
동남아	14.1		0.5	25.0	5.4	4.0	10.1
북미	43.7	2.7	56.9	2.1	11.4	112.8	18.8
유럽	12.6	9.6	4.5	0.0	25.2	4.7	12.6
기타	10.3	0.7	6.0	2.2	12.8	20.9	8.1
전체 금액	3,268	75,995	78,249	105,885	163,666	5,203	356,271

주 : 문화 산업 중 출판, 음악, 게임산업 등은 지역별 분류 미상으로 제외됨.

자료 : 문화 산업 통계(문화관광부, 2006)에서 계산.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액 1억 2천980만 달러(1천485억 원)의 국내 부가 가치 유발액은 1천335억 원으로 2004년 GDP를 0.02%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한류 문화의 수출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며 이는 다시 서민들에게 보급되어 서민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환류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표 16〉 세종학당의 연간 졸업생 수

(단위 :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학교 수	10개교	20개교	30개교	45개교	60개교	60개교
연간 교육 인원	6,000~ 8,000	12,000~ 16,000	18,000~ 24,000	27,000~ 36,000	36,000~ 48,000	99,000~ 13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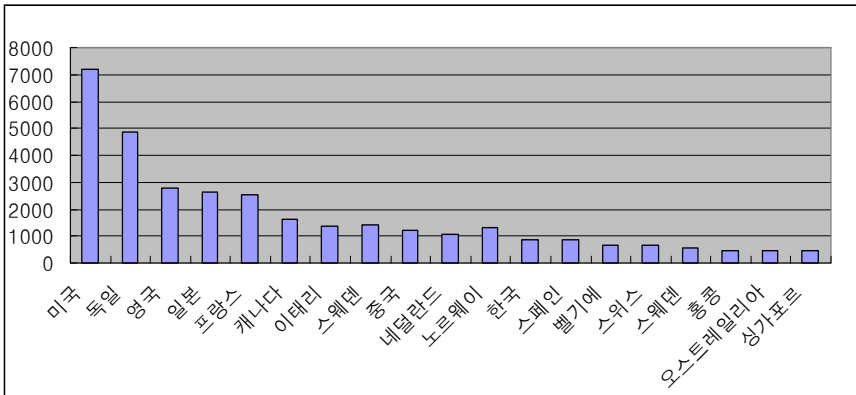
이렇게 세종학당에서 배출되는 한국의 학습자 수는 10개교가 설립되는 2007년에 연간 6천~8천 명이 될 것이며 그 후 가속적으로 증가해서 60개교가 설립되는 2011년까지 누계 99,000 또는 13만 2,000명이 될 것이라 추산된다. 이들 세종학당

졸업생들이 국외에서 한류의 전령사가 되어 한국의 문화 산업, 더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요자, 또 애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만큼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3.2.2.3.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그림 1〉 국가 브랜드 가치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조동성(2007: 14)

조동성(2007)의 2006년도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가치는 (1) 미국 7만 2천10억 달러 (2) 독일 4만 8천620억 달러 (3) 영국 2만 7천660억 달러 (4) 일본 2만 6천550억 달러 (5) 프랑스 2만 5천290억 달러 등이고, 이 중 한국은 8천660억 달러로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광고를 통해 올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어의 국제화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함께 콘텐츠 개발에 한류를 담는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류가 전파됨으로써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종학당의 설립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층이 확산되면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이처럼 진행될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증대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K.Hutchison(2002)은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를 브랜드 가치 증대에 대입시켜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2006년도 브랜드 가치 8,660억 달러가 0.17%, 14억 7,220만 달러 증가하여 8,674억 7,220달러로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세종학당 설립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1조 3,250억 원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3.2.3.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일반적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다. 그러나 언어 소통 능력 부족 때문에 유입국에서는 단순 노동 종사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특히 오늘날의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 가치 경영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종업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유통 및 보급이 생산성 증대에 긴요하다.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 확대는 그들을 고용하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A.Gonzalez(2000)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미계 이주민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이 17% 높아진다. 종사 직종도 영어 구사 능력이 취약할 때는 서비스직, 생산직이 대부분이지만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 사용 능력 가운데에도 회화 능력은 체재 기간에 따라 상승해 가지만 문자 해독(읽기) 능력은 교육과 학습에 의해 상승해간

다(Chiswick 1991). 이에 관한 유사 연구로 G.J.Borjas(1994), G.Carliner(1995), E.Funkhouser(1996), J.E.Hayfron(1999), R.Rivera-Batiz(1990)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40만 명 전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다. 2000-01년에는 30만 명 전후의 숫자가 취업했는데, 그 후 약 2년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여 40만 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5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체류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을 보면 일반 외국인은 16.0개월, 특례자는 21.0개월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원천적으로 고용허가제가 국내 고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평균 체류 기간이 2년 전후임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기간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과 그들의 언어 소통 능력, 그리고 소득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B.R.Chiswick & P.W.Miller, 1995)에 따르면 장래 체류 예상 기간이 유입국에서의 언어 습득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3년간 한국 내 고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면 채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61.7%)이 신체 조건이어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령(54.3%), 출신 국가(51.3%), 한국어 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신체 조건과 연령을, 제조업은 출신 국가를, 건설업과 요식업은 한국어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인적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학력, 직업 경력, 기술 자격증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대부분(88%)이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 업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정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12.0%에 불과하고, 교육 훈련이 필

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 업무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인적 자본 속성보다는 신체 조건, 연령, 출신 국가, 성 등의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숙련 인력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대체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이고 고용 이유가 주로 육체적 노동의 요소가 비중이 높은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직무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 인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요인으로서 언어 문제가 66.1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능력 정도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급 수준이라고 응답한 자는 1.3%에 불과하고 중급이라고 응답한 자가 76.0%에 이른다. 특례자는 국적 동포인 관계로 한국어 수준이 상급이라고 응답한 자가 40.0%, 중급자가 56.8%로 중급 이상이 96.8%에 이르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사용자기업(제조업의 경우)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을 위해 취업 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조사한 설문에서도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5)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사업체가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수준은 고졸 55%, “학력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24.7%, 중졸 16%이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출국에서의 직장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사업체도 29%에 불과하여 현재의 직장 경력자 고용 비율 47%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주가 평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생산성 및 노동 비용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 시간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101.5%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량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94.7%, 생산성은 89.0%, 임금 수준은 86.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임금, 총 노동 비용

(단위: 개소, %)

		사업체 수	근로 시간	업무량	생산성	임금 수준	총 노동 비용
전 체		300	101.5	94.7	89.0	86.7	90.1
업종	경공업	68	101.6	92.7	86.1	82.6	87.3
	중공업	132	102.1	93.4	87.4	84.5	88.4
	건설업	50	102.2	98.4	91.5	88.7	92.3
	음식업	50	99.2	97.4	94.8	96.2	96.5
규모	1~9인	119	100.2	95.0	91.1	87.5	90.8
	10~29인	137	102.4	93.7	88.1	85.8	89.8
	30인 이상	44	102.3	97.1	86.5	87.7	89.6

자료 : 유길상(2007: 48)

특히 건설업과 음식점은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각 91.5%, 94.8% 수준이고, 임금 수준이 각각 88.7%와 96.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중국 조선족 출신임을 생각하면 결국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한국 식당 종업원의 임금은 한국인이 월 100만 원, 조선족은 60만 원으로 40% 차이가 났지만 매년 격차가 줄어 최근에는 모두 월 1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이미 작년부터 조선족은 한국인과 꼭 같이 13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가정부)는 150만 원인 한국인과 격차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140만 원으로서 임금 격차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⁶⁾

조선족이 30%를 차지하는 건설 일용 직종도 조선족의 급여가 한국인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잡부와 목수 모두 일당이 1만~2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다. 일부 조선족은 잡부(일당 5만 8천 원)에서 출발했지만 기능을 익혀 임금이 높은 목수(일당 9만 6천 원)직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길림신문, 2007.8.9).

이렇게 볼 때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숫자를 20만 명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중·상 수준으로 향상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10-20% 상승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때 그들의 임금 수준이 요식업의 식당 종업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 130만 원 수준으로 즉, 15%인 월 19만 5천 원, 연간 234만 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0만 명에 대해 계산해 보면 4천680억 원의 임금 소득 증대와 그만큼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4. 국내 영어 교육비 감소 효과

현재 한국은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외 지향적 경제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전 국민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영어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영어 사용 능력은 곧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성취와 직결되고 영어 능력의 양극화가 곧 사회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발달한 선진 학문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기 유학이 일반화되고, 소위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어 심한 경우에는 가족의 해체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어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명예로까지 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국제 수치 상의 외국 여행 수치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서 국가적으로

6) 2006년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은 22만 1,000여 명이고 불법 체류자(약 3만 2,000명)를 포함하면 25만여 명, 이들의 남녀비례는 1대 1 정도이며, 이중 44.7%가 음식점 취업 희망자로서 1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 음식점에서 조선족들이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외화유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외 현지에서 한국어가 보급되어 한국기업의 국외 사업장에서 적어도 현지인 중견 간부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면 한국 최고 관리자들이 현지어 습득은 불가피하겠지만 영어 사용에 따른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 한국어 보급이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교육 수지 적자를 보완해 줄 것이고,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 경제적인 추산을 해보기로 한다.

우선 유학생 교류의 실태를 보면 200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만 2,557명으로 이는 2000년 6,160명, 2003년 1만 2,314명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2만 9,227명으로 전체의 89.9%에 달한다(국정브리핑 2007.5.1).

하지만, 국내 학생들의 국외 유학 혹은 연수로 나가는 인원의 숫자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국내 유학 혹은 연수 관련 상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미 한인 유학생 숫자만 보더라도 2006년 11월 현재 8만 7천72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4.3%를 차지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 가 있는 한국 학생의 숫자(6개월 이상 장기 유학)는 2006년 6월 현재 중국 전역 268개 대학에 3만 150여 명이다(한국대학신문, 2006.6.9).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 유학 혹은 연수와 관련해서 지출한 돈은 2006년 1-7월간만 보더라도 모두 24억 3천만 달러(2조 3천300억 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지출한 돈은 그 0.4%에 불과한 1천50만 달러에 그쳐서 교육 수지 적자가 24억 1천9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한국은행 자료).

그런데 2005년 현재 국외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47개국 643곳이며, 한국학교·한국교육원·한글학교 수는 96개국 2천100여 곳에 이른다. 사용자 순위로 볼 때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한 단계 앞선 세계 12위. 재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약 50만 명에 이른다(한겨레신문, 2006.10.26).

〈표 18〉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유학생의 변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유학생
2005년	643	2,100	약 50만 명	3만 2,500명
2012년	1,000	3,000	약 80만 명	5만 명
차이	357	900	약 30만 명	1만 7,500명

〈표 19〉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교육 수지 적자의 변화

	유학생	수입	지출	수지
2005년	3만 2천500명	1,050만 달러 (100억 6천7백만 원)	24억 3천만 달러 (2조 3천300억 원)	24억 1천950만 달러 (2조 3천199억 원)
2012년	5만 명	200억 원	2조 3천300억 원	2조 3천100억 원
차이	1만 7천500명			99억 원

세종학당의 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950개의 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파급 효과는 한국어 강좌와 한글학교 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약 50만 명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대폭 늘어나 약 80만 명까지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수의 증가는 국내로의 유학생의 수를 연쇄적으로 늘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학당의 설립은 교육 수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추정 결과 세종학당의 2차 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950개교가 모두 설립되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한국 문화와 산업 및 경제 그리고

7) 현재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금 할인, 복수 학위제, 글로벌 기숙사 운영, 국외 자매결연 대학에 한국어 교육원 설립, 그리고 나아가 특정 학문 분야(국제경제통상, 중국학)에 대한 대학 혹은 대학원 국외(특히 중국) 현지 설립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05년부터 ‘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 기술에 관심이 높아져 유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2년에는 유학생이 5만 명이 되고 이로 인해 교육 수지가 2005년에 2조 3천199억 적자이지만 2012년에는 2조 3천100억 원으로 되어 99억 원의 경상 수지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해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국외 사업장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 영어 사용 부담은 일부 줄일 수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영어 교육 비용 일부를 줄이는 효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자.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부담감은 조기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단순화를 위해 국외 어학 연수비와 국내에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영어 마을, 그리고 국외 세종학당 설립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20〉 지역형 영어 마을 예와 세종학당의 연간 운영비 비교

영어 마을 운영 비목	소요액	영어 마을 운영 비목	소요액
인건비	9억 원	제세 공과금	1억 5천만 원
식비	4억 원	시설 관리비	2억 원
교재 구입비	2억 5천만 원	광고 홍보비	5천만 원
소모품비	2천4백만 원	기념품 제작비	3백만 원
용역 임대료	2천만 원	버스 임대료	1천8백만 원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예비비	3천만 원
영어 마을 연간 운영비(100명 기준) : 총 50주 합계 20억 5천500만 원 (200명 기준) : 총 50주 합계 36억 9천900만 원			
세종학당 연간 설립 및 운영비(200명 기준) 지원 : 연간 5천919만 원			

자료 : 신미정(2005)에서 작성

국내 설립되고 있는 영어 마을은 그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조성 후 운영의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조성 후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여 수요가 줄어들면 운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비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는 이용과 운영에 관한 전망에 따라 지원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영어 마을은 이용 인원 연간 200명 기준 5박 6일 프로그램의 연간 상시(50주) 운영비가 약 39억 원, K대학은 약 36억 9천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신미정, 2005).

이 37억 원의 운영비에 대해 그 중 75%를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면 지원금은 27.75억 원이 되고 50%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18.5억 원이 된다. 그러나 물론 이 경우 입소자 개인의 부담금이 주당 9만 2천500원 또는 18만 5천 원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간 36억 9천9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영어 마을은 최소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 정도의 국외 연수를 통한 외화 유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소자 부담금도 결국 국내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아닌 국가 경제적 비용으로 보면 36억 9천900만 원이 되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시설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지출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세종학당의 경우 그 설립 및 운영비, 전문 교원 양성 및 파견 비용,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제작,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등 제반 소요비용이 1차와 2차 계획에 따라 각각 295억 9천400만 원이라고 추정되었다. 이는 연평균 59억 1천880만 원이며, 학당별로 5년간 2억 9,594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았으니 연간 학당별로 5천919만 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운영비 5,919만 원은 영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외 연수 비용 300여 억 원, 영어 마을 운영비 36억 9,900만 원 등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200명과 국내 영어 학습자 200명이 국외 연수 또는 국내 영어 마을에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는 300여 억 원 혹은 36억 4천만 원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4. 결론- 세종학당 설립의 효과와 국외 한국어교육의 체계

4.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요약

지금까지 세종 학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비용과 총 편익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서 비교해보면 위와 같다. 총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 모두 합계하면 944억 3천800만 원이 된다. 이러한 투자로부터 우선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2020년까지 1,0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 200명의 행정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즉, 국외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1,200명 발생한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약간의 수강료와 교재비, 그리고 부대 시설 운영 수입을 총비용의 20%로 가정하면 직접적 경제적 편익이 118억 3천7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직접적 경제 효과는 755억 5천40만 원의 적자가 되고, 이는 10년간 총계 값이므로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75억 5천504만 원의 적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시행하는 데 따른 경제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초기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여기에 간접적 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간접적 경제 효과는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는 국외 투자 기업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를 대리값으로 생각해보면 68억 1천300만 원 내지 201억 9천600만 원이 된다. 물론 국외 사업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은 현지어를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현지인 중간 관리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단순히 통역 고용 비용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 최대치인 201억 9천600만 원을 현지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W.K.Hutchison(2002) 등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증가에 대입해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1% 증가할 때 2006년 현재 한국의 브랜드 가치 8

천660억 달러가 0.17%, 14억 7천220만 달러 증가하여 8천674억 7천220달러, 즉 1조 3천250억 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한류 효과에 따른 제품 수출 증대 효과, 관광객 유치 효과, 문화 상품 수출 효과는 2조 1천440억 원이다).

〈표 2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1차, 2차 세종학당 설립/운영의 총비용 (연간)	944억 3천800만 원 94억 4천380만 원
직접적 총편익 (연간)	188억 8천760만 원 18억 8천876만 원
간접적 총편익(연간)	1조 8천267억 9천500만 원
1)국의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201억 9천600만 원
2)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1조 3천250억 원
3)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생산성 증대	4천680억 원
4)국내 영어 교육 비용 감소 효과 (교육 수지 개선 효과)	99억 원
(영어 마을 1곳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00만 원
고용창출 효과	교원 1,000명, 행정요원 200명 ▽75억
직접적 경제 효과(연간)	5천504만 원
전반적 경제 효과(연간)	1조 8천192억 3천996만 원
전반적 비용편익비율	192.6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도 그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때 국내 20만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산성이 15%(A.Gonzalez(2000) 등은 17%)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4천680억 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국외 한국어 사용의 증가는 그만큼 국외 투자 사업장에서 현지어가 아닌 영어 사용 필요성은 줄여서 국내 영어 교육비의 감소 효과를 낳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한국어 습득자들의 한국 유학을 고려하면 99억 원의 교육 수지 개선 효과, 또 최소 영어 마을 1곳의 연간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00만 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1조 8천 192억 3천996만 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

다. 그 결과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편익비율은 192.6이 된다.

이상은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초기 매몰비용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편익이 더 적은 적자를 낳지만, 국외에서 대중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보급시키는 막대한 효과를 낳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4.2.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

〈표 22〉 2006년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전부 부처 간 실행 예산

부처	기관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 동포교육과	37억 4천만 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재외 한국 문화원	16억 4천만 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외국민재단	145억 8천만 원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협의회’에서 확정된 2006년 사업은 총 11개 기관에서 총 2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중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들이 14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교육인적자원부로서 37억 4천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여타 부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되지 않아서 부서 간 사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국외 외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이 가장 폭넓은 효과를 낳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세종학당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낳을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

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수요에 부응하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된다.

한편 여기에서 얼핏 봐서 동일한 사업에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외 한국어 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각 부서 간 중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사업의 통합 내지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특화)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국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방안

국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부서와 기관들은 각각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보급 대상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제 국외 한국어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기관의 일원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즉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결국 국외 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화일 것이다. 그러자면 각 기관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켜 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각 기관의 성격을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역할 모형을 제시해본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해 법률(국어기본법)에 의해 그 역할이 부여된 주무 부서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우리의 문화 유산 차원에서 이해하고 문화의 확산 및 교류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국외 확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외 한국 문화 확산과 결합해서 한국어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시너지 효과)을 누릴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 교류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국제 교류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요 국제 교류 내용(콘텐츠)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사회 교육이나 대중으로의 확산보다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한국학 진흥과의 관련성 도모 등이 특징으로 부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상 규정된 교육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재외 국민(넓게는 전체 재외 동포)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 접근한다. 최근에 국가 간의 교육 협력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국비 유학생 교류 지원 등에 있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EPS-KLT)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활동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와 농림부는 국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의 국외 확산에는 직접 참여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산하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활동이 중복, 혼선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 네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은 현재 국내외(외국의 일부 지역 제외)로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직접적 참여가 극히 적었던 만큼 부서 간 공유한 기조에 따른 참여는 제한하기보다는 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 간의 역할 분담 및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어의 국외 확산 가운데에도 특히 시대적 추세인 사회 교육으로의 확산에 대해 정부 내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관련 부서 혹은 기관이 이에 협조하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기관들 가운데에는 세종학당이 가장 이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학당을 사회 교육으로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주무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교육 주관 부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어 국외 보급과 관련한 여러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및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체인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거나 상위 기관인 국무 총리실에서 관련 회의를 주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 국외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의제로 채택을 피하여야 하며 국외 확산을 위한 브랜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논하는 세종학당을 이러한 국외 한국어 보급에서의 국가 브랜드의 하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종학당이 국외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산을 담당하게 될 경우, 이에 걸맞은 예산 확보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끌어내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국정브리핑

길림신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문화산업백서』, 『문화정책백서』 각 연도

세계일보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http://www.coree-culture.org/kr_cour01.php)

주한 독일문화원(<http://www.goethe.de/ins/kr/seo/koindex.htm>)

주한 영국문화원(<http://www.britishcouncil.org/kr/korea>)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http://www.jpfo.or.kr/>)

주한 프랑스문화원(http://www.france.or.kr/CCF_kr/index.htm)

한겨레신문

한국대학신문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흑룡강신문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_____,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김번욱 이상직(2001),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중국 투자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김재형 이승태 홍기석(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한국
개발연구원

- 김재훈(1998), 「발전도상경제의 노동용역 수출」, 『동서경제연구』 제10집 제1권, 한국동서경제학회, pp.41-72
- _____ (1998), 「화교경제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태」,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4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93-121
- _____ (1999), 「화교경제 네트워크와 중화경제권의 형성」, 『공간과사회』, 통권 제1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pp.134-165
- 박기현(2005), 「한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연구』,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박현 유경준 김석영 박승준(2004),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신미정(2005), 「대구광역시 영어 마을 조성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 유길상 이규용 박영범 박성재(2005),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장관실
- 정갑영(2006),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항록(2007), 「전환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술회의 발표논문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문화 적응」, 국립국어원
- 외교통상부(2005), 「재외 동포현황(2005년도)」
- 조동성(2007), 「2006년도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연구결과」, 산업정책연구원
- 조명성(2004), 「한상네트워킹을 통한 교역증진효과 조사」, 재외동포재단
- 한국관광공사(2004), 『한류관광마케팅의 파급 효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 한국노동연구원(200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經濟産業省(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 日本國際交流基金(2005), 「日本國際交流基金年報」

- Boisso,D and M.Ferantino(1997), Economic distance, cultural distance, and openness in international trade : empirical puzzule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2,no.4, pp.456-84
- Borjas,G.J.(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2, issue 4, pages 1667-1717
- Carliner,G.(1995), The Language Ability of U.S. Immigrants : Assimilation and Cohort Effects, NBER Working Papers, No 5222
- Chiswick,B.R. & P.W.Miller(1995),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no.2, pp.246-288
- Dustmann,D.(1999), Temporary migration, Human capital, and language fluency of migr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1(2), pp.297-314
- Gonzalez,A.(2000), The Acquisition and Labor Market Value of Four English Skills : New Evidence from NAL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18, issue3, pp.259-69
- Gould,D.M.(1994), Immigration links to the home country:empirical implications for U.S. bilateral trade flow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 pp.302-16
- Hayfron,J.E.(2001), Language Training, Language Proficiency and Earnings of Immigrants in Norway, Applied Economics, vol. 33, issue 15, pp. 1971-79
- Head,K. and J.Ries(1998),Immigration and trade creation : economic evidence from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1,1, February,pp.47-62
- Hutchinson,W.K.(2002), Does ease of communication increase trade? Commonality of language and bilateral trade,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9, no.5, November, pp.544-556

Rauch,J. and V.Trindade(2002),Ethnic Chinese networks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4, no.1, pp.116-30

Rivera-Batiz,F.(1990),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Economics Letters 34, pp.295-300

3.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목표

본 연구는 커져 가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사·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인력을 조사하고 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연수 제도 등)을 제안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수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고 교육 기관별, 혹은 지원 기관별로 이루어져 왔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급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국외의 경우, 대학이나 세종학당, 문화원이나 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여성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대개 비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교육 현장에 적절히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교원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히 2016년까지 국외에 2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을, 역량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시행 및 한국어 교육의 발전, 나아가 국가 홍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 연구 내용

1) 자료 조사

- 교육 기관별 한국어 교사의 수요를 파악한다.
-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한다.
- 국내외 공적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여부 현황 및 교원의 실태를 파악한다.

2) 연구

- 이상의 자료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무자격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4. 연구 방법

- 자료 조사
- 자료 분석 및 연구
- 전문가 초빙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한국어 교원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양적 성장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한류의 급속한 확산,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30여 년 전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온 곳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인데 이들은 초기 단계에 시작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따라 최근의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어 교원의 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 나라가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는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하려는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타 국가에 소개하는 동시에 국가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학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도 자질을 갖춘 상당수의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외 한글학교나 국제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외 동포의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보다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외에 잠정적으로 거주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들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등에 재입학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한

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전술한 모든 상황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질적 자질을 갖춘 보다 많은 수의 한국어 교원의 수를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은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볼 곳이다.⁸⁾ 보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수, 그들의 자격 보유 여부와 자격 종류, 학력 및 교육 경력 등을 살펴볼 것이며 향후 이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자격 소유자의 총수, 학력, 경력 등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예측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 자격 소유자의 수와 향후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비교, 검토하면서 향후 한국어 교원 수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1. 한국어 교원의 현황

1) 양적 현황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 수를 조사해 보고자 했다. 총 14개의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그 잠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6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8)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기관, 즉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여성 결혼 이민자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교육 기관>, <세종학당>, <국의 한글학교> 등에 대해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 정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잠정적으로 우선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 기관 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1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5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55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정규 학기의 시간강사로 운영)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1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8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5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3
합계	267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22.25
총교원 수	$22.25 \times 54 = 1201.5^9)$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 당 평균 22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2>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총교원 수(명)	기간 당 자격증 소지 비율(%)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6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5명, 3급 1명	2급 : 93.75% 3급 : 6.25% 전체 비율 : 100%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3 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2명, 3급 5명	2급 : 8.7% 3급 : 21.74% 전체 비율 : 30.43%

9) ‘1201.5’는 <기관 당 평균 교원 수>에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 학교를 곱해서 산출한 결과이다. 54개 대학 기관의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교육 기관 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종교원 수(명)	기간 당 자격증 소지 비율(%)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1 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명	2급 : 4.76%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45명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5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3급 15명	3급 : 100%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55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2명, 3급 31명	2급 : 21.82% 3급 : 56.36% 전체 비율 : 78.18%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학기 중이 아닐 때는 강사가 없음.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1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3명, 3급 3명	2급 : 27.27% 3급 : 27.27% 전체 비율 : 54.55%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0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2명, 3급 1명	2급 : 20% 3급 : 10% 전체 비율 : 3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0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11명, 임시교사 6명	2급 : 55%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8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3명, 3급 8명	2급 : 16.67% 3급 : 44.44% 전체 비율 : 61.11%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5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11명	2급 : 44%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3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3급 1명	3급 : 7.69%
합계	267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1급 0명, 2급 60명, 3급 65명	1급 : 0%, 2급 : 22.47%, 3급 : 24.34% 전체 비율 : 46.82%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 기관에 따라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교원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2급을 93.75%, 3급을 6.25% 보유하고 있다. 한편, B 대학의 경우에는 총교원의 30.43%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급은 8.7%, 3급은 21.74%이다. F 대학의 경우에는 총 15명의 교원 모두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표본 조사한 14개 대학의 총 교원 수는 267명이며 이 중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급 60명, 3급 65명으로 전체 교원의 46.82%에 해당한다. <표 4>는 비율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

한국어 교원 교육 경력	비율(%)
1년 미만	0
1년 이상 ~ 2년 미만	16.67
2년 이상 ~ 3년 미만	66.66
3년 이상 ~ 4년 미만	16.67
5년 이상	0
합계	100

3) 사회적 수요

아래 표는 각 대학 기관이 향후 5년간에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이다.

<표 4> 대학 기관별 향후 5년간에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 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2012년(명)	2013년(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5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0	15	10	10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12	6~12	8~15	10~15	10~15

교육 기관 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2012년(명)	2013년(명)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2~3	5	5	5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	3	3	3	3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	3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20	20	20	20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8	20	23	25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합계	63~74	65~69	71~78	71~76	73~78
평균	68.5	67	74.5	73.5	75.5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	8.56	9.57	12.42	12.25	12.58
필요한 총교원 수 ¹⁰⁾	462.24	516.78	670.68	661.5	679.32

2.2.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현황

1) 기 자격 소유자

〈표 5〉 기 자격 소유자 수

연도별 급수	연도별 인원(명)	급수별 합계(명)
2006연도 2급	269	454
2007연도 2급	185	
2006연도 3급	599	1053
2007연도 3급	454	
2007연도 3급(2차 합격자)	477	477
합계		1507

10) 이 수들은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에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 학교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표 6〉 기 자격 소유자의 학력¹¹⁾

기 자격 소유자 학력	인원 수(명)	비율(%)
검정고시	0	0
전문대학 재학	0	0
전문대학 졸업	0	0
4년제 대학 재학	0	0
4년제 대학 졸업	60	11.63
석사 과정 재학	24	4.65
석사 과정 수료	36	6.98
석사 과정 졸업	204	39.53
박사 과정 재학	56	10.85
박사 과정 수료	76	14.73
박사 과정 졸업	60	11.63
기타	0	0
No Answer	0	0
합계	516	100

〈표 7〉 기 자격 소유자의 경력

기 자격 소유자 경력	인원 수(명)	비율(%)
1년 미만	32	6.20
1년 이상 ~ 2년 미만	72	13.95
2년 이상 ~ 3년 미만	32	6.20
3년 이상 ~ 4년 미만	60	11.63
4년 이상 ~ 5년 미만	36	6.98
5년 이상	76	14.73
기타	8	1.55
No Answer	200	38.76
합계	516	100

11) <표 6>은 자격증 소지자 총수 1,984명 중에 설문 조사에 답변을 한 516명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표 8〉 기 자격 소유자의 현직 종사 여부

기 자격 소유자 현직 종사 여부		인원 수(명)	비율(%)
현재 종사하고 있음		324	62.79
현재 종사하지 않음	앞으로 종사할 예정	124	24.03
	앞으로도 종사할 예정 없음	48	9.30
기타		20	3.78
합계		516	100

2) 향후 5년간 자격 보유 예상 인원 수

한국어 교원 2급과 3급의 자격증을 향후 새롭게 보유하게 될 예상 인원 수는 다른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2급 보유 예상 인원수를 추정해 보도록 하자. 전술한 <표 5>를 참고해 보면 연도별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2006년(269명)과 2007년(79명)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6년에 이르러 일시에 자격증을 신청한 결과이다. 2007년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연간 자격증 소지자 수를 예상하는 데에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소지자 수에는 물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2급 자격증을 신청한 학부, 대학원생이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에 전공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새롭게 배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연도별로 배출될 한국어 교원 2급 소지자의 수를 보수적으로 연 110명 정도로 추정하여 향후 5년간 대략 550명의 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3급 자격증은 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을 통해 보유하게 되므로 그 보유자의 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약간의 증가는 예상되나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06년 최종 합격자(599명), 2007년 최종합격자(454명), 2007년 2차 합격자(477명)의 평균을 내어 추정한 향후 연도별 3급 자격 예상 보유자 수는 510명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대략 2,550명(510명 X 5년 = 2,550명)이 3급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3.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

우리는 우선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4개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표본 기관의 교원 수는 기관 당 평균 22명이며 이를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 기관으로 곱하여 대략 1,200명의 총 교원 수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물론 이 수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의 총수이며 여성 결혼 이민자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교육 기관, 세종학당, 국외 한글학교 등의 교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이 자료들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기관에 따라 교원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략 전체 교원의 46.82%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원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자격 조건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2년 이상~3년 미만’의 교원 수가 가장 많았다. 표본 조사를 통해 대학 기관에서 향후 5년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를 예측해 보았는데 2009년 462명, 2010년 517명, 2011년 671명, 2012년 662명, 2013년 679명으로 총 2,991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배출된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총수는 2급과 3급을 포함하여 1,507명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석사 졸업, 박사 과정 수료, 4년제 대학 졸업, 박사 과정 재학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 경력은 5년 이상 경력자가 15%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중 향후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24%(429명으로 추정됨)였다. 향후 5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2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550명, 3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2,315명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 수를 계산해 보면 총수요가 2,991명, 총 공급이 3,529명(429명+550명+2,550명)이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수요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것만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교육 기

관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기관의 교육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략 전체 교원의 46.82%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자격 조건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보면 총수요와 총 공급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 기관들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논의에 앞서 이들 기관에 어떠한 자질을 갖춘 교원들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3.1. 문제 제기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 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 교육 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 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 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이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규정됨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

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기준이 1)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한국어 교원 심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전공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던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2) 현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비전공자와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3.2.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 과제를 하나씩 검토해 가며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 과제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전공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던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 포함)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와 한국어 교육 경력자, 단기 과정 연수 후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 모두에게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 분류표에도 이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며, 국내에 학부 과정,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매해 많은 학생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자격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 시행령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배출이 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그 중에서도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국외 파견 교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될 한국어 교육 전공자 수와 기관별 교사 채용 예상 인원 수를 비교해 볼 때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제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전문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관 학과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필요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점 취득 요건만으로 볼 때는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을 취득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해 필요 학점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이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가 졸업장에 한국어 교육학 전공으로 전공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학과명이나 전공명을 바꾸고,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는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전공자(복수 전공 포함)와 부전공자로 구분해 2급과 3급 자격을 부여하며, 필수 취득학점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3>에서 다시 논의한다.

2) 비전공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아닌 다른 자격을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 자격을 부여한다.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2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1)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큰 자산이며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2>에서 함께 논한다.

<논의 과제 2> 현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비전공자와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나 2)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이들과 같이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가칭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시행령보다는 자격 기준을 완화시켜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상당한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한국어지도사' 자격이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널리 부여하는 자격이라는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엄격히 실시되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완화하는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을 시행령 '시행 전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을 국내외 대학에서의 경력만으로 제한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는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실시된다. 공교육 기관, 즉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국외의 중고등학교, 한국교육원, 한국 문화원, 한국학교 등에서는 물론 국내의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 기관, 국외의 한글학교 등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 교육과정은 그 체계성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 경력을 쌓으며 나름의 교수법을 터득하여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8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주당 교육 시간이 2~4시간인 한국어 교원이 채우기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주당 3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2년 정도 한국어를 교육하는 시간인 300시간을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시간도 시행령 이전의 교육 시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편 한국에는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지도사’로 훈련시켜 새로이 이주해 오는 출신 국가의 여성을 교육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한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40~80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한국어 교원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13조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자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자격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한국어지도사’의 경우는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제 3〉 전공자와 부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학점 수가 적절한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관련). 교과목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고, 대학,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9〉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별표 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부 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 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 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학부의 경우 45학점을,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을 5개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갖추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취득 학점 수가 터무니없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학 영역을 1~2과목만 이수해도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고, 부전공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과목을 3과목만 이수해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원의 교육 능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이 적은 것은 총 취득 학점 규정(학부 주전공 45학점, 학부 부전공 21학점, 대학원 전공 18학점)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점 수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 요건에 맞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 수를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한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늘려 대학에서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을 45학점에서 48학점으로,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대학원의 경우 21학점을 26학점으로 조정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9학점	6학점	9~10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15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8학점	30학점	26학점	120시간

〈논의 과제 4〉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한시적 규정).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에 세종학당이 설립됨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단기적으로는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양성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종학당은 현지의 대학이나 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도 현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대학 교수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정안으로 제안된 기준에 의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이 아닌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설치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원의 경우도 당연히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역량 있는 한국어 교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행령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오랜 연구 경력과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어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대학에서 2,0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수정 방향의 기본 원칙

- 한국어 교원을 정교원 1,2,3급과 ‘한국어지도사’(가칭)로 구분한다.
-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향후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여 교원 부여 자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전공자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 일정 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나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 수료자에게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한국어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 세종학당의 교원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재교육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한시적 규정).
- 현재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부여된 교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표 11〉 교원 자격 부여 기준 변경 표(안)

자격	자격 부여 대상자	승급 조건	자격증 발급자
정교원 1급	2급에서 승급	2급 취득 후 5년+대학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4,000시간+ 보수 교육 ¹²⁾	문화관광부장관 발급 자격증
정교원 2급	주전공자	3급 취득 후 5년+대학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4,000시간+보수 교육	
정교원 3급	• 부전공자 • 국외 대학에서 2,0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 + 보수 교육		
한국어 지도사 (가칭)	•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¹³⁾ +보수 교육 +시험 • 교원 양성 과정 +시험 •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교육		국어원장 발급 자격증

한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 및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① 한국어 교육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정규 교육 기관
- ② 대학 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
- ③ 국어상담소

4.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및 기대 효과

4.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첫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해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학 전문가 희망자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희망자 또는 취업 희망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라야 이들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어 교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
- 12) 현 시행령에는 승급 조건이 교육 경력 5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간(5년 이상)과 시간(4,000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40~60시간)를 명시한다.
 - 13)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한글학교, 민간단체 등도 가능).

재교육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교육하여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도권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지방 자치 단체나 사회단체, 기타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한국어지도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국가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한국어지도사’의 교육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귀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며 이들을 교육할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 중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나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수 있다. 따라서 귀국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현직 교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지도사’로 훈련시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세종학당의 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도 다수의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된 교원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교원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지의 한국어 교원들에게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해 세종학당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나 국가 기관이 파견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파견 교사, 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 선발한다.

4.2. 기대 효과

첫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전공자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지도사’(가칭) 자격을 신설하여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지도사’로 양성함으로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을 이중 언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넷째, 사회 저변에서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1.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민현식(2002)에 따르면 ‘교육과정 (curriculum)’이란 ‘교육 기관에 의하여 의도된 전 교과 활동 또는 그에 관한 계획 이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학습 자의 요구 분석,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재, 교수·학습법 및 평가 등 이 있다.

교육과정은 다시 내용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내용적인 측면은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교육 기관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내용(a course of study)으로 이해 한다.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은 교육과정을 교육 기관에서 의도한 수업 계획과 그 에 따른 학습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인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교육과정을 수업 계획·학습 결과로 보는 관점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접 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 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습 내용과 수업을 어

떻게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국어 교육은 교육과정의 정의와 그 요소들에 따라 정연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기관마다 그 체계가 다르며 그 체계도 교재의 교육 내용표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정식 교육과정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담당할 세종학당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세종 학당이 운영되는 현지의 요구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의 요구 분석이 포함되어 할 것이며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재 개발과 교수·학습법 개발, 평가 방법들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종학당 교육과정 제정의 필요성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한 마디로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어 진흥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도 단순한 관심 수준의 외국어 학습에서 취업, 학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해외 각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90년대 후반부터 불어온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해외 응시자 수의 증가 폭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대표성을 갖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어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대표 기관의 관리 하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국 문화원이

나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도 이미 52개국 140개소에 ‘공자학원’을 설립 자국어와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10개국 122개소에 ‘일본어국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세종학당은 아직 그 조직이나 운영이 미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세종학당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내야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1단계 세종학당 사업으로 2011년까지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에 100개교를 설립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까지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 100개교의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세종학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제정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학습자가 가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지 교육 전문가 양성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모든 지역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어 교육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표준화’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표준화’라 함은 교육과정의 설치와 그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표준화해야 할 사항에는, 첫째, 교육과정 등급화, 둘째, 교육 내용으로서의 교수 요목, 셋째, 교육 용어, 넷째, 교수법 및 학습법, 다섯째, 교재 개발, 마지막으로 평가 체제 등이 있다.

2.1. 표준화된 학제 및 편제 구축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 등급 체제와 등급 별 소요 기간, 학

습 내용 분배와 시수 등에 관한 통일된 학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등급마다 가르칠 최소 내용을 선정한 후, 위계화하여 평가 척도 및 평가 방법과 연계시켜야 한다. 이러한 등급은 과정 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정규 과정, 현지 특화 과정, 특별 과정, 기타 사업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과정에 알맞은 최적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2. 표준화된 교육 내용 구성

교육 내용의 구성은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그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과정 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과정 별 학습자들의 요구와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이 접합 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3. 표준화된 교육 용어의 사용

세종학당은 각 현지에서 설립·운영되어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현지 설립이 늘어날수록 세종학당에서 사용하게 될 학술 용어와 교수 용어 등이 통일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교수 용어의 통일은 학습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한국어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용어의 통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2.4. 표준화된 교수·학습법의 설계

교수·학습법의 표준화는 세종학당이 운영되는 현지의 학습자와 교수자를 위한 것이다. 즉 통일된 교수·학습법을 명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통일화되어 있으

나 교수·학습법이 통일화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면 교육 내용을 다루는 방법이 지역마다 달라지게 된다. 물론 현지의 특성을 고려한 재량적인 교수·학습법은 필요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교수·학습법의 기반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2.5.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 내용의 전달에 있어 교재는 그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을 반영한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서 교재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학습 목표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6. 표준화된 평가 체제 마련

교육 기관마다 표준화된 교수 요목과 교육 내용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 평가 방법이나 평가 척도가 개별 교사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표준화된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평가 체제에는 배치 고사, 성취도 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평가 척도, 평가 등급 부여 방식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틀로 구성되어야 하고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연구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국내 대표적 한국어 교육 기관인 연세대의 교육과정과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평가 기준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표 1〉 연세대학교 한국어 회화 과정

과정	시간	대상	특징
정규 과정	10주 200시간	외국인 및 교포	6단계 과정(약 1년 반 소요)과 8단계 과정(약 2년 소요, 서양권 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분.
오후 과정	10주 120시간	오후 시간 활용을 원하는 주부, 직장인, 학생과 정규 과정 수강생	1급부터 6급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은 정규 과정에 준함. 한국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한국 문화 특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야간 과정	10주 90시간	직장 업무로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외국인 교수 등	1급부터 8급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 과정은 정규 과정에 준함.

〈표 2〉 연세대학교 한국어 특별 과정

과정	시간	대상	특징
시사 한국어	10주 90시간	고급 한국어 학습자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사적인 내용의 학습이 가능함.
비즈니스 한국어	10주 60시간	중급 수준의 회사원, 주재원, 경영·경제 관련 전공자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급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실제로 접하게 될 상황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10주 60시간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여 어휘와 문법을 총정리하고 읽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킴.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이 등 실제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짐.
여름 특별 과정	5주 100시간	미주 지역 학생들	여름 방학을 활용해 한국어 연수와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 방과 후 태권도, 동양화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등의 문화 체험도 가능.
단기 과정	3주 60시간	주로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대학생과 직장인들	매년 여름 방학과 봄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연수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 오전은 한국어 수업, 오후는 문화 체험 시간으로 이루어짐.
전문과정	10주 100시간	정규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학습자	뉴스, 시사, 문학 등 좀 더 세분화된 부분에서의 깊이 있는 한국어 학습이 가능함. 반복해서 2학기 수강이 가능함.

〈표 3〉 연세대학교 한국어 맞춤 과정

과정	대상	특징
위탁과정	위탁생	외국인을 고용한 일반 기업 혹은 단체에서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 이상의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요청할 경우에 개설. 주한 미군들을 위한 위탁 과정은 꾸준히 진행됨.
개인반	개인 학습자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표 4〉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평가 기준

등 급	평가 기준
초급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 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 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등 급		평가 기준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4.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언어 문화 보급 사례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언어 문화 보급 사례를 살펴봄으로 세종학당의 운영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타 기관에 대한 조사는 문헌 조사, 설문 조사, 해당 기관 방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기관별 전체 비교 자료는 매우 방대함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특징과 운영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4.1. 영국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4.1.1. 교육과정의 특징

〈표 5〉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교육과정

정규 과정	일반 과정	어린이 대상 성인 학습자 대상
	특별 과정	말하기 듣기, 작문, 어휘 보강, 시사 토론 등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영어 강좌	
	시험 대비 강좌	
	유학 준비 강좌	

- 모듈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각 단계 별로 주제 또는 특정 언어 기능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어린이 과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호응도 높았다.
- 타 기관에 없는 비즈니스 강좌와 유학 준비 강좌를 개설하는 등 현지 특화 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4.1.2. 운영상 특징

- 기타 특강 및 문화 행사 개최 : 정규 과정 이외에도 특별 수업 및 활동을 통해 영어와 영국 문화를 접하고, 영국인과 사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자료실 운영 : 부교재 및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노래 가사 등을 비치해 놓는 등 문화 교류를 통한 학습 동기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 학부모 워크숍 개최 : 어린이 교육을 위해 학부모까지 배려하여,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교실 밖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교사 연수 및 워크숍 개최 : 현지의 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교육원 내에 근무하는 교사들 역시 매주 최신 교수법 연구를 위해 워크숍을 가지고 있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사이트 소개).

4.2.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4.2.1. 교육과정의 특징

- 유럽 공통 참조 기준¹⁴⁾에 따른 언어 과정 외에, 현지의 상황에 맞게 입문 과정을 따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4) 유럽 평의회에서 언어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언어 학습, 교수, 평가에 관해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유럽 평의회, 2001.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 참조기준』, p1, 한국문화사.)

〈표 6〉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의 교육과정

정규 과정	일반 과정	입문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숙성반, 회화, 듣기와 말하기, 독해와 작문, 문법, 신문 강독, TV 청해, 프랑스의 문명 발달, 토론 등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특별 수업(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되는 수업)	

- ‘프랑스의 문명 발달’과 같이 문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수업이 있다.
- 신문 강독과 텔레비전 청해 수업 등에서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권의 실제 매체 자료를 노출함으로써 실용적 언어 능력 훈련뿐 아니라 문화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 현지 특화 과정이 본 교육 기관의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학습자 대부분이 유학 목적의 학습자임에 따라 교수 내용 등도 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2.2. 운영상 특징

- 자료실 운영 : 프랑스의 자연·문화 유산 및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 각종 문화 행사와의 연계 : 프랑스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한국 내 프랑스 문화권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예. 퀴즈 경연 대회, 상송 경연 대회 소개, 각종 프랑스 관련 문화 행사 소개)
-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라 운영하므로 시험의 단계별 목표 기준과 교육과정의 목표 기준이 같고, 해당 교육 기관에서 어학 증명 시험 관리까지 하고 있다.

4.3. 독일의 괴테 인슈티튜트(G the Institute)

4.3.1. 교육과정의 특징

〈표 7〉 괴테 인슈티튜트(G the Institute)의 교육과정

정규 과정	일반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원격 강좌 (교사/ 학습자 코스)
		개인 및 소그룹 강좌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강좌	
	시험 대비 강좌	

- 교재의 특성상, 연습 문제 풀이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A1 단계부터 C1 단계까지 연습 문제집을 포함하고 있다).
- 특별 강좌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자는 스스로 e-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이더라도 수료 후 수료증(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어학 강좌에 특정 주제 혹은 언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된 수업이 없으며,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르는 일반 언어 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 교육과정이 본국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더라도 그대로 본국의 교육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직접 독일을 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국과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4.3.2. 운영상 특징

-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라 운영하므로 시험의 단계별 목표 기준과 교육과정의 목표 기준이 같고, 해당 교육 기관에서 어학 증명 시험 관리도 맡고 있다.
- 반 배치 평가 또는 자가 진단 평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현지 교사들은 홈페이지에서 최신 교수 자료 및 독일 문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자료실 운영 : 독일의 자연·문화 유산 및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 각종 문화 행사 개최 : 정기적으로 바자회, 음악회 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열어, 학습자에게 배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목표 언어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원어민 카페 운영 : 기관 안에 원어민이 상주하는 카페가 있어, 교실 밖에서도 언제든지 배운 언어를 사용하고, 원어민과 사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4.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4.4.1. 교육과정의 특징

〈표 8〉 일본어국제센터의 육과정

정규 과정	특별 과정	심화 학습 과정 (번역, 일본 문화, 대화 기술, 테마 토론, 청해, 작문 등)
현지 특화 과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	

- 언어 수준이 JPT 1급 이상인 고급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도 고등학생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심화 학습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별히 교재를 지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제에 맞는 부교재를 이용한다.
- 선형적 구조로 수강해야 하는 어학 코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화 기술, 청해, 번역 등과 같은 실용적 수업 및 문화 지식과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4.4.2. 운영상 특징

- 나이 제한 : 19세 미만의 학습자는 심화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료실 운영 : 일본의 자연·문화 유산 및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전시회 개최 : 일본 문화와 관련된 그림 등을 전시실에서 상시 전시 중이다.
-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에서도 일본어 학습 국외 거점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무성은 시설과 교사 고용을 직접 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본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과 민간 일본어 학교 등에 교재와 학습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고도 거점을 늘려간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대중 문화를 소개할 일본어 교사도 이 거점에 파견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4.5. 중국의 공자학원

4.5.1. 교육과정의 특징

〈표 9〉 공자학원의 교육과정

정규 과정	일반 어학 강좌	회화 강좌	
		문법 강좌	
	특별 강좌	온라인 강좌	일반인 강좌
			어린이 강좌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교사 양성 강좌		

-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 역시 이 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어학 강좌의 경우, 회화를 중심으로 어법과 표현 문형을 익히게 되어 있다.

- 특별 강좌 중 하나로서 어린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구매해야 볼 수 있다.

4.5.2. 운영상 특징

- 아직까지 실제로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환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외 타 기관의 자국 교육과정의 특징과 운영상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국외 타 기관의 자국 교육과정의 특징 - 정규과정

영국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일반 과정	어린이 대상	
		성인 학습자 대상	
	특별 과정	말하기 듣기, 작문, 어휘 보강, 시사 토론 등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일반 과정	입문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숙성반, 회화, 듣기와 말하기, 독해와 작문, 문법, 신문 강독, 텔레비전 청해, 프랑스의 문명 발달, 토론 등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e)	일반 과정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언어 과정)	
	특별 과정	원격 강좌 (교사/ 학습자 코스)	
		개인 및 소그룹 강좌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특별 과정	심화 학습 과정 (번역, 일본 문화, 대화 기술, 테마 토론, 청해, 작문 등)	
중국의 공자학원	일반 과정	일반 어학 강좌	
		문법 강좌	
	특별 과정	온라인 강좌	일반인 강좌 어린이 강좌

〈표 11〉 국외 타 기관의 자국 교육과정의 특징 - 현지 특화과정

영국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영어 강좌 (모듈)
		시험 대비 강좌
		유학 준비 강좌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특별 수업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되는 수업)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e)	현지 특화 과정	비즈니스 강좌
		시험 대비 강좌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현지 특화 과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국의 공자학원	현지 특화 과정	시험 대비 강좌
		교사 양성 강좌

〈표 12〉 국외 타 기관의 자국 운영상의 특징

기관명*	온라인 교육과 연계	기타 특강 및 문화 행사 개최	자료실 운영	학부모 워크숍 운영	교사 워크숍 운영
영국	○	○	○	○	○
프랑스			○		
독일	○	○	○		○
일본		○	○		○
중국	○				

* 편의상 기관명에는 나라 이름만 표시.

5. 세종학당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현지 요구 분석

세종학당의 운영과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지 학습자, 교수자의 요구 분석을 들 수 있다. 현재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몽골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한 것은 현지 학습자들의 요구를 현지 교수자들이 인식하고 있

고 실제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담당 교사들이 겪는 문제와 세종학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1. 세종학당 교수자 요구 분석 결과

국외에 설립된 세종학당은 몽골과 중국, 키르기스스탄, 미국 등 15곳¹⁵⁾으로, 2007년 1차로 국립국어원에서 선발된 2명의 교원이 파견되었다. 그 중 몽골 지역으로 파견된 교원을 통해 현지 세종학당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5.1.1. 2007 몽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현황

〈표 13〉 2007 몽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현황

설립 장소	개설 과정										수업 시수
	초급 1		초급 2		초급 3		중급 1		중급 2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울란바토르 대학교	16	390	6	119	3	57					90분×4일×8주 90분×5일×6주
교육대학교	4	115	1	26			1	21	1	19	90분×4일×8주180분 ×5일×14주
국립 대학교	3	68	1	22							180분×2일×8주
합계	23	572	8	167	3	57	1	21	1	19	

제시된 자료는 2007년 동안 개설된 과정에 관한 것으로 몽골 지역은 정규 과정, 특별 과정, 특화 과정 중 정규 과정만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현재 몽골에 있는 세종 학당은 기관별로 교육 기관과 수업 시수에 차이가 있으며 세종학당 운영

15) 이 중 몽골에 3개소, 중국에 11개소, 키르기스스탄에 1개소, 미국에 1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타지역 교원 대상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몽골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파견한 한국인 교사가 다녀왔으므로 여기서는 몽골 지역에 파견된 교사를 통해 현지 세종학당의 현황과 한국인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세부 지침의 내용(초급 1, 2와 중급 1, 2 과정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주당 240분 12주 수업)과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초급 1, 초급 2 이외에 초급 3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중급 과정에서는 단지 2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 주당 교육 횟수는 2회가 실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4~5회 실시되고 있다
- 주당 수업 시간은 1240분, 360분, 450분, 900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단계별 교육 기간은 6주, 8주, 14주, 16주 등으로 다양하며,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교육 기간을 12주로 하여 연간 4학기를 운영하는 학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올란바토르라는 동일 지역에 있는 세종학당이면서도 단계별 학습자들의 수업 참가 시수가 다르므로 단계별 학습자들의 성취도나 숙달도가 상이하며 같은 등급의 수료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수준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승급 관리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을 옮겨가면서 학습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¹⁶⁾

운영 방침이 정한 48시간은 실제 수업 진행의 경험으로 볼 때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상향 조정하여 기관별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 과정이 각 8주 또는 16주로, 기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운영하되 것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2주로 고정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⁷⁾

16) 이는 외국의 유사 기관들이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시수의 과정으로 운영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17) 몽골의 경우 현지인들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과 혹한

5.1.2. 세종학당 교원 현황

세종학당의 교원은 현지인 교원과 한국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 개설 현황에 따라 교원의 수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총 교원의 수는 세 곳 모두 20명으로 이 중 현지인이 9명, 한국인이 11명이다. 현지인으로는 대학 전임 교원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어가 가능한 현지인 교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초급 과정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위해서 현지인과의 긴밀한 접촉과 문화 상호 교류를 위해 현지인 교원의 임용은 필수적일 것이다. 현지인 교원은 한국인 교원의 현지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 생활 지도는 물론 현지에서 운영 상 발생하는 각종 민원 업무 처리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대학 기관에서 종사하는 교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세종학당이 대학 기관이 아닌 곳에 설립된다면 현지인 교원들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 능력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수요자나 인기도에 따라 이들을 위한 교원 양성 과정 또한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한국인을 선발한다면 이들은 한국어 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도 현지어가 가능하므로 한국과 현지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이수 후에 원어민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 교사나 한국인 교사 모두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의 일시적인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 참관을 통하여 사명감과 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1.3. 학습자 분포

몽골 지역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크게 일반인과 공무원,

과 조기 일몰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겨울 등 현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중고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일반인의 수가 가장 많아 약 70-80%에 이르며, 다음이 중고생, 공무원, 대학생의 순이다.

세종학당이 대학 기관에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모든 한국어 과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연령층에 맞게 특화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경우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의 정규 과정과 청소년, 공무원, 공공 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화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고생 학습자들이 전체 학습자의 8-10%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나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화 과정이나 특별 과정은 현지 사정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거나 교포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나 한국 기업체가 많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과정의 개설도 필요할 것이다.

5.1.4. 교재

현재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에서는 한림 출판사에서 발간한 듣기, 말하기, 쓰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국립사범대에서는 서울대 한국어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다수의 한국어 교재를 복사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일 지역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각기 다른 교재를 사용하면서 통일된 교과과정과 동질의 교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종학당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특히 세종학당의 교재는 지역의 특정 기관이 개발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 기관이 교재 발간에 참여할 경우 그 교재는 여타 세종학당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 국립국어원이 울란바토르 대학과 공동으로 발간한 교재 ‘초급 말하기 쓰기’는 울란바토르대학 세종학당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 나머지 2

곳의 세종학당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의 통일된 교재를 사용하면 다른 세종학당으로의 학습자 이동이 용이할 것이다.

교재에 대한 현지 한국어 교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교재의 모든 부분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문화 소개 등)에만 제한하는 것이 좋다.
-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지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함께 소개된 것이 좋다.
- 필수 단어를 번역하여 신거나 소사전 부록을 싣는 것이 좋다.
- 교재에 딸린 워크북이 필요하다.

5.1.5. 평가

몽골 지역 세종학당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으며 교사의 주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평가는 대체로 받아쓰기나 쪽지 시험, 과정 후의 성취도 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재의 통일뿐 아니라 평가 방식의 통일도 필요하다. 배치 고사,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 등 여러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표준 평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학습자의 수준 비교는 물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급이상으로 능력이 검증된 학습자들에게는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면 대체로 한국에서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초급에 치우쳐 있는 한국어 과정이 중급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다양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18) 괴테 인스티튜트 등 외국의 유사 기관들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의 경우 중급 자격이 곧 대학 입학 독일어 능력으로 인정된다.

II.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1. 교육 목적

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화되고 각국의 언어·문화권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문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 내용 구성

정규 과정은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등급별 언어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문화와 현지문화 교육을 보강한다. 현지 특화 과정은 현지 공공 기관 종사자나 재외 동포, 국제 결혼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지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별 과정은 정규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한국어 수행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K5, K6 과정과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어 교사 양상 과정을 운영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세종 학당 교육 내용 구성 표

구분	과정명	과정의 특징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비
정규 과정	K1	■ 세종학당 개설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교육과정 운영	■ 1개 반 15~20명	■ 교육 기간 : 각 1학기 12주, 주 2회~3회(1주 당 총 240분 이상)	무상 교육 (교재비 개인 부담)
	K2				
	K2				
	K4				
현지 특화 과정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종사자 과정	■ 지역별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따라 개설하는 맞춤형	■ 1개 반 15~20명	■ 교육 기간 및 수업 시간 :	무상 교육 (교재비 개인 부담)

구분	과정명	과정의 특징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비
	세종학당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	교육과정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	
	재외 동포 모국어 능력 향상 과정				
	국제 결혼 가정 부모 및 자녀 과정				
특별 과정	심화 과정 (K5, K6)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	소규모 학급	교육 기간 및 수업 시간 :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	유상 교육 (상호 협의 후 결정)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현지 기업 문화 적응 과정				
기타	각종 경연 대회 문화 관련 행사 등	현지 문화 행사와 접목하여 추진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문화 교류 증진 도모			

2.1. 정규 과정

2.1.1. 과정 : 1년 4학기제

- K1, K2, K3, K4 (각 12주)

2.1.2. 시간 : 총 96시간/12주

1) 언어 : 6시간/주 * 12주 = 72시간

2) 문화 : 2시간/주 * 12주 = 24시간

2.1.3. 교과 내용

본 절에서는 과정별 (K1, K2, K3, K4) 교육 목표 및 교수 요목을 제시하기로 한다. 과정별 교수 요목은 과정별로 한 주당 한 단원을 학습한다는 전제하에 12 단원(12주 수업,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정규 과정의 평가 방안은 전체적인 지침의 수준에서 제시될 것이다.

1) K1

▷ 교육 목표

매우 기초적인 공적·사적 대화를 할 수 있다. 매우 기초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기초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

▷ 교육 내용

- ‘학교, 가족, 교통, 음식, 위치, 방송, 계절, 날씨, 장소, 시간 등’ 주제를 대상
- ‘인사하기, 자기소개, 주문하기, 물건 사기, 길 찾기, 날씨 묘사, 방문하기, 전화하기 등’을 수행
- 학습 어휘가 유용성과 적절성을 위해 교육 어휘들의 문화적인 적절성에 특별한 주의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당 혹은 시간당 습득되어야 할 ‘생산적’ 어휘의 양과 ‘수용적’ 어휘의 양을 고려
- 기본적인 인칭 표현, 지시 대명사, 수사와 (일부) 단위 명사
- 고빈도의 명사, 고빈도 용언
- 교수 현장 용어: 주변의 사물 이름 및 교수 관련 기본 용어 등이 대상이 된다.

2) K2

▷ 교육 목표

기초적인 공적·사적 대화를 할 수 있다. 기초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

▷ 교육 내용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주제
- ‘한국 음식, 교통, 공공시설 이용, 물건 사기, 여행’ 등을 대상
- ‘음식 이해, 음식 맛 묘사, 대중 교통 수단 이용하기, 갈아타기, 표 사기, 편지 보내기, 초대하기, 물건값 깎기, 전화 용건 보기, 병원 가기’ 등을 수행
- 기본적인 고유 명사, 간단한 묘사 표현
- 기초적 빈도 부사 혹은 강조 부사, 자주 쓰이는 보조사
- 기본적 보조 용언, 고빈도 불규칙 용언 등이 대상

3) K3

▷ 교육 목표

기본적인 공적·사적 대화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

▷ 교육 내용

-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주제
- 앞선 주제의 심화나 유사 주제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주제
- ‘방문과 초대에 응하기, 안부 전하기, 부탁 거절하기,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간단한 업무보기, 자신의 느낌 말하기’ 등 수행
- 느낌을 표현하는 기초 어휘, 기본적인 한자어
- 주요 어휘와 관련된 언어 표현, 약간 복잡한 의미의 조사(‘만큼’, ‘처럼’, ‘대로’, ‘뿐’)
- 어휘적 높임(계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편찮으시다), 기초적인 어휘적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기본적인 감탄사 등

4) K4

▷ 교육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적·사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어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쓰기가 가능하다.

▷ 교육 내용

-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주제
- 앞선 주제의 심화나 유사 주제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주제
- ‘설명하기, 대처하기, 의견 말하기’와 같은 새로운 과제와 기존의 과제의 심화
- 기본적인 한자어 어휘, 추상적인 어휘, 약간의 시사적인 어휘, 설명이나 상황 묘사에 필요한 어휘
- 불규칙 용언, 사용 빈도가 높은 비유적 용법과 속어, 속담, 사자성어
- 사용 빈도가 높은 의성어, 의태어, 간단한 비유 표현, 복잡한 의미의 조사(‘치고’, ‘치고는’, ‘는 커녕’) 등

5) 평가 방안 (K1-K4)

- (1)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둔다.
- (2) 성취도 평가¹⁹⁾를 근간으로 하여, 각 단계별 학습 목표와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의 어휘, 문법, 과제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을 참조하여 평가 범

19) 특정 과정이나 커리큘럼의 내용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를 성취도 평가(Achievement Test)라고 한다. 성취도 평가는 학습 목표, 교육과정, 교수 요목 설계 등 교수·학습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종학당의 성취도 평가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면에서 이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주를 확정한다.

- (3) 중간 평가와 기말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2회 실시), 현지 특성별 평가 횟수 및 시간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4) 평가 영역은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으로 설정하며, 문항 수와 배점은 현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배분한다. 주관식 출제가 필요한 경우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 이내로 한다. 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평가는 지필 시험으로 일원화하며, 말하기 평가의 경우는 수행 평가로 대체한다.
- (5)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별 수행 평가의 비율, 실제 자료의 반영 비율, 평가 방법 등을 정한다. 성취도뿐만 아니라 숙달도를 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실제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 (6) 평가 내용은 발음 및 억양, 정확성(대화 발화, 문장 발화), 유창성, 다양성, 논리적 구성력, 어휘력·어휘 이해력, 문법 이해력, 문법 능력, 맞춤법·띄어쓰기, 대화 구성 능력, 문장 구성 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 담화 이해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7) 연 1회의 성취도 평가(TOPIK) 응시 기회를 제공하여, 숙달도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2.2. 현지 특화 과정

정규 과정과는 달리 현지 특화 과정은 지역별로 현지 학습자의 수요 및 실정에 따라 운영하는 맞춤형의 과정으로 국제 결혼 가정 한국어 교육반과 세종학당 교사 재교육 과정, 재외 동포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 등이 해당된다.

2.2.1.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종사자 과정

▷ 교육 목표

현지 공무원들 중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문화가 필요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한국 주재 대사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 파견 될 공무원 또는 외교관들을 비롯하여 관광 요원, 통역 요원 등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현지에서 교수한다.

▷ 교육 내용

가. 외교관

- 한국어(일상 회화 및 외교 관련 전문 한국어)
- 한국의 일상 문화
- 한국의 사회 문화(대인 관계) 등

나. 한국인 상대 직무 종사자

- 일반 한국어
- 전문 직종 관련 한국어
- 대인 관계 예절 등

2.2.2. 세종학당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

▷ 교육 목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사는 한국에서 파견한 교사와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 양상 과정을 마친 교사(특별 과정 수료자)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어 교사에게 새로운 언어 교수 이론이나 한국어 문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언어 이론을 교수하여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사의 질을 제고한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며, 하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현재 국립국어원 또는 국제교류재단 등이 한국어 교육 전문 학회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또는 이중언어학회와 함께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학당 교사만을 위한 교사 재교육 과정을 제

공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현지 교사들의 요구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세종학당의 프로그램을 현지에 맞게 지역화 및 특성화하며, 아울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 내용

- 한국어학
-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한국어 교육학
- 한국 문화
- 한국어 교육 실습(국내 우수 한국어 교육 기관 참관)

2.2.3. 국제 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 과정

▷ 교육 목표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 과정은 국제 결혼을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한국으로의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현지 거주 국제 결혼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습득 및 이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성공한 현지인들과의 문화 교류 행사 등을 마련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유능한 현지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현지 체류자 과정

현지 거주 국제 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과정을 정규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되, 토요 문화 학교를 활성화한다.

2) 이주 예정자 과정

이주 예정 국제 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과정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와 한국의 실생활 문화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재도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첫걸음과 초급, 중급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들 교재의 기능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기능 및 주제

〈표 1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단원	제목	기능	주제
	한글	한글 자음, 모음, 받침 익히기	
1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인사법(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여러 가지 인사말 익히기)
2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묻고 답하기	출신 국적(출신 국적 말하기와 세계 여러 나라 이름 익히기)
3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가족 관계 말하기	가족 소개(가족의 지칭과 호칭)
4	얼마예요?	가격 묻고 답하기 물건 사기(1)	물건 사기 (식료품과 숫자 읽기)
5	사과 세 개 주세요.	사물, 사람의 수 세기 물건 사기(2)	물건 사기(물건 값)
6	지금 몇 시예요?	시간 묻고 답하기	시간(시계)
7	생일은 언제예요?	날짜 묻고 답하기	생일(날짜)
8	한국어 공부를 해요.	하루 일과 이야기하기	일과
9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이야기하기 맛 표현하기	음식(양념, 주방용품, 조리법)
10	책상 위에 있어요.	물건의 위치 말하기	위치(가구와 생활용품의 위치)
11	검은색 바지를 사고 싶어요.	색, 크기 묘사하기	쇼핑(색깔, 모양)

단원	제목	기능	주제
12	여보세요?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전화하기
13	읍내까지 얼마나 걸려요?	교통수단 이용하는 정보 얻기	교통(거리)
14	신설동 역에 어떻게 가요?	교통수단 이용하는 정보 얻기	길 찾기(교통수단 이용, 이동 방법)
15	배가 아파요	아픈 증상 이야기하기	건강(신체를 나타내는 어휘와 증상)
16	찬 것을 먹지 마세요	금지하기, 이유 말하기	병원 이용
17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제안하기, 거절하기	경조사(집들이와 초대)
18	저는 칼국수를 먹을게요	음식 주문하기	외식(메뉴)
19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 계획 이야기하기	취미
20	필리핀으로 보내 주세요	부탁하기	우체국 이용 (관공서 및 기타 시설)
21	동대문 시장에 가 봤어요?	경험 묻고 답하기	날씨와 계절
22	모자를 쓰고 있어요	물건 혹은 사람 묘사하기	미아 찾기 (의복, 소품, 착용 관련 동사)
23	추석에 어떤 음식을 할 까요?	상대방의 의향 묻기	한국의 명절(전통과 음식)
24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이와 대화하기	학교생활(문방구, 교과목 등)

〈표 1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

단원	제목	기능	주제
1	박창식 씨 집이지요?	전화하기, 전자 우편 읽기	전화
2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우체국 이용하기, 편지 봉투 읽고 쓰기	우체국
3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말하기	집안 일
4	좀 싸게 해 주세요	물건 사고팔기, 광고지 읽기	물건 사기
5	따뜻한 점퍼가 좋겠어요	백화점 이용하기, 계획하기	어버이날, 어린이날
6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옛날과 요즘 비교하기	생일

단원	제목	기능	주제
7	세탁기를 산 지 얼마나 됐어요?	가전제품 서비스 이용하기, 수리 요청하기	수리
8	돈으로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환불하기	환불
9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고향의 명절 풍습 이야기하기	명절
10	10분쯤 끓이다가 파하고 마늘을 넣어라	요리법 익히기	요리
11	이 사진처럼 잘라 주세요	추천하기	미용실
12	이것보다 그걸 입는 게 좋겠어요	물건사기, 시장과 인터넷쇼핑 비교하기	옷
13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못 봤어	드라마에 대해 말하기	드라마
14	언제 찾으러 올까요?	세탁소에 옷 맡기기	세탁소
15	필리핀에 돈을 보내려고 해요	은행에서 할 일 말하기	은행
16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 필요한데요	관공서 이용하기	동사무소
17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상담하기, 성격 표현하기	감정, 성격
18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병원 이용하기	산부인과
19	아이가 열이 많이 나요	증상 말하기, 조언하기	소아과
20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계획 이야기하기	결혼과 폐백
21	수미 엄마만큼 한국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복지기관 이용하기	외국인 상담소
22	다음 주에 신청하러 갈 거예요	귀화 신청하기	귀화 신청
23	추석에 어떤 음식을 할까요?	이사와 관계된 일 처리 표현하기	이사
24	‘결혼 이민자 가족 한마당’을 한대요	듣은 이야기 전달하기	이주민 축제

▷ 교육 내용

- 한국어
- 한국 문화(전통문화 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 한국 전통문화 실습(전통 악기, 전통 놀이 등)
- 한국 역사
- 한국 정치 및 경제 등

2.2.4. 재외 동포 모국어 능력 향상 과정

▷ 교육 목표

이 과정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현지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교육 내용

위 ‘국제 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 과정’ 중 현지 체류자 과정에 준한다.

2.3. 특별 과정

특별 과정은 고급 학습자나 특수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규 과정(K1-K4)을 마치거나 이에 준하는 한국어 수행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교육한다. 이에는 심화과정인 K5, K6 과정과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있다.

2.3.1. 심화과정 (K5, K6)

▷ 교육 목표 :

K1-K4까지 학습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보다 발전시켜 필요한 경우 취업 또는 학업 등 전문 영역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 교육 내용

-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중급 정도)
-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는 능력
- 인간관계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통장 개설, 환전 등)
- 쉬운 글을 읽고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기본적인 직장 업무 처리 능력

2.3.2.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 교육 목표

이 과정은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자국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외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사를 모두 한국에서 파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여 현지 한국어 교사로 채용된 경우 ‘한국어 교사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 한국어학
-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현지어와 한국어와의 대조 포함)
- 한국어 교육학
- 한국 문화
- 한국어 교육 실습

2.3.3.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과정

▷ 교육 목표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나 그에 준하는 자들 중에 한국 내 또는 현지의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문화(기업 문화 포함)를 교육하여 보다 쉽게 한국 기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에는 국내 취업 희망자 과정과 현지 취업 희망자 과정이 있다.

1) 국내 취업 희망자 과정

현지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습득하여 한국 내의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일상문화 교육과 생활 안내까지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현지 취업 희망자 과정

현지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습득하여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한국어 및 기본적인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과의 대인 관계에 필요한 예절과 한국의 기업 문화를 교육한다.

▷ 교육 내용

- 한국어
- 한국 문화
- 한국 예절
- 한국 사회(정치 및 경제) 등

2.3.4. 현지 기업 문화 적응 과정

▷ 교육 목표

한국인이 한국 기업의 국외 지점 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파견되었을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현지어와 현지의 문화를 교육하여 보다 쉽게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내용

- 현지어 기초 과정
- 현지어 중급 과정
- 현지어 고급 과정
- 현지 문화 교육과정
- 현지 기업 문화 교육과정

III.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어를 통한 한국의 역량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놓고 볼 때 세종학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타 국가의 자국의 언어문화 보급을 위한 사례는 우리가 시행하려는 세종학당의 역할 모델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이미 선진국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은 자국의 언어문화 보급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

을 보았다.

세종학당의 필요성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 하나로 2007년 1월 20일자 중앙일보 “한·중·일·인도 4개국 ‘소프트 파워’ 전파 경쟁”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현재 세계 78곳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100여 개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계획 밑바탕에는 “군사력 중심의 하드 파워보다 문화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일보 2007년 1월 12일자 ‘설왕설래’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51개국에서 125곳의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까지 500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도 이에 자극을 받아 “현재 10곳에 불과한 일본어 센터를 수 년 내에 전 세계 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일본 내각 산하의 한 싱크 탱크가 2005년 작성한 보고서가 ‘일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해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워싱턴, 베이징, 파리, 도쿄 등 22개 주요 도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해 온 인도도 이 기구를 3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공자학원에 상응하는 ‘간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국의 자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언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세계 각지에 100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한다는 계획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세종학당의 성공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세종학당에 담을 내용, 즉 교육과정이다. 위 중앙일보 기사는 중국에서는 서예, 다도, 시문학은 물론 공자 사상까지 전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까지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먼저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는데 이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통일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기관별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재창출해 내기 위함이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표준화해야 할 사항에는, 첫째, 교육과정 등급화, 둘째, 교육 내용으로서의 교수요목, 셋째, 교육 용어, 넷째, 교수법 및 학습법, 다섯째, 교재 개발, 마지막으로 평가 체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위에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미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각 기관의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종학당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 요구 조사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점점 학습자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정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학습자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세종학당을 통해 일관된 한국어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세계화를 담당한 세종학당의 올바른 운영과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교육 목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화되고 각 국의 언어·문화권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문화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수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언어교육 과정이 아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 문화 교육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규과정, 현지 특

화 과정, 특별 과정, 기타로 세분하여 각 교육과정별 특징과 교육 인원, 교육 인원, 교육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규 과정은 세종학당 전 개설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의 운영 모형으로 학습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표준화된 한국어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세종학당의 정규교육 과정은 해외 학습자들에게 세종학당에만 가면 연속적 한국어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며 이러한 교수 연속성이 세종학당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의 정규과정의 등급을 제시하고 각 등급별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정규 과정은 K1-K4의 4 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교육의 기초적인 과정인 동시에, 특별과정을 위한 선행 교육의 역할도 겸비하게 된다. 정규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 교육과 상호적으로 운영한다. 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회화 수업을 주중에 실시하고(주당 6시간 이상), 문화 관련 수업을 주말에 보충적으로 실시한다. (주당 2시간 이상)

둘째, 문화 수업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학습에 기반을 둔다.

셋째, 언어 수업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 강좌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웹의 도움을 받아 자가 학습으로 보충하게 한다.

넷째, 문화 수업은 한국 문화나 자국 문화에 대한 내용적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체험 학습으로 유도한다.

정규 과정의 핵심 과정이 되는 언어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은 3개월 단위로 구성되므로, 1년에 4회의 정규과정을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의 교육 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둘째, K1-K4의 과정은 언어 학습의 단계적 학습으로 선행 학습과 후행 학습이 단계적으로 연계되게 교재를 구성하고, 단계별 특성에 따라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적절히 배치한다. 즉 K1과 K2 단계에서는 말하기/듣기의 회화에 더 무게를 두며, K3과 K4에서는 본격적인 읽기와 쓰기가 함께 구성되게 한다. 특히 초급 단계에 부터 교재 내에 문화적 내용을 구성하여 언어와 함께 문화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한 급별 96시간은 국내의 일반적 집중과정의 약 1/2에 해당되므로(국내 주당 20시간 10주 과정은 급별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K1과 K2가 국내의 초급1에 K3과 K4가 국내의 초급2에 해당하도록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세종학당의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소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어휘 학습이나 문법 학습은(같은 기간의) 국내의 정규 과정에 비해 다소 난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웹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 시스템이 보강된다면 보다 밀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지 특화 과정은 지역별로 한국어교육 수요에 따라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각국의 다양한 학습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 되는 교육과정이다. 현지 특화 과정은 과정명이 말해 주듯이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한국어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지 특화 과정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과정, 세종학당 한국어교사 재교육 과정, 재외동포 모국어능력향상 과정, 국제결혼 가정 부모 및 자녀 과정 등이다. 그러나 각국의 실정에 따라 이 외의 현지 특화 과정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각국의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본국의 협의 하에 특화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지 특화 과정은 정규 과정과 더불어 현지에 한국어교육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져 한국어 교육이 현지에 뿌리내리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지 특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 교육과 상보적으로 운영한다. 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회화 수업과 더불어 학습자 요구에 맞는

문화 관련 수업을 해당 과정 별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언어 교육을 각 과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즉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과정은 일상회화 및 외교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직종 관련 한국어를 교육한다. 세종학당 교사 재교육 과정은 한국어교육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며 국제결혼 가정 배우자 및 자녀 과정은 친족 어휘와 가정 내 어휘를 교육을 집중적으로 병행한다.

셋째, 문화 수업은 과정 별 특색에 따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학습에 기반을 둔다.

넷째, 언어 수업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 강좌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웹의 도움을 받아 자가 학습으로 보충하게 한다.

다섯째, 문화 수업은 한국 문화가 자국 문화의 실질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체험 학습으로 유도한다.

현지 특화 과정의 핵심 과정이 되는 언어 문화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은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되나 정규과정과 마찬가지로 기본 교육내용 구성을 3개월 단위로 하고 과정별 특색에 따라 4주 혹은 8주 단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단기 집중 강좌를 마련한다.

둘째, 각 과정별 언어 학습은 기본적인 일상 한국어는 단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연계되게 교재를 구성하고, 과정별 특색에 따라 맞춤 심화 교재를 구성하여 제시한다. 기본적인 일상 한국어에서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 4가지를 중시하며 과정별 특색에 따라 어휘와 문법, 화법과 작문이 함께 구성되게 한다. 이 때 모든 과정은 교재 내에 일상 문화와 더불어 과정별 주용 문화적 내용을 구성하여 언어와 함께 문화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과정별 문화 체험 및 현장 실습을 통해 과정 별 특화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실용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웹을 통한 자가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밀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 과정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각 국의 한국어교육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규과정을 마치고 그 이상의 심화된 한국어교육을 받기 원하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심화과정을 통해 각국의 고급 학습자들을 배출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도 본국에서 파견되는 교원과 더불어 각 국의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각 국의 한국어교육 자생력 제고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 취업희망자 과정 및 현지 기업문화 적응 과정을 통해 한국과 각 국의 문화, 경제 교류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 과정은 기존의 일반적 한국어문화 교육을 넘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각 국의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특별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 교육과 상호적으로 운영한다. 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고급 한국어 구사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습자 요구에 맞는 문화 관련 수업을 해당 과정 별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언어 교육을 각 과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즉 심화과정은 고급 과정으로 기본적인 일상 회화와 더불어 한국어 토론 능력 및 기본적인 직장 업무 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세종학당 교원 고급 인력 창출을 위한 한국어학 및 문화, 한국어교육학적 내용을 교육한다. 한국 기업 희망자 과정 및 현지 기업문화 적응 과정은 기본적인 일상회화와 더불어 대인관계, 기업 문화를 교육한다.

셋째, 문화 수업은 과정 별 특색에 따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학습에 기반을 둔다.

넷째, 언어 수업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 강좌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웹의 도움을 받아 자가 학습으로 보충하게 한다.

다섯째, 문화 수업은 한국 문화가 자국 문화의 실질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체험 학습으로 유도한다.

특별 과정의 핵심 과정이 되는 언어 문화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은 현지 수강자 수요와 실정에 따라 조정되나 정규과정과 마찬가지로 기본 교육내용 구성을 3개월 단위로 하고 과정별 특색에 따라 4주 혹은 8주 단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단기 집중 강좌를 마련한다.

둘째, 각 과정별 언어 학습은 기본적인 일상 한국어는 단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연계되게 교재를 구성하고, 과정별 특색에 따라 맞춤 교재를 구성하여 제시한다. 기본적인 일상 한국어에서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 4가지를 중시하며 과정별 특색에 따라 어휘와 문법, 화법과 작문이 함께 구성되게 한다. 이 때 모든 과정은 교재 내에 일상 문화와 더불어 과정별 주용 문화적 내용을 구성하여 언어와 함께 문화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과정별 문화 체험 및 현장 실습을 통해 과정 별 특화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실용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웹을 통한 자가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밀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각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고 언어·문화 교류의 확대의 일환으로 세종학당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경연대회, 한국문화의 이해를 서로 겨룰 수 있는 각종 문화경연대회 및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세종학당이 해당 국가 및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현지 문화 행사와 접목된 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현지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세종학당을 주축으로 현지 기관 및 공관과의 협조 하에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와 협력을 도모하려는 한국의 미래상을 위해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교육 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국의 작은 한국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세종학당 설립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기관의 설립이 한국어문화교육에 이바지

할 수는 없다. 세종학당의 설립 이전에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올바른 기준과 운영 방침 및 제반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 교재, 교원이 올바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행정 서비스 및 기타 제반 사항들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종학당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사업 주체의 일원화이다. 현재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국제교류협력단, 문화부의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해외문화원, 교육부의 한국교육원·국제교육진흥원 등 각 부처의 여러 산하단체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성의 면에서는 좋으나, 영국의 영국문화원이나, 프랑스의 알리앙세 프랑세스, 독일의 괴테 하우스와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세종학당 한곳에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은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일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종학당을 이러한 원 스톱 서비스 체제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우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지에서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14-1, pp.1-2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호·김명숙·김정환·남현우·허숙(1996).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아(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왕규·김정숙·조향록·정구향·조지민·김수정(2002). 한국어 능력 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유정 외(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1, pp.37-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9-1, pp.19-3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유정(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1-2, pp.1-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 원진숙(1993).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 10호, pp.24-34, 이중언어학회
- 김하수 외(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기본 모형 개발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 민현식(2002). 언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와 교수 요목(syllabus)의 유형,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 문화사.
- 박경자 외(1994). 언어교수학, 박영사.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배두본(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 문화사.
- 백봉자(1998). 한국어 교육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연세대 한국어학당 1급, 2급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 15호, pp.141-167, 이중언어학회.
- 서상규, 김하수(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기본 모형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한글 10, pp.279-315.
- 성태제(1996). 문항 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1, pp.67-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양태식·이태영·김정숙·전나영·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교수 요목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과제.
- 유럽 평의회 편, 김한란 외 옮김(2001). 언어 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 기준, 한국문화사.
- 이완기(1995).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 모형, 영어교육 50-1, pp.37-63,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pp.121-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희·김지영(2003).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pp.211-2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영·이중은(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수행 중심 방법, 자하어문논집 11. 상명대학교상명어문학회.
- 이해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 pp.

279-301, 이중언어학회.

임병빈 역(1993a). 해리스의 영어 교육평가, 한신문화사.

임병빈 역(1993b). 영어 교육평가기법(Techniques in Testing), 한국 문화사.

임지룡(1991). 국어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 사범대학교.

전은주(1997). 한국어 능력 평가 - 말하기 능력 평가범주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학 6, pp.153-172, 한국어학회.

정광·고창수·김정숙·원진숙(1994).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언어 숙달도 (Proficiency) 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 pp.481-538, 한국어학회.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조항록(2002). 한국 정부의 재외 동포정책 연구-한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pp.249-278,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차경환(1994).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 영어교육 47호, pp.49-75, 한국영어교육학회.

최길시(1991). 한국어 능력 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thur Hughes(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bara Murphy(1980). Second Language Reading and Testing in Bilingual Education, TESOL Quarterly 14(2), 189-197.

Bachman, L. F. and S. Savignon(1986).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ve language proficiency : a critique of the ACTFL oral interview, Modern Language Journal 70.4.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Bachman, L. F.(1991). What does language testing have to offer, TESOL Quarterly 25, 601-704.

- Brindley, G.(1991). Assessing Achievement in a Learner-Centered Curriculum, In Alderson, J. Charles and Brian North(eds.). Language testing in the 1990 : the communicative legacy, London : MacMillan.
- Broucal, M.(1995). The Heinle & Heinle TOEFL Test Assistant : Listen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 Boston, MA.
- Brown, H. D.(1993). A Comprehensive Criterion-Referenced Language Testing Project, In Alderson, J. Charles and Brian North(eds.). Language testing in the 1990 : the communicative legacy, London : MacMillan.
- Brown, H. 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Prentice Hall Inc.
- Brown, H. D.(1994).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rentice Hall.
- Brown, H. Douglas(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Brown, J. D. and Bailey, Kathleen M.(1984). A categorical instrument for scoring second language writing skills, Language Learning 34 : 21-42
- Brown, James Dean(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Newbury House Teacher Development.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ha, K.(1988). Test Review : TEOFL vs MTELP, English Teaching 36, 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of Korea.
- Clark, John L. D. (1983). Language testing : Past and current status-directions for the futur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7, 431-443.
- Cohen, Andrew(1991). Language Learning : Insights for Learners, Teachers, and Researchers, Newbury House.

- Cyril Weir(1993). *Understanding & Developing Language Tests*, Prentice Hall.
- Davies, A.(1990). *Principles of Language Testing*, Oxford : Basil Blackwell.
- Davies, A.(1991). *Language Testing in the 1990s*, In Alderson, J. Charles and Brian North(eds.). *Language testing in the 1990 : the communicative legacy*, London : MacMillan.
- Douglas, D.(1988). *Test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context of the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0, 245-261.
- Ellis, Rod(1998).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ve Tasks*, In B. Tomlinson,(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7-238.
- Lynch, Brian K.(1996), *Language Program Evaluation*. Cambridge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dsen, H. S.(1983). *Techniques in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 Nunan, D.(1985),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1988), *Syllabus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1998),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 A Textbook for teachers*, Longman.
- Richards, J. C. and Renandya, W.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and Temperley, M. S.(1981),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Sohn, H.(1993). *Korean Proficiency Guidelines : Needs, Procedures, Principles, and Implications*, *Korean Language Education* 6. IAKLE.
- Sohn, H.(1995). *Performance-based Principles and Proficiency Criteria for KFL Textbook Develop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6. IAKLE.
- Sum, Judith L. & Eileen W. Glisan(2000), *Teacher's Handbook-Contextualized Language Instruction*.

- Thornbury, Scott.(1999), 2nd.(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Weir, C. J.(1990).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 New York : Prentice Hall.
- Wesche, Marjorie B.(1981). Communicative Testing in a Second Languag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7, 551-571.
- Yang, H.(1992). The ACTFL English Oral Proficiency Interview : It's background and application, English Teaching 43, The College English Teacher Association of Korea.

〈기타 자료〉

- 1997년 제1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 1998년 제2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 1999년 제3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지.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정규반 B코스 1급-6급 시험 문제지.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정규반 1급-6급 시험 문제지.
- 1998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1998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문형 선정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Ambassade de France en Core'e(1994). DELF-DALF : Annales 94 Core'e du Sud(1994년도 프랑스어 능력 시험 연보).
- The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Tester Training Manual,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 Language Testing Unit(1986). Testing Handbook, Foreign Service Institute (미국 무성 언어 숙달도 테스트 자료).
- Resource Handbook of Instructional Activities, Foreign Service Institute, National Foreign Affairs Training Center.

5.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정규 과정 교재 개발을 위한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급격한 국제화와 정보화는 세계를 하나의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제 지상주의에서 문화 지상주의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문화 강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서는 고유문화의 보유와 보급이 그 척도가 되며 문화 보급의 바탕이 되는 언어 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 시점은 한류의 확산과 국외 진출 한국 기업의 증가, 이에 따른 현지인의 한국 기업 취업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고용허가제 실시,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에 따라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은 일반 대중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외 한국문화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국어 강좌는 시설 여건이 미흡하고 무자격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비정규 교육 기관인 한글학교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교재의 부족과 문화 교육 자료가 빈약하여 학습효과 반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문화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한국어 학습 수요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외 한국어 교육 체계의 확립이 우선되고 그에 맞는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좋은 교육 자료와 교재는 국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 확립과 교육 내용을 건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을 살피고,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 원리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한국 문화를 내용으로 한 세종학당의 정규과정 교재 모형과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학습 교재 모형을 개발한다.

2. 연구 내용 및 절차

2.1. 연구 내용

1) 기본 교재

세종학당 정규 과정 기본 교재는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지와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²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국외의 한국어 학습자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주기가 짧고 학습 환경 또한 열악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본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²¹⁾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문법 제시와 설명을

20)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는 관념적인 문화가 아닌 대중적이며, 실생활 중심에서 이해되고 공유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래서 단선적 문화 제시보다는 다중적, 다선적인 내용의 문화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21) 세종학당은 한국어에 대한 열망은 강하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

줄이고 다양한 발화 상황과 활동으로 제시하여 학습과 동시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듣기 CD

기본 교재에 수록된 대화 내용 듣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발음과 억양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재에서 학습한 대화의 패턴 연습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 내용이 확장,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기본 교재 DVD

기본 교재는 한국 문화 중심의 교수요목으로 구성되므로 기본 교재에서 다룬 문화 내용에 대한 실물 자료를 동영상 또는 사진,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또한 기본 교재의 발화 내용과 발화 상황을 변형하거나 그와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화법의 변형 등을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교사용 지도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게 될 교사는 전문가에서 비전문가까지 그 계층이 다양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교재, 수업 과정,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등 여러 형태의 교수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다.

5) 학생용 워크북

학생용 워크북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6) 언어문화 학습용 보조 자료 개발(다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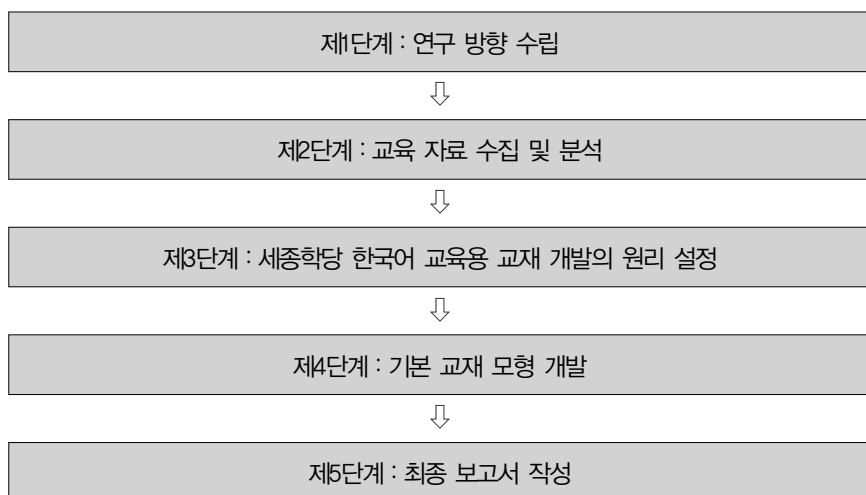
언어문화 학습용 보조 자료는 기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문화를 다양하고 폭넓게 제시한다.

7) 평가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국외 한국어 교육의 표준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2.연구 절차

이 연구는 총 5단계로 진행된다.



3.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

이 장에서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나누어 논의한다.

3.1. 내용적인 측면

3.1.1. 문화 교육

언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 교수법에서 문화 항목은 언어 교육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이는 단순히 문법적 지식과 어휘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은 언어생활에 녹아 있는 문화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도 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제 속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거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언어 교육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²²⁾ 문화를 한국어 교재에서 주요 목표로 다룰 경우에는 문화가 대화의 표면에 등장하거나 지문 내용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하는데, 초급 교재에서 한국어로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문화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담화 공동체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문화 교육이 수행하는 기능을 백봉자²³⁾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2) 배현숙(2002)에서도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제시 순서가 문법적 난이도에 따른 것도 아니고, 문화 항목 내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순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문화 습득 과정에 맞춘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는 유형과 무형, 현대와 옛날의 것들이 본문 내용과 관련되어 제시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 사회의 이해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자료는 학습자의 문화적 충격을 덜어주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 효율적인 언어 교육 : 문화를 언어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휘나 문장 내용의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다.
-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의 연계 :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다중적, 다선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생활 문화와 과거 전통문화가 서로 연계되거나 또는 현대 생활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쌍방향의 문화 교류 : 학습자로부터 자신의 문화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문화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소개할 만한 한국 문화 항목, 교육과정, 교수법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3.1.2. 언어 교육

1) 일반 대중에게 적합한 주제 선정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주제나 내용은 그 범주 구분에 있어 대체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²⁴⁾ 그것은 초급에서는 필수 회화를 중심으로 한국 학습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 이민 여성 같은 경우는 일상이 학교가 아니고 시댁과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어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²⁵⁾

23) 백봉자(2006),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31집, pp.1-2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학술대회 발표문.

24) 경희대, 연세대, 한국어세계화재단 초급 한국어 교재에 소개된 주제는 ‘소개/인사 가족 소개, 학교와 집, 하루 생활/시간, 위치/길 찾기, 구매/배달, 주말, 음식, 초대, 길 찾기, 교통/지하철/버스/택시, 취미, 전화, 우편, 사람 묘사하기, 은행, 병, 날씨, 여행/휴일과 방학, 집안일/세탁소/포장이사’로 3개 교재의 주제 범주가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25) 여성가족부(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은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중심

학교가 아닌 일반 국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 진학 목적이 아닌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 과연 이러한 주제와 내용이 학습자에게 알맞은 것인지 논의해 볼만하다.

2) 문화와 주제 내용에 관련된 어휘 제시

어휘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실 어휘만으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 교수 방법에서 어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재 개발 과정에서 어휘의 난이도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 중심,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삼을 경우에 학습자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난이도란 학습자의 관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표현 어휘로 제시하느냐, 이해 어휘로 제시하느냐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딱딱하고 거부감 주는 문법 설명 탈피하기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문법은 대단히 딱딱하고 거부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법에 역점을 두지 않고 문법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문법을 가르치되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담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문법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4) 발음을 제시할 것인가?

발음을 삼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발음까지 삼입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 발음은 음운 변동

이 심한 언어이고, 또 발음의 정확성은 학습자가 기초 단계에서 꼭 익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 되고 있다.

5)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가능한 교재 개발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는 중심 교수법이 무엇이나에 따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그것이 표방하는 교수법을 고려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란 말 그대로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 교실의 학생 수나 교재 사용 학습자의 요구가 다르므로 교재가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작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교사의 교안이다. 다만, 기본 골격과 주제와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 교재는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과 언어 수준과 연령 등 변인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학습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자기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것과 비교하여 자기 것을 우위에 둘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1.3. 언어 교수에서 네 가지 영역

언어 교수·학습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의 향상이란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하기에서 얻은 지식을 쓰기에서 확인하고 심화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읽기에서 얻은 지식을 토론이나 좌담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또 말하기에서 얻은 어휘·문법 지식으로 이해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서로 확장하

고 통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서는 각 기능의 수준이 달라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외 교포는 말하기와 듣기는 잘하지만 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순수 외국인은 반대로 말하기와 듣기가 아주 약한 경우를 본다. 이런 경우에는 영역별로 교재가 따로 있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3.1.4. 평가

성취도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에게는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한국어 교재에 자주 등장한다. 대개 워크북에 쓰기 형태로 삽입하기도 하지만 본 교재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 풀이부터 하는 것은 수업의 맥을 끊는 것이 되고 학습에는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3.2. 형식적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내용 배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말하기 교재는 도입에서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몇 개의 질문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성된 것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는 대화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와 관련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 대화문을 듣기로 구성하여 책 뒤쪽에 제시하거나, 해당 단원의 마지막 쪽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다음으로 새 단어 - 문법 - 연습 - (문화) - 과제 - (평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 중심 교재 개발이라면 문화 항목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가 문제다.

수업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주당 5일 10주 과정으로 된 집중 과정에서는 반복과 확장이 어렵지 않지만 집중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순환적, 반복적인 배열을 해야 한다. 순환적 배열로서 학습자가 만족할만한 언어 능력의 향상과 학습 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배열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어 교재는 그림, 사진, 색도, 여백의 활용으로 학습자의 이해와 표현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림과 사진의 크기와 선명도는 잘못하면 학습자가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할 수도 있고 학습자를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기본 교재를 위한 부교재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 학습자의 언어적 훈련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3.3. 교육 자료 분석

3.3.1. 국내 교육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가 아닌 특수 목적 한국어 교재로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그리고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 대상은 한국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와 한국 생활’, 다락원에서 출판된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그리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1, 2’로서 총 6종의 교재이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농림부의 ‘우리 엄마의 한국어’,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첫걸음, 초급, 중급’,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을 포함

한 7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는 ‘한국언어문화 듣기 집’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2종을 선정하였다.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 총 15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1) 분석 대상 교재

대상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판 연도	권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알 수 없음.	한국 국제노동재단	2003, 2003	2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1, 2	전수정, 정은화	율촌재단	2006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조항록, 김정숙, 이미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1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이미혜	다락원	2005	1
여성 결혼 이민자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우리 엄마의 한국어’	조선경, 김민애, 우인혜, 우창현, 이미혜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2007	1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조선경, 김대옥, 서경숙	여성가족부	2006	1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여성가족부	2005	1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강현화, 김선정, 김정숙, 이해영, 정희원, 조선경	여성가족부	2006	1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	정명숙, 송금숙, 이유경	충청북도 교육청	2006	3
문화	한국언어 문화 듣기집	백봉자, 최정순, 지현숙	하우	2005	1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이선이	한국 문화사	2007	1

2) 교재 분석 항목 설정

교재 분석의 항목 설정은 Cunningsworth.A(1995), 이해영(2001a), 황인교(2003)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 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된 한국어 교재를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적 구성에서는 교재의 레이아웃과 삽화, 사진의 실제성을 점검하고 주 교재와 관련된 구성물 유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적 구성은 다시 구성, 학습 내용, 학습 활동 부분으로 나누었고, 또 구성에서는 전체 교재의 구성과 단원 구성으로, 학습 내용 분석에서는 주제,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으로,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는 기능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① 외적 구성

- 레이아웃
- 삽화, 사진의 실제성 점검
- 주 교재 관련 구성물 유무

② 내적 구성

- 구성
 - 전체 구성
 - 단원 구성
 - 단원의 내용 제시 순서
 -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 학습 내용
 - 주제
 - 주제가 다양한가?
 -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여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실생활에 부합하는가?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담화와 화용, 문화)

- 문법 : 문법 항목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었는가, 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의 양은 적절한가?
- 어휘 : 어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어휘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어휘에 대한 의미 설명이나 발음 설명이 있는가?
- 발음 :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 문화 : 문화 항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문화 내용이 적절한가, 일상문화, 성취 문화의 비율은 적절한가?²⁶⁾

○ 학습 활동

• 기능적 측면

- 말하기 : 말하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말하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실생활의 상호 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 듣기 : 듣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듣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읽기 : 읽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읽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쓰기 : 쓰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쓰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통합 활동 :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위한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 내용적 측면 :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26) 문화 항목에서는 Brooks의 분류법에 따라 성취 문화와 일상문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취 문화는 문화, 고전 음악, 무용, 건축, 예술 작품 등 어떤 문화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산물만 뽑아 놓은 것이고, 일상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 곧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이병규, 2005 : 275에서 재인용).

3) 교재 분석 결과 및 제언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중심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교재 개발에 개선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들은 언어 내용(문법, 발음, 어휘)의 체계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문법의 경우, 타 교재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들의 제시된 문법의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교재의 난이도 부분은 영어나 중국어의 번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수가 많은 편이었고, 몇몇 교재는 정규 기관의 교재에 비해 단원 구성이나 문법 항목의 선정과 제시 방법의 체계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역시 문법 영역을 보면 난이도에 따른 체계적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 문법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발음 교육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재가 발음 영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정규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초기 언어 습관이 화석화된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이러한 언어 습관이 자녀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습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교재에 발음 연습부분을 늘리고 테이프이나 CD 등의 듣기 자료의 마련하는 등 발음 교육을 위한 듣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의 양이 다소 많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교재의 구성 시에는 단계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문법 제시와 듣기 활동의 강화, 적절한 양의 어휘를 선정하여 교재의 언어적인 내용의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문화 중심 교재는 언어 내용의 학습보다는 문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 교재들보다 어휘 학습에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언어문화 듣기집’과 ‘한국 현대 문화’

에서는 풍부한 어휘를 제시하고 듣기 연습 혹은 어휘 연습 문제를 통해 문화 내용과 어휘의 의미를 돕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문화’의 경우 어휘 선정의 체계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본문 속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가 어휘 연습 문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어휘 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각 언어 기능별 학습 활동의 균형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언어 양상을 살펴보면 언어 발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기, 듣기 능력의 빠른 발달에 비해 읽기, 쓰기 능력이 많이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습 형식의 읽기, 쓰기 과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회당 2시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 이외의 시간 동안 학습자들은 계속 한국어 말하기, 듣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정작 읽기, 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교재에 충분히 반영하여 혼자 할 수 있는 읽기, 쓰기 과제를 단원의 뒷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교재들은,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말하기 영역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중 충북 교육청의 교재를 보면 말하기 활동이 각 단원마다 제시된 것에 비하여 다른 활동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하기 활동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구성하더라도 읽기와 쓰기 활동 또한 체계성을 갖추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재의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 실생활에 필요하고 학습자를 고려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재를 사용할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재의 본문에 제시된 대화 장면이 주로 직장 내의 직장 동료와 이루어지거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주제, 어휘, 문화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 1, 2’에서는 ‘근무 수칙 만들기, 회식 일정표 만들기, 출장 신청서 및 보고서 쓰기, 결근 신청 이메일 보내기, 행사 일정표 만들기,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내기,

이력서 쓰기, 다양한 접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제품의 제조 과정을 보고 설명하기, 새로운 회식 방법 제안하기, 회사 지원할 때 알아야 할 것 파악하기,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등과 같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 회사를 소개할 때의 예절, 문서를 작성할 때의 예절, 회의를 할 때의 예절, 고객 불만에 대해 응대를 할 때의 예절, 직장에서 경조사 챙기기, 동료와의 예절, 접대할 때의 예절, 회사 면접을 볼 때의 예절 등'과 같이 직장 문화 내용과 관련된 다루어 교재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교재들은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등장인물과 직장 생활 관련 어휘 이외에는 일반 목적의 교재들과의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부 교재를 제외하고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와의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는 집안일에 관련된 주제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상 가정생활에 편중된 주제를 해소하고, 여성을 가정생활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사회적인 활동과 참여를 하는 여성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각 교재에 사회생활로 제시된 것 중 관공서 방문하기 등도 결국에는 집안일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활동들뿐이었는데, 충북교육청 고급교재는 '문화센터 이용하기'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두어 가정생활 관련주제와 사회생활 관련 주제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재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특수성과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현장 적용성이 높은 주제들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문화만의 제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등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나라에 대한 다문화적인 시각에서의 문화,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에서의 문화도 다루는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제시가 필요하다. 기존 교재에서는 문화를 제시하더라도 한국 문화만을 강요하고 알리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 중 ‘비즈니스 한국어 1, 2’의 경우, 학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문화의 제시가 눈에 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중 농림부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하여 도입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의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을 두었는데 다문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좋은 활동으로 보인다.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며 알아가는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문화적인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교재가 앞에서 분석한 문화 중심 교재들이다. 단원별로 제시되는 문화를 주제로 한 학습 활동은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쌍방향 문화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경우에는 워크 북, 자습서, 읽기 교재 등의 부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는 가사일, 육아 등의 문제로 교육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학습자의 특성상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야 일주일에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초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습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특히 유의할 점은 가족들이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없이 교재를 구성한다면 가정에서의 학습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못된 교수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지침서의 개발과 자원봉사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나 이주 여성센터 같은 곳에 있는 한국어 교사는 대부분 자원봉사자인데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김일란(2007)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의 한국어 교사의 직업이 한국어 강사나 한국어양상 과정 수료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 대학생이나, 주부, 직장인, 심지어는 무직도 있었다. 그리고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에는 목사 부인이 취미삼아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3.3.2. 국외 교육 자료 분석

1) 교재 분석

이 장에서는 국외 현지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한다.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현황은 국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국내 교재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들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은 앞서 지정한 대로 국외 현지 학습자들의 요구 수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외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러한 교재들을 통해서 현지 학습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분석 항목

국외 교재 분석 항목도 앞 장의 국내 교재 분석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는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에 비해 내적인 구성이 너무 빈약한 까닭에 앞서 제시된 분석 항목에 대응되는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분석 대상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는 실질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재(KLEAR 교재 시리즈)가 개발되었지만 이는 영어권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로서 본 세종학당의 교육정책에 포함되는 학습자의 학습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국어교육을 위한 한글교재가 미국 등지에서 다수 개발되었으나 세종학당의 교육 대상 범위가 한국어를 문화유산으로 하지 않는 외국의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 네팔, 중국 등지의 서점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개발국	교재명	학습대상	출판시기
중국	한국어 초보자도 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일반인	2007
싱가포르	기초 회화용 한국어	일반인	2006
네팔	좋은 한국어	일반인	2007
뉴질랜드	나미, 안녕	비성인	2002
베트남	무역한국어	일반인(무역인)	2007
	한국어	일반인	2004
	판매원에게 한국어	일반인(판매원)	2005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	일반인	2006
	한국어 기본문형	일반인	2005

4) 국외 한국어 교재의 분석 결과

국외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는 대부분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내 교재는 국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맞게 편집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를 단지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과

제가 아니다.

본 장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분석된 교재는 영어권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 KLEAR인데, 이는 한국 국제 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한국어 교재 수준의 향상에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어휘는 학문 중심의 생활환경에 편중되어 있고, 문법에 대한 설명도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또 매 단원에서 익혀야 하는 어휘 수가 평균 50여 개에 이르고 문법 항목 수도 6개 이상이나 된다. 즉 학습 내용의 질과 양의 면에서 학문 중심적 성향이 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종학당의 학습자에게 제공될 교재의 모델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비학문 목적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는 우선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교재 구입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최근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의 시중 서점에서 구입한 교재를 중심으로 현지의 비학문 목적 교재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행에 필요한 한국어, 무역에 필요한 한국어, 판매 관련 현장에 필요한 한국어 등 다양한 범주의 교재가 개발된 점으로 미루어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매우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재의 수준은 외적 구성면에서나 내적 구성면에서 모두 열악함을 면치 못했으며,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언어적 오류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는 국외 현지에서의 교재 개발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난개발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장에서 분석된 비학문 목적의 교재는 대부분 어학 교재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설정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을 수록해 놓은 문장 사전식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휘 목록은 물론 문법 설명이나 그 외의 어학 교재에 필요한 연습 항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성인용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국외의 한글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인데, 본 장에서 분석된 교재의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교재의 목적이

어학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국외 동포의 2세, 3세들이 모국어를 배우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보다는 모국어 학습이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언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학습을 통해 기본적으로 어휘가 습득되고, 문법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 주제의 설정에 일관성과 목표성이 있어야 하고, 예문에 사용되는 어휘도 빈도수와 난이도 검증을 통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된 교재 중에서 문화 항목을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더라도 한국의 상징물에 해당되는 자료 게시 및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 항목은 언어 교육의 완성은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원리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인의 언어 습관과 사고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 항목에 대한 개발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제시되지 않고서는 문화 항목 부분은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곁들게 될 것이다.

3.3.3. 국내 주재 국외 문화원 교육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 문화원 및 어학센터 중 중국의 공자학원, 한불 문화 재단 산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문화원 내 괴테 어학 연구소, 일본 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 센터 및 영국 문화원의 어학 프로그램 및 그 교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 분석 대상 교재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판 연도	권수
영어 교재	New Headway	Liz & John Soa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Clive Oxenden, Christina Latham-Koenig, Paul Selig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판 연도	권수
독일어 교재	Tangram aktuell Niveau A1/1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	Max Huever Verlag	2005	1
	Tangram aktuell Niveau A1/2				1
	Tangram aktuell Niveau A2/1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			1
	Tangram aktuell Niveau A2/2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Beate Blüggel, Anja Schümann			1
불어 교재	initial 1 livre de l'élève	Sylvie POISSON-QUINTON, Marina SALA	clé international	2006	1
	initial 2 livre de l'élève			2002	1
중국어 교재	차이나 파노라마 (입문편)	여필송,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	Language & Culture Press (동양문고)	2007	1
	차이나 파노라마 (기초회화편)				
	차이나 파노라마 (생활회화편)	오숙평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			
	차이나 파노라마 실전회화 기본편				
일본어 교재	일본어 초보 I	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	YBM si-sa	2006	
	일본어 초보 II			2005	

2) 교재 분석 항목 설정

교재 분석의 항목 설정은 *Cunningsworth(1995)*, *이해영(2001a)*, *황인교(2003)*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 틀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국내 한국어 교재 분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행하였다.

3) 교재 분석 결과

지금까지의 국내 외국문화원 어학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을 위해 제안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본 단원의 언어 내용 제시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교재에 수록할 언어 내용을 정해야 한다. 교재 분석에서 참신한 구성과 치밀하고 빈틈없는 언어내용을 제시한 교재로는 독일어 교재가 단연 으뜸이었다. 다면적인 언어활동 및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어 교재는 어느 교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되지 않는 대신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듣기, 읽기 자료를 통해 어휘, 문법 등을 학습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형식과 구성 원리에 따라 세종학당 교재를 만든다면 한국어 숙달도가 높지 않은 초급 학습 단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독일어 교재와 같은 구성을 하려면 초급을 넘어선 난이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급 교재 개발 이후 중급 교재를 계속 개발하게 된다면 독일어 교재의 구성 원리나 언어 내용 제시 방식에서 일부를 수정 적용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만하다.

일본어 교재보다 상대적으로 덜 단조로운 중국어 교재는 서양어권 교재보다 구성이 단순하고 단편적이다. 특정 등장인물들이 계속 해당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 한국어 교재에서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식의 본문 구성이 많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명, 제시하여 그 상황에 맞게 번갈아 등장시키는 형태의 내용을 담은 본문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세종학당 교재에도 적용 가능하다.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도 학습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현시대의 한국인의 모습을 대표할 만한 등장인물을 설정하거나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현지인을 등장인물로 설정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 영어 교재 **New Headway**는 주로 가벼운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하는 도입 단계를 거쳐 본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독일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연습과 활동으로 본 단원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경우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출범을 하는 세종학당의 교재의 형식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불어 교재의 경우 본문을 듣는 것으로 본 단원이 시작된다. 이때 들어야 하는 내용에는 여러 개의 상황이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삽화나 사진과 연결시키며 듣도록 제시하고 있다. 듣기 스크립트는 각 단원 첫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영어나 독일어 교재에 비해 초보 학습자들을 배려한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목표 상황이나 주제로 몰입시킬 수 있는 도입 질문이나 간단한 이야기 활동의 주제가 제시되고 이와 관계된 짧은 대화가 듣기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다뤄야 할 짧은 대화, 혹은 이야기의 주제나 상황, 포함하여야 할 기능 등을 설정한 후 문법, 발음, 어휘 항목에 대한 배열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본 단원의 내용을 표현 학습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제시하는 문법 수는 제한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한 번에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도식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문법에 대한 설명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지만 한국어에는 있지만 세종학당의 교재가 사용될 국가의 모국어에 이와 대응하는 문법이 없을 경우 번역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되는 문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등장인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는 <tip> 형식의 짧은 설명이 더 유용할 것이다.

발음 항목 제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첫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발음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을 어떤 식으로 표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자세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발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ㅎ 약화’ 현상은 한국어로 발음 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문말 억양 등을 제시할 때 올림 정도를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한국어 혹은 현지어로 발음 표기가 백 퍼센트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CD나 테이프 등의 청각 자료들이 함께 출판 배포될 경우 표기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분석 대상이 된 서양어권 교재들에서는 듣기 활동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비단 순수한 듣기 활동만을 제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은 물론 말하기와 읽기 심지어 쓰기 활동까지도 듣기 활동이 기초적으로 먼저 이뤄진 상태에서 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어휘 활동을 한 후 정확한 답을 들으면서 확인하도록 제시된 영어 교재도 앞에서 제시하였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사용될 지역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듣기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어 교재에서와 같은 시도가 이들 학습자를 위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듣기에 노출될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실제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재 분석 결과를 볼 때 아시아권 교재들에서는 문형 중심의 쓰기와 읽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서양어권 교재들에서는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학당의 교재는 아시아권 교재와 서양어권 교재들의 장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교재로 개발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는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연습 문제와 활동이 제시돼 있어 학습자들이 책의 무게나 활자의 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교재를 본 단원이 들어 있는 주 교재와 학생용 부교재로 나눈 후 주 교재에서는 본문과 유용한 부가 표현, 문법 tip, 발음, 말하기, 듣기 등 통합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교재 격인 학생용 워크북이나 독일어 교재의 부속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기초 연습책 형태의 작은 책자에서는 문형 연습과 단순한 쓰기 연습,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수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부교재에서 하게 되는 연습은 과제물로 제출하고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어휘 학습을 예로 들면, 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골라 넣는 형태의 연습은 본 교재에서 제시하고 새 단어를 넣어 문장을 쓰거나 문맥에 맞게 재배열하는 등의 충분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용 워크북에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습을 할 수 있고, 수업 후에 학습자들은 부교재를 통한 연습을 스스로 함으로써 배운 어휘에 대해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와 부교재의 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이 아니라 한 번 배워 두면 언제든지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학습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성, 중요성, 빈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제시될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 결과도 반영하여 적절한 주제와 상황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한다. 세종학당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개의 급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주제와 상황을 배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많은 상황을 초급에 모두 제시한 후 중급 수준의 교재 개발 시 주제나 상황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 수용한다는 입장에서의 다양한 시각의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와 관련된 전통적 문화 제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본문과 관계없이 따로 제시가 돼도 무방하다. ‘옛날 한국에서는’ 식의 제목 하에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화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현지에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은 교사 몇 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생활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문화 관련 CD롬 교재나 동영상 자료가 반드시 함께 출판돼야 할 것이다. 생활 문화는 전통문화 부분과 연계가 되면서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요즘 한국에서는’ 식의 제목으로 제시가 돼도 좋을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찜질방’을 한국에 유행하는 ‘방 문화’의 하나로 단순하게 소개를 했다면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옛날 한국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방을 덥히던 것이 현대에 이르러 찜질방의 원조가 되었음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자료가 함께 제시된다면 더 효과적인 것이다.

나아가 해당 국가의 전통이나 상황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다른 나라에서는’ 식으로 자국 문화와 외국 문화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장단점이나 비판 등을 말하거나 써 보게 하는 형식의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 교수는 한국 문화의 장점과 우수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행해졌다. 과거 한국의 김치를 소개할 때 김치가 우수한 먹거리라는 것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이런 시각을 바꿔, 김치는 한국인이 발명한 발효 식품이며 해당 국가의 대표적 발효 식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한 후 왜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발효 식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왜 학습자의 나라에서는 다른 발효 식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한국의 기후, 산업, 시대적 배경과 특성 등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꿈꾸는 세종학당의 교재의 문화 항목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 소개와 수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교재에 대한 자세한 교수 방법과 활동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사를 한국에서 교육, 파견한다 할지라도 교재에 대한 이해와 학습 활동 지도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법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어휘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학습 활동을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정은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 예상보다 정해진 내용의 수업이 일찍 끝날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충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 자세히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비전공자들도 교재와 지침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연구하고 수업에 임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한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재와 지침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사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교사 교육을 대신할 모범 수업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4. 국외 학습자 요구 조사(설문지) 분석

1) 도입

세종학당의 교육 목표와 대상에 따른다면, 본 설문지의 연구 대상은 국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적이지 않은 한국어 지식을 가진 자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여건상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서 직접 설문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설문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주로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 설문 대상과 범위

① 설문 대상

본 설문지는 10월 22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과 결혼 이민자 수업, 보문동 한글학교에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은 61.78%, 남성은 37.58%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주요 학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응답의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자	남자	무응답	계
응답자 수	97	59	1	157
백분율	61.78%	37.58%	0.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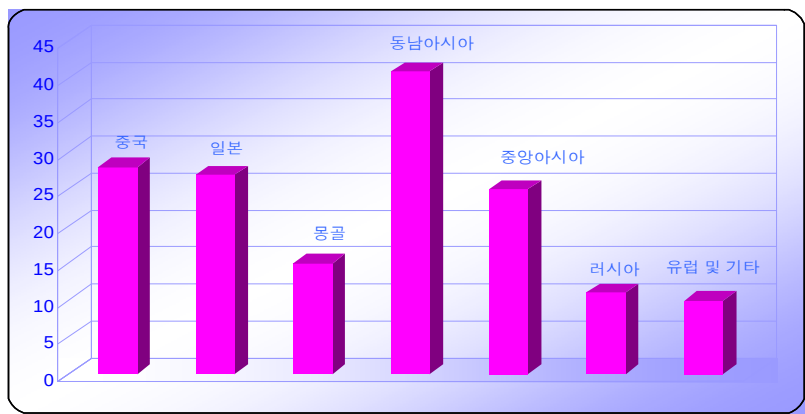
국의 세종학당의 교육 대상은 성별, 학력, 직업의 제한이 없는 초등학교 학력 이상의 보통 사람들이다. 이 설문지는 이에 따라 10대부터 30대까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10대	20대	30대	40대	무응답	계
응답자 수	12	114	16	1	14	157
백분율	7.64%	72.61%	10.2%	0.64%	8.91%	100%

또한, 세종학당 설립의 주요 권역에 맞추어 조사된 본 설문지 응답자의 주요 출신지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동북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러시아	유럽 및 기타
	중국	일본	몽골				
응답자 수	28명	27명	15명	41명	25명	11명	10명
총	157명						

이를 간단하게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등은 이번 세종학당 설립의 주요 권역이 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설문 조사 대상 역시 주요 권역에 맞추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자의 자세한 국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응답자 수	국가	응답자 수
베트남	31	대만	2
일본	27	필리핀	2
중국	26	인도	2
몽골	15	인도네시아	2
우즈베키스탄	11	말레이시아	1
러시아	11	태국	1
유럽국가	8	네팔	1
카자흐스탄	7	미얀마	1
아제르바이잔	3	캄보디아	1
키르기스스탄	2	이집트	1
우크라이나	2	호주	1
총	157명		

② 연구 방법

설문은 한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내용은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설문지의 문항 작성 역시 교재에 담길 내용을 객관식으로 간단하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객관식으로 답변할 수 없는 의견 개진을 위하여 마지막 항에 주관식 항목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엑셀 2003과 SPSS 7.0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신뢰도 분석 등은 하지 않았다.²⁷⁾ 설문은 각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 단계에 따르기보다는 통합적인 요구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응답자에 따른 자세한 변별점 등은 이 설문 분석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

③ 설문의 주요 영역

본 설문지의 주요 영역은 응답자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와 한국어 교육 및 교재 조사 부분이다. 기초 자료 조사에서는 국적과 성별, 연령에 대하여 문항을 작성하였고, 한국어 교육 부분에서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내용 주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언어 형식 주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항목 주제로 구분하였다.

3) 요구 조사 분석 결과

세종학당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진행된 본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응답자에 대한 기초 자료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 중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주제,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언어 범주,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객관식 위주의 문항에 주

27) 설문지 배포와 수거가 일치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충분한 안내 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식 문항을 두어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 특히 정부초청장학생, 재외 동포재단장학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경희대학교 결혼 이민자과정의 수업 수강생, 보문동 한글학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설문 조사 대상의 국적 혹은 권역 비율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가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동남아시아는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권역별 비율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설문 조사 결과 지역별 특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설문의 조사 대상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고 각종 변인들(성별, 연령, 초기 학습 경험 유무 등)을 통제하면 본 설문 조사의 결과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	1	2	3
한국어 교육 주제	음식	소개 및 인사	여행
한국어 언어 범주	발음	문법	어휘
한국어 문화 범주	전통음식	현대 대중문화	전통 옷

4. 국외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

이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기존 교재의 분석과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설문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교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세종학당에서 개발되어야 할 교재의 방향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 기존 교재의 한계점

1) 문법에 대한 부담감

대부분의 기존 교재는 문법 중심의 학습 교재 틀로 짜여 있다. 이러한 교재들의 학습 방향은 각 단원에 제시된 문장을 유형으로 해체시킨 후 이에 대한 문법 설명과 문장 연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해체된 문장으로 익힌 문법을 다시 온전한 문장으로 완성해서 발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종종 언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문형중심의 교육에서 오는 문제

많은 교재가 문형 중심의 연습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배운 문형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현장 적응력 배양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진 학습이 된다. 또 문형 중심이란 결국 문장 단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언어란 문장에서 나타내는 표면적인 표현 이외에 담화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하므로 문형 중심의 단순 연습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학습 지속의 한계

기존 교재의 단원 구성이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급을 거쳐 2급 단계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주요 문법 항목이 모두 고갈되고, 중급 이상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문법적 구심점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초급 단계에서 문법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느낀 학습자들은 중급 이상의 단계에 대해 학습 의욕을 상실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4) 내용의 단순성

문법에 초점을 맞춘 교재의 내용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문화의 내면적 깊이를 간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한류에서 열광하는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어 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5) 문화이해의 한계

기존에 출판된 교재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문화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 방법이 일방적인 문화 설명에 그치고 있다. 문화항목에 대한 선정도 단원의 내용과 별개의 경우가 많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되지 못한 채 각 단원의 부록과 같은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현지 적용의 한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의 내용은 한국적 상황이거나 교실 중심적 상황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 지리 안내는 현지 학습자들에게 공허한 제시일 뿐이다.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적절한 상황 제시 없이 언어의 용법을 익히게 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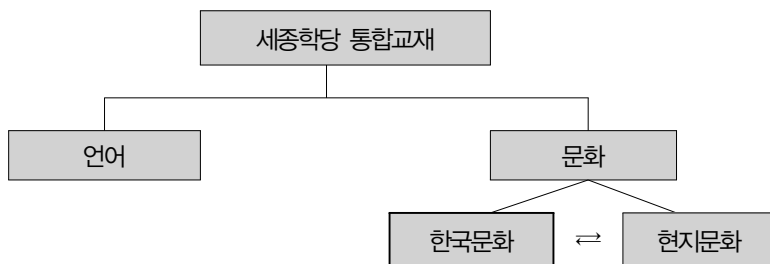
7) 시간적인 한계

교재 제작과 교과 과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재는 교육의 목표, 학습자의 변인, 학습 시간 수에 맞추어 제작되는데 세종학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 학습자, 시간 수가 기존 교재와 맞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재 구성의 불일치는 교사에게나 학습자에게나 비능률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2. 세종학당 교재 구성의 원리

세종학당의 교재는 앞 절에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원리를 모색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세종학당의 교재는 문법 중심의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기능을 분류, 개발하는 기존의 틀과는 달리 오히려 기능별 자료들이 통합되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 교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 체제는 언어의 기능과 언어 행위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교재 구성을 두 개의 영역으로 정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둘째, 문화 항목은 학습자가 자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낯선 문화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흥미를 둘 수 있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간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류애적인 교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놀이처럼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즉, 각 단원에 제시되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역할극(role-play)을 하면서 언어 학습과 문화 체험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종학당의 교재가 문화 체험을 통한 학습 교재가 될 때,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학습기관은 학습자

들에게 문화를 나누는 장소로 인식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교재를 통해 익힌 한국어가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단원의 주제는 현지 학습자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재의 학습 방향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수행 과제가 단원의 핵심적인 학습 내용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재의 외적 구성도 문법책과 같은 딱딱한 분위기를 지양하고 학습자에게 문화 체험 지도를 보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각 단원의 주제가 선열 구도로 단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담고 있는 현장 사진을 통해 다선적이고 다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문화 현장 안에서 학습자가 체험한 문화 요소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교재에 담아낼 수 있는 한국 문화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 주제 안에서 다양한 언어 수행 과제가 생길 수 있도록 항목들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중심의 과제 해결 학습 과정은 어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학습자들이 지치지 않고 능률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문법과 발음은 주 교재에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팁 형식으로 다루고 워크북과 같은 부교재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1) 문화 요소 분류

세종학당의 교재가 국외에서 사용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문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외국인에게 소개해야 하고 소개할 만한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 담아낼 수 있는 문화 요소는 크게 생활문화와 정신문화 그리고 예술문화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생활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요소는 다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둘째, 정신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한국적 가치관이나, 한국인의 정서, 대인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술문화는 성취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제

문화 요소가 결정되면 이를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각 단원의 주제는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지만 학습자의 특수성과 사회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소재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주제는 학습자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개념 범주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대개는 정적인 자료 구조인 프레임이나 사건 또는 행위의 시간적 계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등의 단위 구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의미 범주나 배경지식 범주로 교재를 구안한다. 이때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최대한으로 활성화 되도록 삽화를 적절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제시한다거나 언어적 단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과제

과제란 주제가 제시하는 문화 현장에서 언어 수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외식’이라는 주제는 한국인의 현대 생활 문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주제이다. 이 주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언어 과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 수행 현장을 식당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식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 행위, 즉 자리 잡기, 음식 주문하기, 종업원의 주위 끌기, 요구하기 등이 학습 과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화 중심 교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바로 과제 해결 항목

이다. 이 항목에서는 단위 주제의 문화와 관련된 언어 사용 현장에서 학습자가 당면할 만한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과제 해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원의 주제가 ‘인사’ 문화라면 이와 관련된 현장은 가정, 식당, 가게, 사무실,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연습 현장은 시각 자료를 이용한 제시가 바람직하다.

4) 어휘

과제 중심 학습 방법에서는 문법 학습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어휘 학습에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고 학습자도 어휘 학습에 적극적인 편이다. 어휘는 문법 항목과는 달리 어휘 자체에 의미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된 어휘 수에 비례하여 표현력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이 어휘 의존적인 만큼 어휘 제시에 규칙성이 필요하다. 기본 어휘, 확장 어휘, 심화 어휘 등과 같은 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학습 단계에 따른 체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 문법 팁

문화 중심 교육에서는 문법 연습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 항목을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문법적 규칙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문법적 규칙성을 찾아내느냐 찾지 못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문법 유형을 추출하여 문형 연습과 같은 학습 활동을 지양한다. 여기에서의 문법 설명은 학습자가 규칙성을 찾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문법기능을 가진 요소가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경우에 이형태가 나타나는 환경을 설명하는 일은 학습자에게 문법 설명으로 느끼지 않고 단순히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한편, 워크북과 같은 부교재를 이용하여 팁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 내용을 보충하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응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문법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팁 항목에는 문법 외에 발음과 관련된 설명도 포함한다. 문법과 발음을 팁 항목으로 다루게 될 때, 또 다른 장점은 교재를 현지화 하는 과정에서 각 언어권의 특성에 따라 팁 항목의 내용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재의 현지화에 유연성이 높인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6) 문화 비교하기

세종학당 교재에서는 문화가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므로 단원 주제의 문화를 학습자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식당’ 현장이 나타나는 문화 단위이라면 한국의 식당 문화와 학습자 나라의 식당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리에 앉는지 안내를 받는지?
- 식사 후에 돈을 내는지 식사 전에 돈을 내는지?
- 식사 값을 음식 먹은 자리에 앉아서 내는지? 카운터로 가서 내는지?
- 팁을 내야하는지?
- 남은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 음식과 별도로 물(또는 차) 값을 내야하는지?

5. 단위 모형

세종학당의 단위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제목, 학습목표, 도입, 대화문 제시와 연습, 발음 제시와 연습
표현 연습(어휘와 표현), 문법 Tip, 문법 연습, 응용 연습(활동 1, 2)

이 중 상호 문화 교류가 가능한 문화 배경과 주제는 도입 부분에 도입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대화문에 반영하며, 연습에서는 표현 연습과 문법 부분에서 단원의 핵심이 되는 언어적 요소를 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마무리 부분에서는 응용 연습으로 과제 해결을 하도록 한다. 이를 학습 절차를 고려해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5.1. 기본 교재 단원 모형 (1)

단 원 명

오늘은 제가 살게요.

● 학습 목표 ●

-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와 관련된 생활문화 양식 이해하기
-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과 한식내기 문화 이해하기
- 한식내기 문화를 통한 한국인의 정 이해하기
- 식당 내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예절과 나라의 문화 비교하기

● 도입

- (다양한 장면이 포함된 식당 안 모습을 비디오 자료로 제시)
- ①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 ② 음식을 고르는 모습
 - ③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는 모습
 - ④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모습

● 도입 활동

- 식당에 갈 때 주로 누구와 함께 가요?
 -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음식 값을 누가 내요?
 - 친구에게 식사를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불러요?
- (아주머니(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언니, 여보씨요, 여기요, 저기요)

① ②
③ ④

어휘

주문하다, 한식내기, 좋은 일이 생기다, 보너스를 받다, 종업원

어휘 연습 1



- 누가 음식을 주문하든 잊지 마세요.
- 누가 음식을 주문하든 잊지 마세요.
- 누가 한식낼 건가요?

어휘 연습 2



- 한식내기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쓰세요.
- () 여보씨요 () 누나씨요 () 매기요 () 저기요
- () 아가씨 () 아주머니 () 똥돌아요 () 제씨요

● 어떻게 하세요?

"식당에서 자리 잡기"

- 일반적으로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자리에 직접 가서 앉을 수 있다. 그러나 외근에는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해주는 식으로 할 경우도 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 (한자어 번역).
- 앉기 자리 있어요?
 - 좀연석 있습니까?
 - 가운데 자리에 앉아요 돼요?
 - 조용한 자리 좀 주세요.

③ 대화

-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호영: 알면만요. 조금 이따가 주문할게요.
민수: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것으로 주문하세요.
호영: 무슨 좋은 일이 생기었어요?
호영: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① 대화를 내용을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하는 말을 표시하십시오.

- 1) 호영과 민수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 회사 ☐ 식당
- 2) 오늘 식사 같은 누가 할까요?
☐ 호영 ☐ 민수 ☐ 호영과 민수

② 본문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십시오.

<보기> 무슨 좋은, 살게요, 이따가, 것으로, 보너스, 잠깐만요

-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호영: _____ 주문할게요.
민수: 호영은 제가 _____ 맛있는 _____ 주문하세요.
민수: 오늘 _____에서 _____을 받았거든요.

③ 말하기

살게요(살게요) 한식내주세요(한식내주세요) 좋은 일이(호은나리)

- ④ 대 화 본 시요
- 주문할게요
 - 이따가 살게요
 - 한식내기 부탁해요
 - 잘했어요
 - 일단 일이 있을어요
- 대 화 본 시요
- 내일 올게요
 - 내가 살게요
 - 한국 내
 - 무슨 일이예요?
 - 남은 일이 많아요

표현 연습

표현 1 "한식내기 의사를 표현하기"

- 한식내겠다는 의사표현은 언제 하는 것이 적당할까?
대부분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한식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주 함께 식당에 가는 사이라면 미리 한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식사가 끝난 후에 식사 값을 계산할 때 한식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식사 전에 미리 한식내겠다고 밝히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마음대로 메뉴를 고르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리 때문에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식사 전에 한식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대방에게 식사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어 번역).

- 식사 전이나 후에
- "오늘은 내가 살게요."

- 식당에 가기 전에
- "오늘은 제가 한식낼 테니 점심 먹으러 갑시다."
- "오늘 내가 올게"

- 식사 후에
-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 "오늘 식사 같은 내가 살게요."

④ 표현 2 연습

- 1) 자무실 친구들에게 당신이 식사를 사겠다고 말하십시오.
- 2) 식사가 끝난 후 당신이 식사 값을 계산하겠습니까?
- 3) 메뉴를 고르기 전에 당신이 한식내는 것을 말하십시오.

< 218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형

표본 2 "한학내는 이유를 설명하기"

- ❖ 한학을 만들 기본 입이란 어느 경우일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자신에게 기본 좋은 느낌이 드는 경우에 한학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한학내는 문화를 즐기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한자어 번역)

"제 숭신했거든요"
"오늘 보디스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어제 팔이기가 데어났거든요"
"우리 아이가 입학시험에 합격했거든요"

표본 2 연습

- ❖ 여러문제를 기본 일이 강했다고 가정하고 한학내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1) 홍도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 나:
 - 2) 선배: 할일이야?
 - 나:
 - 3) 후배: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요?
 - 나:

표본 3 "한학내는 이유를 듣고 반응하기"

- ❖ 한학내는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 하다. 한국에서는 기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다. (한자어 번역)

"아이구, 정말 축하드려요."
"와, 정말 기쁘시겠네요."
"말마나 기쁘세요."
"그런것은요, 축하드려요."

표본 3 연습

- ❖ 한학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적절한 반응에 보십시오.
- 1) 친구: 제 직장에 취직했어요.
 - 나:
 - 2) 후배: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 나:
 - 3) 선배: 제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 나:

⑤ ⑥
⑦ ⑧

활동

활동1

A장함과 B장함을 작자가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 ❖ 상황A: 어제 팔이기가 데어났기 때문에 단신은 아주 기쁩니다. 단신은 이 기쁨을 사귀실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귀실 사람에게 한학내겠다고 알려드립니다. 사귀실 사귀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팔이 데어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귀실 사람에게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줄 것입니다. 축하를 받은 후 사귀실 주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한자어 번역)
- ❖ 상황B: 사귀실 과장님이 오늘 경선한 한학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기뻐하면서 과장님께 축하드립니다. (한자어 번역)

활동2 대화모형

가: 오늘은 ()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나: 무슨 ()?
다: 어제 ()
라: 아이구, ()

활동3

❖ 상황A: 오늘 단신과 함께 사귀실 사람들은 평소와 겨우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놀러 온지 단신이 데려왔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모두 먹은 후 제간 때에 자기 전에 잔치가 식사 준비 모두 제간하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단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냥 시고 싶다고 알려드립니다. (한자어 번역)

❖ 상황B: 오늘 직장에서 함께 사귀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학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축하할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학내겠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사귀하면서 국가 내각과 제간하라고. (한자어 번역)

활동4 대화모형

가: 오늘은 ()
나: 무슨 ()?
다: 그런 제 아니냐, ()
라: 그러지 말고 ()

문법 Tip

-(으)려고(요)

비밀형 종결어미 '-겠소이다'와 비슷하나 일인칭주어 문장에서만 사용되며, 말말이가 자신의 계획을 표현하는 문형이다. 특히 말말이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할 때 사용한다. (한자어 번역)

- 그 일은 제가 할게요.
- 내일 다시 올게요.
- 다음에 또 올게요.
- 저게 해 드릴게요.
-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문법 연습

다음의 대화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을 약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한자어 번역)

- ① 제각소에 제각목을 찾으로 갔는데 주인이 아직 안 왔다고 대답하면서 미안했다. 그러자 호영 씨는 내일 다시 찾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한자어 번역)

호 영: 어제 팔 건 옷을 찾으로 찾으로.

제각소 주인: 아직 안 왔는데요. 미안합니다.

호 영: 그래요. 그럼 _____.

- ② 과장님께서 사귀를 찾다. 가게 주인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사귀를 더 넣어 주었다. 나는 고마워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대답하였다. (한자어 번역)

가게 주인: 여기 있습니다. 사귀를 두 개 더 넣었습니다.

나 : 고마워요. _____.

활동5

❖ 상황A: 단신은 파출소입니다. 오늘 단신은 호영 씨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영 씨가 한학내기 때문에 오늘은 단신이 한학내야 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 단신이 제간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호영 씨는 단신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때문에 단신이 한학내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단신은 '호영 씨의 딸은 고맙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한자어 번역)

❖ 상황B: 단신은 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단신이 식사를 대접한 파출소 씨와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에 파출소 씨가 식사 값을 계산하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제간하라고.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한사람이 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때문입니다. 그래도 파출소와 대접하고 싶어 한다면 식사 대신 차를 사도록 권유하십시오. (한자어 번역)

활동3 대화모형

파출소: 지난번에 호영 씨가 보냈니 ().
호 영: 오늘은 식사 값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_____.
파출소: 그래도 기도 한번 _____.
호 영: 그럼, 식당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_____.

문화 나누기

- 1) 여러본 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이 한학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여러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학을 냅니까?
- 3) 한국에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5.2. 기본 교재 단원 모형 (2)

단원명: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학습 목표

- 한국인들의 경기 관련 문화 이해하기
-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 이해하고 사운 표현 익히기
- 내가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의식 이해하기
- 완전할 때 나타나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학습자 나라의 문화 비교하기

도입



도입 활동

-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 편인가요?
- 특별히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나요?
- 직접 구경을 가거나 응원에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 이러한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유명한 팀은 어느 팀인가요?
- 유명한 선수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① ②
③ ④

어휘

이거다, 저다, 불안하다, 낯다, 중요하다

어휘 연습 1



- 경기 결과 나뉘어요?
- 무슨 결과 있어요?
- 어느 팀이 더 강해요?
- 실력 있는 팀이 이겼어요?
- 왜 지리에 안 갔고 왔다 갔다 해요?

어휘 연습 2



- 다음 중 응원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 ☐ 힘내라 ☐ 잘해라 ☐ 잘한다 ☐ 아자
- ☐ 파이팅! ☐ 이길 수 있어! ☐ 여기로 ☐ 거기 없으세요

대화

친구: 오늘 축구 어떻게 될까?
호영: 글썽, 네 생각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친구: 그래? 난 좀 불안해. 잘 것 같아.
호영: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실력이 훨씬 나아.
친구: 그렇기는 해도 경기에서는 돈도 중요하거든.
호영: 그림, 우리 누가 이기나 내가 하라

대화 내용을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한 것들 표시하십시오.

1) 친구와 호영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축구 경기
☐ 응원과 경기 결과
☐ 상대 팀의 경기

2) 친구는 왜 불안해합니까?
☐ 응원하는 팀이 잘까 봐
☐ 상대 팀이 잘까 봐
☐ 경기를 보지 못할까 봐

본문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십시오.

<보기> 팔자, 골짜, 장지, 갈 것 같아, 실력, 훨씬, 은, 내기 팔자

친구: 오늘 축구 어떻게 될까?
호영: 글썽, 네 생각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친구: 그래? 난 좀 불안해. 잘 것 같아.
호영: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실력이 훨씬 나아.
친구: 그렇기는 해도 경기에서는 돈도 중요하거든.
호영: 그림, 우리 누가 이기나 내가 하라

말음

이길 것 같은데(이길 뻔 가는데) | 잘 것 같아(잘 뻔 가다)
할 것 같아(할 뻔 가는데) | 잘 수 있어(잘 수 있게)
할 수 있어(할 수 있게) | 할 수 있어(할 수 있게)

불안해(부안해) | 실력(사력) | 불어(부러)
그렇기는 해도(그러키는 해도) | 좋기는 해(조키는 해)
남지 머니(머) | 남고(나고)

이질 아세요?



한국의 '붉은 악마'를 아십니까?

'붉은 악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때 만들어진 한국 축구의 공식 응원팀입니다. '붉은 악마'는 빨간 색 유니폼을 입고 대형 태극기를 들고 열성적으로 끝까지 응원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경기를 보러 가거나 집에서 응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적-악마' '대-한민국, 적-악마' '대-한민국, 적-악마' 이런 응원을 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응원을 '붉은 악마'들이 만들어 낸 응원 구호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은 어떨습니까?

여러분 나라에도 공식 응원팀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팀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응원단 이름	특 징
붉은 악마	빨간색 상의, 태극기, 아리랑, 파수화 구호(적-악마, 적-악마, 대-한민국!)



표현 연습

표현 1 승부와 관계된 표현

- 이/가 이길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 이/가 이겼어요. (이길 거예요. 이길 것 같아요. 이기면 좋겠어요.)
- 이/가 졌어요. (질 거예요. 아깝게 졌어요. 행운이었어요. 질 것 같아요.)
- 하고 -이/가 비겼어요. (무승부예요. 동점이에요.)

표현 2 순위와 관계된 표현

- 이/가 우승했어요. (1등 편어요. 1등이에요.)
- 준우승했어요. (2등 편어요. 2등이에요.)
- 점프연이 됐어요. (점프연이에요.)
- 완벽달(순제달, 통제달)을 땀어요.
- 제일 못했어요. (가장 못했어요. 꼴찌예요.)

표현 3 경기 내용과 관계된 표현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 행운이었어요.
- 실력 차이는 여덟 수 없어요.
-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 큰 점수 차로 이겼어요.
-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았을 때)

- 아깝게 졌어요.
- 다행이었어요.
- 승계 달을 뛰게 하는 승부였어요.
- 겨우 겨우 이겼어요.
- 큰이 골해서 이겼어요.

표현 4 경기 관련 시 할 수 있는 관중 표현

- 긴장 돼요.
- 편지 불안해요.
- 조바조바해요.
-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법 Tip 1

-(으)러가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질문으로만 쓰인다. (현재어 번역)

- 내일 비가 올까요?
- 개 영화가 정말 재미있을까?
-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까요?
- 개 팀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 내기에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문법 연습

다음의 대화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끝은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현재어 번역)

- ① 내일은 어머니의 생신이다. 초철은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이쁘고 결정하지 못해 걱정이다. (현재어 번역)

초철: _____
친구: 화장을 제일 나을 것 같은데.

- ②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적이 없다. 초철은 친구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어 번역)

초철: _____
친구: 편을 거야. 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걱정을 벌써?

- ③ 오늘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농구 시합을 하기로 했다. 이기는 회사에게는 많은 상금이 주어질 것이다. (현재어 번역)

친구: _____
초철: 물론이요, 실력은 비슷할 것 같은데.

⑤ ⑥

⑦ ⑧



들어보세요!



친구: 와, 소리 꼭 선수들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축구에서 5대 1이긴 걸은 진짜 대단해.
초철: 그걸 봐 내가 소리 많이 이길 거라고 했잖아.
친구: 그래, 그런데 다른 팀을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초철: 라디오를 잠깐 들어 보니까 두 팀이 2대 2로 비겼어.
친구: 그럼 내일 결승전에는 누가 출전하는 거지?

★ 새 언어: 콘라다, 이기다, 경기 결과, 비기다, 결승전, 출전하다

- 다음 내용을 같은 것에 순서대로

- 1) 두 사람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졌다, 비겼다)
- 2) 결승전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1:2, 5:1, 2:2)
- 3) 다른 경기에 나온 두 팀은 (2:2, 2:1, 1:2)로 (이겼다, 졌다, 비겼다)
- 4) 친구는 내일 결승전에 나올 팀을 (한다, 보았다)



활동

활동 1

•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의 이름을 넣어서 자유롭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발표해 보세요.

활동 2 대화모형

가:
나:
가:
나:



읽어 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는 씨름을 들 수 있다. 씨름은 원시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무술로서 행해졌고 시간이 지나며 무예로 발전하였다. 유력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 남가들은 자기 마을 또는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씨름경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력 8월 한가위, 즉 추석 당일이 되면 많은 고상 사람들이 모여 자기 고장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큰 돈을 하기 위해 씨름을 했다. 후세에는 많은 한 마리를 샀고 수많은 첫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었다는 결과 또한 한국을 세로부터 3연속이므로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에서 함초를 부상으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명절에 열리는 첫날 씨름 대회에서는 소 대신 송아지를 부상으로 쓰기도 한다.

- ① 다음은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 가지가 있을 때마다 해 오던 전통 스포츠 및 놀이들의 사진입니다. 사진과 일맞은 이름을 연결해 보세요.



게가치기 씨름 줄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 ②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전통 스포츠와 놀이가 있습니까? 친구와 같이 한국의 전통 스포츠와 놀이에 대해 조사한 후 비교해서 발표하세요.

• 한국의 전통 스포츠/놀이

스포츠/놀이명	연세	누가	어디에서	준비물
줄놀이	명절	가족, 친구, 동네 사람	집, 마당 등	줄, 말, 호환

• ()의 전통 스포츠/놀이

스포츠/놀이명	연세	누가	어디에서	준비물

6. 교재 개발의 효과

세계 주요 국가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여 언어문화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 언어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어 교육 진흥과 한국 문화 보급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한국어 문화권역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세종학당의 설립은 당연한 일이다.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차적 요건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바탕이 된 교재와 충분한 교육 자료의 보급이다.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단계에 맞춘 교재와 교육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교재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일반 대중 중심의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두고, 또 제시 방법은 일방적 한국 문화 알리기가 아닌 쌍방향 문화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그로 인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로써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탈피하여 한국어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은 곧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클 것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전 세계 한국어 교육 진흥한국 문화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저변을 탄탄히 할 것이다.

7. 정책적 제언

- 1) 새 정부가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 발전은 국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가 화급한 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선진화 전진”을 위한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국제 사회는 안보, 경제, 문화 이 세 영역에 의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질서 체계가 수립된다고 한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와 함께 “문화 한국”으로서의 국제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2)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호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류에서 열광하는 학습자를 한국어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 3) 세종학당을 한국 문화의 센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에게서 장기적인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현지 문화 교육 터전이 필요하다. 일회성을 지양하고 전시 행정적 차원이 아닌 한국어문화 센터가 세계 곳곳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4)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5) 재정적, 정책적 지원은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고 세계인과 교류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즉,
 - *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 문화 공간과 한국적 놀이 공간의 확보는 한류로 열광하는 현지인들이 한

국어와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한국의 놀이 문화를 즐기며, 한국인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마당이 된다.

*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나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이 되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인들,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가 모일 수 있는 중심이 된다.

- 6) 한국어 교육용 자료의 빈곤은 경험이 부족한 해외 많은 교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다. 다양한 사진과 삽화가 들어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기본 교재제작은 물론, 언어 교육과 연계한 교육용 한국문화 자료 제작이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육용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251-286쪽.
- 강현화(2002),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97-417쪽.
- 게 에르텐치멕(2006), 「몽골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15, 101-117쪽.
- 고송무(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말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4, 한글학회, 241-262쪽.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16쪽.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423-446쪽.
- 김수정(2005), 「일본의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6-2, 1-23쪽.
- 김수현(2005),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구성의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44쪽.
- 김영순&보텐명래(1998), 「독일어권 한국인 2세를 위한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39쪽.
- 김영주(2006), 「Taeching Culture in the Advanced KFL Reading Class :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4쪽.
- 김은애(2006), 「한국어 발음 진단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1-97쪽.
- 김일란(2007),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숙 외(2006), 「한국어교재론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김정은(2004),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활용 자료와 방안」, 『겨레어문학』 35, 27-62쪽.
- 김정은(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77-112쪽.
- 김제열(2004), 「한국어 교육 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중급 1단계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285-309쪽.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59-85쪽.
- 노명완(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론」,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민현식(2002), 「한국어 교재론 : 동남아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워크숍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학회, 149-188쪽.
- 민현식(2005), 「한류 열풍과 한국어교육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통권 119호, 한국교육개발원, 3-5쪽.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정어문』 26-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33-150쪽.
- 박노자(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3-88쪽.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68-89쪽.
- 방성원(2000), 「통합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1쪽.
-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8쪽.
-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

중언어학회, 178-199쪽.

백봉자 외(1997), 「신교재 개발 연구 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부
국어정책과 연구과제.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16쪽.

백봉자(2006),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
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학술대회 발표문, 1-23쪽.

블라디미르 부ček(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
글』 4, 한글학회, 225-239쪽.

서상국, 김시경(2005),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
한 연구 - 러시아의 경우 : 활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0권, 131-148쪽.

서중학, 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서희정(2004), 「학습자 중심 워크북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95-121쪽.

오세인(2007), 「국제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한국 문화 교육 방안」, 비교한국학, 국
제비교한국학회, 121-137쪽.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선정」,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
학회, 149-186쪽.

윤여탁(2003a),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 교육
학회, 131-152쪽.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한국어언어문화학 1-1, 국제한
국어언어문화학회.

이병규(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이 숙(2007), 「한국어 이동 동사의 어휘화 유형」, 『이중언어학회』 33, 이중언어학
회, 169-188쪽.

이정희(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221-240쪽.

이정희(2004), 「한국어 부교재 개발에 관한 학습자 요구 조사 및 구성 방안」,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233-254쪽.

이진숙(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31-350쪽.

이해영(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409-434쪽.

이해영(2001a),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232쪽.

이해영(2001b), 「한국어 교재의 언어활동 영역 분석」,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469-490쪽.

이해영(2001c),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의 원리와 실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호선(200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희(2002),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경(2006),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79쪽.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3-173쪽.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1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56쪽.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를 여는 한국어

-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443-444쪽.
- 조향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3-250쪽.
- 조향록(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9-305쪽.
- 조현용(2003),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343-364쪽.
- 조현용(2005), 『한국어 교육의 실제』, 유씨엘아이엔씨.
- 하민탄(2006),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전망」, 『한국학연구』 15권, 119-133쪽.
- 한국국제교류재단 엮음(2007),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 할리나 오가레크-츄(1991),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4, 한글학회, 175-190쪽.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 검토 및 방향 제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9-284쪽.
- 황인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 2 - 구어 교수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3-302쪽.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87-329쪽.
- 황인교(2006),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7-227쪽.
- 현원숙(2001), 「중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74쪽.
- Brown, H.D.(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ition. Englewood Cliffs,N.J. : Prentice-Hall.
- Claire Kramsch(1996),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장복명 외

역(2001), 언어와 문화, 박이정 출판사.

Claire Kramsch(1997),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Dudley-Evans, T., & St. John, M. J.(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D-E \$ SJ)

Dwight Atkinson(2003), Writing and culture in the post-process era,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2, 49-63쪽.

E. Hinkel(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50쪽.

Douglas Brown, H.(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H. H. Stern(1986), *Fundamental Concept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Herbert Landar(1966), *Language and Cul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Herron, C., Cole, S. P., Corrie, C., & Dubreil, S.(1999), The Effectiveness of Videl-based Curriculum in Teaching Cultur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3-4, 518-533쪽.

Hinkel, E(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m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Krasner, I.(1999), The Role of Cultura in Language Teaching, *Dialog on Language intruction*, 13-1-2, 79-88쪽.

Ly, Kinh Hien, 2007, 베트남에서의 인문 한국학 , *한국학연구* 제17권, pp. 41-61.

Michael Stubbs(1995), Collocations and Cultural Connotations of Common Words, *linguistics and education* 7, p.379-390.

Nancy Bonvillai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Prentice Hall. 한국 사회언어학회 엮음(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

회사.

Nunan, D.(2001), Syllabus Design, in M. Celce-Murcia(d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55-65쪽.

Seelye. H. N.(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mpany.

Sohn(1995), Performance-based Principles and Proficiency Criteria for KFL Textbook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6, IAKLE, 76-86쪽.

Scott, V. M., & Huntington, J. A.(2002), Reading Culture : Using Literature to Develop C2 Competence, Foreign Language Annals, 35-2, 622-631쪽.

6.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이 국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는 다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집합 교육이나 방문 교육으로는 다수의 학습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집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들은 방송용 교재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방송 진행을 현지인 교사가 담당하여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및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초기 연구 단계로서 연구 성과물과 경험이 빈약한 실정이므로, 기초 연구 및 교육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를 구축 연구를 1차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급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방송용 교육 방송 제작의 기초 내용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 방송용 교재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연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로서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 이론을 연구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단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파악
-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이론 연구
-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연구
-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요구 조사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수요목 개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실시 방안 연구

2단계 연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초급) 개발’로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방송용 초급(영어판)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2단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초급 교육과정 개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초급 교수요목 개발
- 교재의 집필 방향 및 교육 원리 연구
- 교재의 단원 모형 개발
- 교재 시험 사용본 집필
-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시험 사용
- 한국어 교육 전문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교재 집필 완료

II.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1.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

1.1. 시대적 배경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한국 근대화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산업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산업 현장과 서비스 업에 종사하면서 문화 생활을 즐기게 되고, 농촌에서는 대부분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도시로 올 수 없었던 젊은이들과 노인들만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또한 서울에 올라온 농촌 여성들마저 농촌 총각들과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에서 생활하는 총각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되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족 여성을 비롯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인 남자와의 국제 결혼은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에게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한류 바람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95년 한국의 세계화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동남아 여행을 통해서 한국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잦은 국외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의식이 고양되었으며, 국제화의 바람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하였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제화에 진입한 시대적 변화도 국제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2. 사회 문화적 배경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 국내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이후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이 잦아지고 사회 전반에 형성된 산업화 현상은 젊은 청년들의 사고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시대적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결혼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보다 윤택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의 풍조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 결혼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많은 외국들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큰 몫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 조례와 같은 행정적 지원도 국제 결혼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과 한국인들의 3D 기피 현상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용을 증가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2. 다문화 가정의 실태

2.1. 다문화 가정의 일반 현황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722,686명(2007년 5월 현재)으로 주민 등록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536,627명)보다 34.7%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정부 최초의 공식 통계를 표방한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35.9%(259,805명), 국제 결혼 이주자가 12.2%(87,964명),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6.1%(44,258명)이고, 외국인 중 국적 취득자는 7.5%(54,051명)였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요인을, 행자부에서는 첫째, 지자체 국제 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 결혼 이주자 및 자녀가 46.1%(42,000명), 국적 취득자가 36.8%(15,000명)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외국인(회화 지도, 상사 주재원 등)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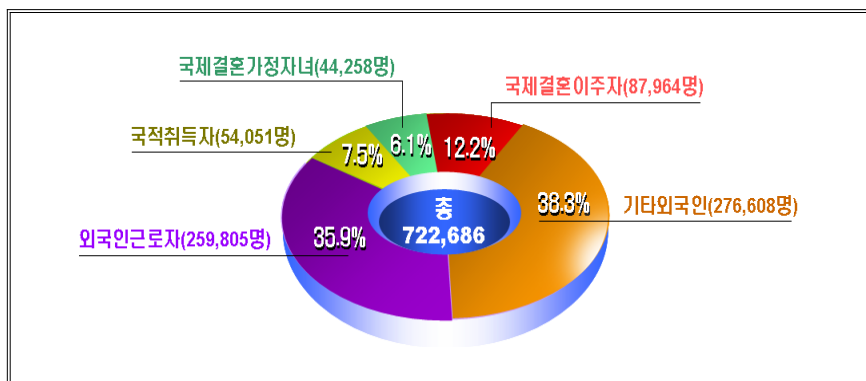
28) 행자부(2007. 8. 2.),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간 : '07.5.14.-6.1.(3주간)

조사대상 :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국적 취득자 및 자녀, 불법 체류자 등 포함)

조사내용 : 조사총괄(시도 시군구). 한국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자, 기타(유학생, 주재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 귀화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소계(남/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기타(혼인 귀화 이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남/여)

〈그림 1〉 유형별 외국인 주민



이들 가운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제 결혼 이주자 및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은 43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6%나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다음 <표 1>에서처럼, 이를 단순히 성별로만 나누어 보면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10%쯤 높았지만 근로자 및 국제 결혼 이주자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비율(70.7%)이 여성 비율(29%)보다 42%로 훨씬 많았으며, 국제 결혼 이주자는 오히려 여성 비율(86%)이 남성 비율(14%)보다 무려 7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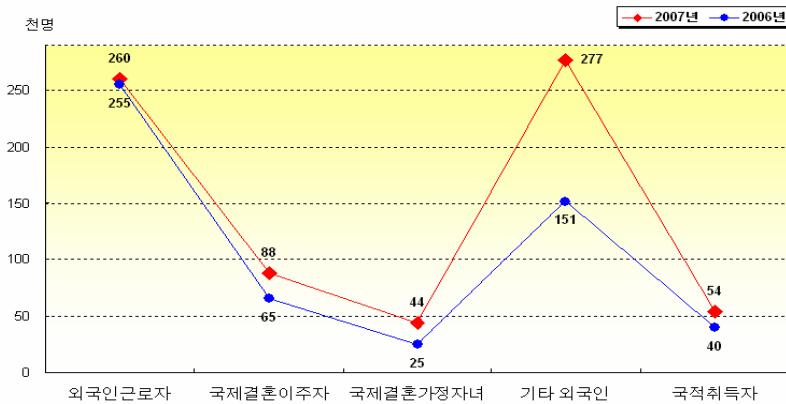
〈표 1〉 성별-유형별 외국인 주민

대비 항목 \ 성 별	남성	여성
성별 외국인 주민	55%	45%
외국인 근로자	약 70.7%	약 29%
국제 결혼 이주자	약 14%	약 86%

남성 이주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 목적이었다면, 여성 이주자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 이주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 <표 2>에서처럼,

2006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약 5,000천 명 증가에 그쳤지만, 국제 결혼 이주자 및 자녀는 각각 23,000명과 19,000명으로 46.1%(42,000명)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유형별 외국인 주민 증가율



이와 같은 변화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진전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 통합 정책 추진 못지않게 국제 결혼 이주자 및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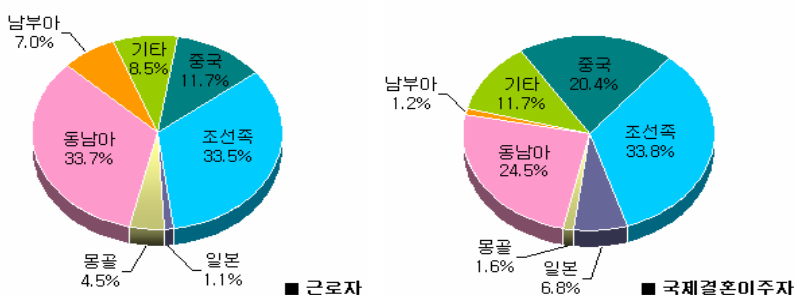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총 724,967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이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자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적별로 중국이 52.4%(379,000명)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 23.7%, 남부아시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이었다.

중국(조선족 36.4% 포함)과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주민의 76.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대비 중국이 6.3%, 동남아시아는

0.7%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는 감소하는 등 특정 국가 출신이 집중적으로 유입·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자는 97.5%가 여성으로서 2006년 12,000명에서 2007년 22,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제 결혼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대부분 동남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국적별 외국인 주민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국제 결혼 이주자의 국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국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유형별-국적별 외국인 주민



〈그림 2〉에서처럼, 중국 국적 조선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국제 결혼 이주자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 이주자가 각각 8.7%와 5.7%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이주 유형에 따른 국적별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았다.

〈표 3〉 유형별-국적별 외국인 주민 비교표(%)

유형 \ 국적	중국		아시아		몽골	일본	기타
	조선족	중국	동남아	남부아			
국제 결혼 이주자	33.8	20.4	24.5	1.2	1.6	6.8	11.7
근로자	33.5	11.7	33.7	7.0	4.5	1.1	8.5

<표 3>에서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문화 지원은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국적 이주민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 이민자와 근로자 모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지만, 일본 국적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 이주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남부아시아 및 몽골 국적 이민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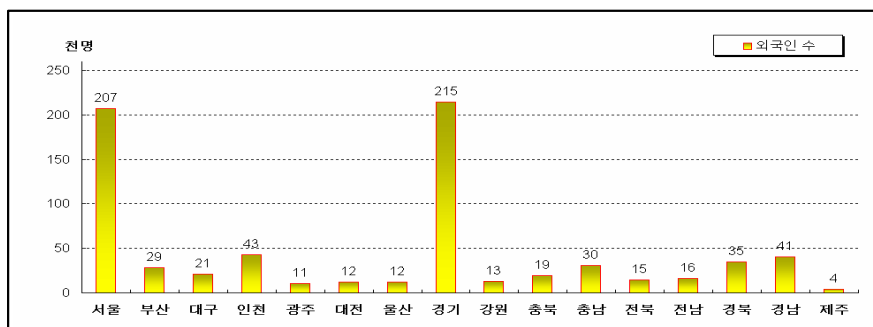
2.3.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분포 현황

(1) 외국인 주민의 지자체별 일반적인 분포 현황

2007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 외국인은 각각 28.7%와 29.7%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58.4%)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64.4%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평균 거주외국인은 약 32,000여 명이었지만 <표 4>에서처럼, 지역에 따라 1~2만 명 정도로 수도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4~5%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부산, 충남, 경남, 경북, 충남, 부산 순이었지만 수도권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지역은 1~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따라서 외국인 지원 센터 및 편의 시설 건립 등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은 외국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만큼, 시·군·구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즉 전체 거주 외국인 주민 대비 2% 이상(15,000명) 되는 거주 지역만을 살펴 본 결과 <표 5>에서처럼 총 253개 시·군·구 가운데 2개 광역시도에 5개 시·군·구에 불과하였으며, 1.5~2% 거주 지역이라고 해도 <표 6>에서처럼 2개 광역시도 9개 시·군·구에 불과하였다. 아래와 같은 14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239개 시·군·구 지역은 0.1~1% 정도의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외국인 주민 시·군·구별 분포(2% 이상)

광역시도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서울	구로구	20,980	2.9%
	영등포구	26,807	3.7%
경기	수원시	16,667	2.3%
	화성시	19,853	2.7%
	안산시	26,715	3.7%

<표 6> 외국이주민 시·군·구별 분포(1% 내외)

광역시도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서울	관악구	13,515	1.9%
	금천구	13,174	1.8%
	용산구	11,667	1.6%
경기	성남시	11,563	1.6%
	고양시	10,177	1.4%
	부천시	12,268	1.7%
	용인시	12,975	1.8%
	시흥시	13,804	1.9%
	김포시	10,535	1.5%

따라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적응 및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마땅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상, 거주 지역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집중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적·산발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방송 통신망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다문화 가정의 특성

3.1.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

한국 다문화 가정의 구성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성연 외, 2006). 첫째,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국제 결혼 가정. 둘째,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전문직업인과 한국여성의 국제 결혼 가정. 셋째,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 가정. 넷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주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이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역사적 배경과 경제 발달 및 사회 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수적으로도 많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셋째와 넷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총 혼인 건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39.7천 건으로 2000년의 12.3천 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43.1천 건보다 3.4천 건(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은 2006년 ‘방문 취업제’ 시행 예고로 중국 교포들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결혼을 통한 한국 입국보다는 정상적인 방문을 통한 취업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결혼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가족 구성원의 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일면을 볼 수 있다.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비율을 살펴보면 총 30.2천 건 중 중국 국적이 14.6천 건(48.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0.1천 건(33.5%), 일본이 1.5천 건으로(4.9%) 중국, 베트남 여자가 8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 베트남의 참전을 통한 역사적 배경, 한류의 영향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5세로 2000년(6.7세)보다 4.8세 높아졌으며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4세)보다 약 4.8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3.2. 생활 적응 방식의 특성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장벽부터 음식, 가족관계, 생활예절, 사회제도, 기후 등 생활전반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언어 적응방식과 생활 적응방식에 대한 특성을 현장 사례 보고서²⁹⁾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 적응 방식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은 중국의 조선족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제2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처음에는 몸짓이나 수신호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전을 사용하여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주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정규과정을 거쳐 한국어

29) 왕한석 외(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를 배운 외국인인은 거의 없다. 특히 남편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 외국인 아내의 한국어 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형편도 못 된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처음에는 몸짓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다가 생활 주변의 물건들에 대한 명칭부터 생활 어휘를 익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인의 한국어 학습은 어린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성인 학습자로서 사전에 사용하여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화 중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사전에도 없어 생활 현장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남편이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주위에 한국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이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한다 해도 청자가 사회 언어적·감각적으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화자는 정확하게 교정이 되지 않은 비문법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는 표준어 혹은 지방의 방언과도 다른 특수 언어로 구분된다고 해도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은 그들 언어의 모국어 간섭 현상을 받는데다가 한국 각 지방의 방언과 뒤섞여 어순이나 어휘 선택 등 표현방식에서 더욱 복잡한 한국어가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의 한국어 적응방식은 생활 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생활 적응 방식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생활 적응은 그 가정의 가풍과 직접 연결되며 남편, 시어머니, 친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적응은 이웃과 인간관계, 시장에서 물건사기, 공공 기관 활용, 은행 활용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인은 국적도 다양하고 결혼 동기도 다양하여 한국 생활 적

응방식에서도 다양하다. 한 예로 중국 조선족 여성 중에는 남편에게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사상을 내세워 아내만 남편에게 존칭어를 사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이주 여성은 대부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생활방식을 따라서 하게 된다. 음식 요리나 가정생활 방식은 그 가정의 전통적 관습을 따르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남편이 요리하는 방법이나 가정 살림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주위의 또래 아주머니들에게서 가족관계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기도 한다. 결혼 초기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의 한계도 있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동안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여성인 며느리가 한국어를 익히고 나면 국적을 취득해 가출할 것을 염려하여 한국어를 의도적으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도 있어서 외국인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정보 차단과 경계심 속에서 사회적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방식은 현장에서 생활하며 적응해 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생활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과 이주 여성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 사람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방향 및 방송 매체의 활용

1.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1.1. 개인·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구성원 간의 사회통합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다문화 가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5년 5월, 외국인 이주 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 회의와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다방면으로 간구해왔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인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및 이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 요건이며, 새로운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기본 수단이기도 하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정생활(남편, 시부모와의 대화), 자녀 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주 노동자는 직장생활(동료, 상사와의 대화, 작업 성취)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농촌 총각의 결혼 대상자로, 3D 업종의 종사자로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가, 사회는 이들 이주민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국민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공통의 언어(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로써 국민간의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단일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정부가 중대 과제로 삼는 다문화 사회 통합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래 사회에 다문화 구성원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김혜동(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결혼 이주민 문제는 언어의 문제, 문화적 갈등, 가정폭력, 빈곤의 문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갈등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이민자 초기 정착 프로그램으로 거주국 오리엔테이션, 취업훈련과 함께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과 방법이며,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학계 차원에서의 의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5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한국어 교육계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수반하였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의 수와 폭을 놀라울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대학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은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자나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도 NGO 단체 중심으로 전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규모와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의 영역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 하에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³⁰⁾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이주민 자녀들을 한국어 교육의 적극적인 학습자 집단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 집단은 명확하게 확대될 것이다.

둘째, 교육 대상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주체도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학계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기존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 교육은 대학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담당할 것과 달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정부가 주

30) <그림 1> 유형별 외국인 주민 통계자료 참조

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 교육기관 중 일부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자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책 수립의 전문가로서, 연구 프로젝트 수행자로서 위치하게 된다.³¹⁾

셋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와 학습 목적, 동기가 다르므로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나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원히 한국 사회에 거주하려는 자들로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학계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성인에서 청소년, 아동으로까지 연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영역의 다양화, 세분화를 의미한다.

넷째,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과 국내 한국어 교육이 연계선 상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해 주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외 세종학당 설립은 국외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국내로 유입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국내 유입 이후에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우선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 한국어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 내용, 평가 등을 공유하며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교육 학계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31)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2005년~2007년 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는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왔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 사업은 크게 교재 연구, 교사 교육, 학습자 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자녀(2세)로 세분화 할 수 있다.

2.1. 교재 및 기초 연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기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 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2005, 국립국어원)
-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요구 조사(2005, 한국어세계화재단)
-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2006,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문제의 주요 원인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차원의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조치 연구
-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2006,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 다문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 참고자료(상담 기법, 상담 사례 등), 학교생활 안내 리플릿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07,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처한 상황이 특수하며, 한국어 교육계를 비롯한 학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방면에서의 기초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교재 개발 연구는 기초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까지 본 연구를 포함하여 10편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현재 교재로 제작되어 활용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이다.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 2)(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2005, 여성가족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³²⁾
-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2006, 교육인적자원부)
-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 (2006, 충청북도 교육청)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2007,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
-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2007, 농림부)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1, 2, 3)(2008, 교육인적자원부)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초급) (2008, 국립국어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재 중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32) 여성가족부 용역사업으로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에서 수행함

가장 많으며,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재 1종,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재³³⁾ 1종이 있다. 각각의 교재는 여성가족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등 다양한 부처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출판한 일반 어학연수생을 위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재의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2. 교사 자격 및 교육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은 사업 시행자나 교육을 담당자 모두에게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7>의 내용을 보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겠으나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사의 자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선발 조건으로는 전공자와 교원양성과정 수료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명명되는 교사들이 모두 실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전문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7〉 결혼 이주 여성 교육 기관별 교사 현황³⁴⁾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인원	4명	4명	7명	10명
선발기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중 여성	경력자, 한국어 교육 전공자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수료자,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

33)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재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는 2008년에 취학전 아동용, 저학년용, 고학년용 3권이 출판될 예정이다.

34) 이순애(2007: 30)에서 조사한 교육 기관별 한국어 교사 현황을 재인용함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강사, 창의적인 교과 내용과 수업운영을 할 수 있는 강사, 한국어 수업 외에 생활적인 상담이 가능한 강사	조건을 우선	한국어 교육관련 석사과정	이수자, 봉사자 여성 결혼 이민자에 관심 있는 자
성비		여성100%	여성 100%	여 100%	여성 : 9명, 남성 : 1명
직업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사회복지사, 대학원생	직장인, 주부, 대학원생	교사 및 자원 봉사자
연령		20대~40대	평균 30대 초반	20대~50대	20대(1명), 30대(7명), 40대(2명)
교사 교육	기본 교육	없음	교육목적 이해, 여성 결혼 이민자 이해 등	개강 전 교사 OT	자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운영 • 10주 강의 : 매주 금요일(14:00~ 16:00)진행 • 3개월간 참관 수업
	재 교육	없음	평가회를 포함한 자체 보수교육	학기 중 전문성 강화 교육(강의)	없음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나 교육 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교사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사 교육을 지원해 왔다.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보급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시행 사업 중 교사 교육 및 공급에 대한 부분은 세계화재단 사업을 통해 실시하거나 국어상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에

농림부는 다문화 가정 교원양성과정을 방송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각 부처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담당 자원봉사자 교육은 주로 한국어 이론, 한국어 교수 이론, 한국 문화, 이주 여성 상담 등으로 구성되는데, 표준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관에 따라 교과목과 시간수를 임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A기관은 30시간, B기관은 60시간, C기관은 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목 구성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교사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고 심화된 연수가 사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교수법 지도 등에서 일반 교사 교육과 내용에서 차이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8〉 이주민 교육 담당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사 교육의 교과목 구성의 예

교 과 목		
A 기관(30시간)	B 기관(60시간)	C 기관(40시간)
한국 이민자 현황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문화의 충돌과 갈등의 이해(2) ³⁵⁾
한글 자모 교육	한국어 필수 어휘(1,000개)	이주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2)
한국어 문법 교수법	한국어 필수 문형(10개)	이주민의 현황과 대책(2)
한국어 말하기·듣기 교수법	문자와 발음 교육	이주민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이해 1(2)
한국어 읽기·쓰기 교수법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이주민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이해 2(2)
한국 문화 교육	듣기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2)
이주민 상담 교육	읽기 교수법	한국어 발음교육 1(2)
이주민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문법 교수법	한국어 발음교육 2(2)
교재 구성 및 사용법	대화의 기법(비폭력대화)	요소 교육론1(어휘)(2)
	한국의 사회의 이해	요소 교육론2(문법)(2)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의 이해	기능 교육론 1(읽기, 쓰기)(2)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방안	기능 교육론 2(말하기, 듣기)(2)
	이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 제작 및 활용법(2)
	이주민 생활 정보 가이드	한국 문화 교육론(2)
	과제의 유형과 체크	대조언어학(2)
	교재 사용의 실례	한국어수업의 실제1~5(10)

2.3. 교육 실시

(1) 결혼 이주 여성 교육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이나 공통 교재, 의무 교육이 없이 교육 실시 기관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부처는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중 교단체도 위탁의 형식으로 또는 자체 운영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은 EBS와 2006년 5월 MOU를 체결한 이래, 2006년 6월에 16주 과정으로 한국어 기초회화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를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EBS 플러스 2를 통해 방송하였다. 이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25주간 한국어 중급과정을 방송한다. 한국어 중급과정은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의 3개 국어로 방송된다.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해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 교실 한국어 교육(초급, 중급, 고급)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21개의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인 운영기관(기초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이주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활동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확대하여 전국 40여개의 센터를 운영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35) 괄호 안의 수는 시간 수를 나타냄

36) 여성가족부(2006b) 참조

- 사업 내용 : 교육 사업은 한국어, 문화, 가족, 정보화, 직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국어 분야는 ‘한국어교실, 한국어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모듬 교육,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이 있다.
- 교육 형태 : 방문 교육(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파견) 집합 교육(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나 국적별로 구분)

농림부는 요리강습, 문화교육, 생활예절 등과 함께 한국어 교육 실시하였다.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방문 교육 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농림부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가족부로 통합될 계획이다.

- 사업 규모 : 전국 30시군에 실시
- 도우미 운영 인원 : 300명(1인이 3가정 담당 주3회씩 5개월 간)
- 도우미 모집 및 교육 : 지역 자원봉사자, 퇴직 교사, 공무원, 농협 직원 및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모집하여 한국어 교수법, 상담 및 면접 기법 등 기본 교육을 마친 후에 활동 시작

(2) 이주 노동자 교육³⁷⁾

이주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1년의 연수 기간을 거친 후 연수 취업 자격을 획득하여 2년 동안 노동자로 체류하는 경우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로 들어와 체류하는 경우로 나뉜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든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든 이주 노동자는 세 번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갖는다. 첫 번째는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연수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 전 연수과정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경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

37) 이주 노동자 교육은 조항록(2007, 53~55)에서 요약 발췌하였다.

비한 한국어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³⁸⁾ 두 번째는 국내 적응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³⁹⁾ 세 번째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교육은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이 주를 이룬다. 정부 기관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은 2005~2006에 걸쳐 경기도 시흥, 안산,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등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지역 단체의 한국어교실을 지원하였다.

(3) 다문화 가정 2세 교육

다문화 가정 2세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교육부에서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자녀 교육 연구 및 교사 연수의 체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8) 입국 전 현지 한국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연수생 : 총 150시간의 사전 교육 중 한국어 교육은 80시간(한글입문 10시간, 일상생활 관련 60시간, 인사와 자기소개 10시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자 : 사전 취업 교육에 약 15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포함됨

39) 입국 후 취업 교육은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박 3일의 국내 취업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은 3~4시간 정도임

〈표 9〉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사업⁴⁰⁾

명칭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추진 목적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및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국제 결혼 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주요 내용	• 시·도 단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활성화 - KSL반 및 특별 학급 운영 - 연구 학교 운영 - 교사 역량 강화 -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다문화 교육 센터 설치

3.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

3.1.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방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해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계의 전문인, 학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교육과정의 수립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은 기본이 되는 표준 교육과정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습자의 환경, 학습 목적 등이 다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40) 교육부(2007) 참조

운영할 필요가 있겠으나 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학습자에게 권장하는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필수 학습 단계는 무엇이며, 정부는 어느 단계까지의 학습을 권장하고 의무화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할 필요하다.

재외동포신문 2008년 1월 3일자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는 국제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방법을 포함한 사회통합 정책을 2009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를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30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한국어 교육 600시간, 한국 문화 이해 교육 30시간 등 총 630시간을 교육 받은 후 수료증을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표준 교육과정이 정비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정례이나, 현 상황에서는 사회통합 이수제가 실시됨으로써 거꾸로 표준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표준 교육 자료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문 연구 기관이 교육 연구, 교육 자료 개발, 교사 교육 등을 담당

다문화 가정의 정책 추진이 범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므로, 한국어 교육 연구 및 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관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국립국어원)에서 연구 및 교사 교육 등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기초 연구, 교재 개발 등) 및 교육 실시, 교사 양성이 일관성을 갖고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전문 연구 기관은 연구를 총괄하고, 결과물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교사 양성 및 활용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현재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각 단체에서 교사 재교육 및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교육 자료 개발 등 선행되어야 할 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장기적인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 양성, 인증, 채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방안

(1) 장기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직면한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역할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연구, 정책 수행을 정부의 각 부처별, 지자체, 민간 단체가 함께 관여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 과제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2005~2007년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정부가 거시적인 계획이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 없이 부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한 데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분담을 이루어져야 하며,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⁴¹⁾

41)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며, 점차 분담화 되고 있다. 한 예로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국감요구(결혼 이민자) 자료 ‘국제 결혼 관련 통계 및 사업 추진 현황’에 의하면 여성부와 농림부의 중복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조정방안(07년 3월)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설계되었다고 해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어 교육 이후에 이주 여성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가족들의 거부감이 크므로 이탈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가족의 협조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부담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실시에 대한 장애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교육 및 지원은 언어와 문화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기적으로도 국내에 유입 전, 유입 초기(정착 초기), 유입 후 장기적인 기간으로 분리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 근로자 이외에도 학교 교육을 통해 2세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국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효율적, 체계적인 교육 실시 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서 장기 체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수십 년을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학습을 단순히 사회 적응을 위한 수단이나 문화 학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연속적인 교육, 교수법이 부재한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이 부재한 언어 문화 통합교육 등의 접근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집합 교육, 방송 교육,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시스템을 점검,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에서 방송 매체의 활용

4.1. 방송 매체 활용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은 크게 집합 교육, 방송 교육, 온라인 교육, 방문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은 대부분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도시와 농촌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생활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문 교육은 학습자의 상황, 한국어 능력에 맞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컴퓨터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컴퓨터 활용 교육도 사회 적응 교육에 포함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볼 때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여건 상 가장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가지 교육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려우므로, 1~2개의 교육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시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는 주 1~2회 집합 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 방송으로 독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습자는 교육 방송을 통해 독습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주 1회 정도 집합 교육에 참여하여 보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 여건 이외에 교사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도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심각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변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합 교육으로 초급 학습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에만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한 현재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고려 없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오류를 예측하며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학습자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방송 매체 활용의 기대 효과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 분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합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이에 방송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거주 지역, 개인 상황에 관계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로써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문제점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부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참여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교육 방송 자료는 DVD 형태로 집합 교육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교육과 집합 교육이 교육 내용, 교수법 등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육 방송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현장 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수 방법을 안내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초기 한국어 학습의 지루함을 덜어주며, 학습 동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언어권별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쉽고 정확하게 한국어를 학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IV.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특성

교육 방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교육의 중요한 형태로 부상한 원격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 매체는 대중화된 원격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텔레비전을 통해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방송 매체가 갖는 교육적 특성 중에서도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과 관계없이 대량의 교육이 가능하며 누구나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이는 인쇄 매체가 가진 지면의 한정, 구입의 한계 등을 극복하게 해 주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하는 집합 교육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텔레비전 방송은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영상 화면에 정확하게 발화하는 한국어 화자가 등장할 경우, 학습자가 발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비언어적 행위까지 볼 수 있어 들은 말의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진다.

셋째,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하기 용이하다.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실제적(Authentic) 자료의 사용이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따라 실제 교실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언어 교사가 주 진행자가 되고, 외국인 학습자가 보조 진행자로 출연하는 경우, 시청자가 출연한 외국인 학습자에 대해 동질감을 느껴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주 진행자인 교사와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실 상황과 유사한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청자가 교실 학습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방송의 오락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방송에 TV 고유의 오락적 기능인 노래, 춤, 연기 등을 가미한다면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며 주의를 집중해 공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 중에도 한국 대중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방송의 오락 기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지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2.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갖는 교수·학습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유태영 외 1988:33~34).

첫째, 방송 프로그램이 학습 시간 전체 구조 속의 일부로서 교사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 둘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교사에게 새로운 교재와 풍부한 실례,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 셋째, 일정 시간 수업의 전부를 방송에 의존하여 시청자가 다른 도움 없이 방송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하는 직접 교수, 넷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맡아 재조직하여 그 교과목의 학습을 전적으로 구성하는 일관된 전체 수업이다.

이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은 시청자가 방송을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 교수 유형, 교육과정 전체를 조직하여 일관된 전체 수업을 구성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만으로 독자적인 학습이 가능해야 하며, 기초 단계에서 최종 목표 단계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해 일관된 전체 수업의 구조를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⁴²⁾ 하지만 그러한 유형으로 개발된 방송 프로그램이면서도 이주 여성한국어 교육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부대 효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방송을 통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 방송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방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1) 교육 대상

교육 방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명확한 학습자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맞게 조직화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 학습에서는 명확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목표 설정 및 교육 내용의 조직화가 어려워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대상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경계가 뚜렷한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언어권, 도시와 농촌 거주, 연령, 학력 등 다양한 변인을 가지고 있어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제작하게 되면 다양한 특정 학습자 대상

42)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교육 목표의 명세화,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므로 대상 학습자의 요구와 목표를 반영하여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 변인, 즉 학습자 집단 간의 경계가 뚜렷한 변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결혼 이주 여성 집단의 변인 중에서 집단 간의 경계를 가장 뚜렷하게 구별 짓는 변인은 학습자의 모어와 숙달도이므로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대상을 한정하고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등급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모어가 아닌 한국어나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학습의 내용보다 진행 언어가 더 어려워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학습자 언어권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진다. 제작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인구 비중이 높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한 다수의 학습자 언어권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시리즈의 누적 학습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효과를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전체를 마치 일관된 전체 수업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전에 대상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도록 교육 목표를 명세화하고 교수 요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혼 이주 여성 초급 학습자가 교육 대상이라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 요목을 설계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교수법

최근 언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수법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목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구조 중심으로 설정된 목표 예문을 듣고 따라하게 하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진행자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주로 해당 외국어 사용자 또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표 문법과 어휘를 학습자의 모어로 번역하여 교수하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과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무조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습자의 요구, 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실제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방송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부딪히기 쉬운 초급의 의사소통 상황 과제를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 주고, 스튜디오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목표 언어를 학습한 후, 외국인 학습자가 직접 유사한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문법 등의 언어 학습을 고려하면서도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송 프로그램 구성

방송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시리즈의 누적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교육과정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편의 구성이 형식적 완결성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모든 프로그램은 ‘도입-전개-마무리’의 기본 구조를 지켜야 하며, 전개 과정에 목표 교수·학습 내용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 목표 중심의 수업 진행과 아울러 관련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습 내용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비디오 클립 형식으로 추가한다면, 현실감 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쌍방향 학습

언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때

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쌍방향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쌍방향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우선 고려할 사항은 학습자의 선택권,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공중파 방송은 일정한 시간에만 방영되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본방송 외에 정기적인 재방영 시간을 미리 계획하여 안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VOD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의 웹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학습 내용 문의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방송 내용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청자가 외국인 초급 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설계해야만 학습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한다.

(6) 학습 지원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려면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방송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는 순간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청자에게 학습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소홀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쇄된 방송 교재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방송 교재를 가지고 예습 또는 복습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스스로 학습의 준비를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학습 관리와 지원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 의도, 방영 내용의 요약, 다시 보기, 시청자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VOD를 통해 학습자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다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진도 관리, 질의응답 게시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습 지원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1.4.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1) 프로그램 개발 현황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은 1995년 EBS TV의 <Let's learn Korean>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EBS PLUS 2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까지 총 7편이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현황을 각각 최초 방송이 시작된 연도 기준 순으로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시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0〉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 (편성 시간, 방송 시간, 방송 기간)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기간 ⁴³⁾
EBS	Let's learn Korean				1995.9.~1996.3.
아리랑 TV	Let's speak Korean	영어 영어 영어	월~금 07:20 / 11:50 / 14:20 / 20:50	10분	1999.4.~1999.9. 2004.1.~2004.7. 2004.7.~2007.10.
KBS WORLD	한국어로 말합시다.	한국어 한국어	월~금 11:45 토~일 21:50	10분	2003.6.~2003.12. 2004.1.~2004.5.
EBS	Hello! 안녕하세요.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월~금 06:00 (PLUS2) 월~금 04:00	10분	2004.8.~2005.2. 2005.2.~2005.4. 2005.4.~2005.8.
EBS	한국말 쉬워요.	한국어 한국어	토 06:40	20분	2006.9.~2006.12. 2007.3.~2007.8.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 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목 06:00 금 06:00	30분	2007.6.~2007.10.
EBS PLUS 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30분	2007.11.~2008.5.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육 방송인 EBS가 가장 여러 차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방송 기간은 5개월, 6개월, 7개월이 많아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국 전체의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신설, 중영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편성 시간 역시 방송국의 시청률 중심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KBS WORLD의 <한국어로 말합시다>와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를 제외한 EBS의 모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편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벽 시간대의 편성은 외국인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에서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회분의 방송 시간은 매일 방영된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 KBS WORLD의 <한국어로 말합시다>, EBS의 <Hello! 안녕하세요>는 10분씩이고, 주 1회 편성된 EBS의 <한국말 쉬워요>는 20분, EBS PLUS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각각 30분이 소요된다. EBS PLUS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학습자 언어권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학습자 입장에게는 주 1회 편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30분간 방영되지만, 학습 시간 자체는 10분씩 5일 간 진행된 프로그램들에 비해 더 적어지게 된다.

각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아나운서, 개그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외국인 학습자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자 한 명 또는 두 명이 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진행자의 특성을 방송인(아나운서, 연예인 등의 전문 방송인 포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해당 언어학 및 외국어 교육 전공자 포함), 외국인으로 나누

43) 방송 기간은 본 방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BS <한국말 쉬워요>는 2007년 9월부터,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는 2007년 11월부터 재방영하였으나, 위의 표에 재방영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다.

고, 출연한 학습자의 언어권과 함께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 (진행자 특성, 학습자 출연)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진행자 특성	학습자 출연
EBS	Let's learn Korean			
아리랑 TV	Let's speak Korean	영어 영어 영어	방송인(안착희, 지승현) 방송인(Lisa Kelly, Sthphen Revere) 방송인(Lisa Kelly, 김영)	영어권
KBS WORLD	한국어로 말합니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교육(한송화), 방송인(김기만) 한국어 교육(장은아), 방송인(김기만)	영어권, 일본어권
EBS	Hello! 안녕하세요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교육(장은아), 외국인(Richard Harris) 외국인(Beau Jackson), 방송인(최현정) 한국어 교육(장은아), 외국인(Richard Harris)	없음
EBS	한국말 쉬워요	한국어 한국어	방송인(전양혜), 한국어 교육(이미혜) 방송인(이동우)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 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외국인(호티롱안) 외국어전문가(정환승) 외국어전문가(고영훈) 외국인(자르갈마) 외국어전문가(이성민)	없음
EBS PLUS 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외국인(왕단) 외국인(호티롱안) 외국인(타찌아나 리)	없음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행을 원만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한편, 시청하는 학습자에게 언어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자가 더 효과적인지 사전 요구 조사 및 사후 평가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출연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되면서 동료 의식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틀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분석 기준 및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언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분석 기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자체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적 측면’보다는 ‘방송을 통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기준을 활용하고, ‘언어 교육적 측면’보다는 ‘언어 교수·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2〉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분석 기준	분석 내용
미디어 제작자	누가 텍스트를 만드는가? 미디어 제작자는 어떠한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미디어의 구성	어떤 형식의 텍스트(스튜디오 강의, 애니메이션, 비디오클립 등)가 사용되는가? 프로그램은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이용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테크놀로지의 차이는 텍스트의 의미에 어떠한 특색을 가져오는가?
미디어의 언어	텍스트가 가진 의미는 대상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음성이나 시각 효과, 어떠한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가?
미디어의 대상	누구를 향해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가? 대상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미디어의 현실 구성	미디어 텍스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표 13〉 언어 교수·학습 자료 분석 틀(교수-학습 상황 분석)

분석 기준	분석 내용
교사	한국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학습자	학습자의 언어권, 숙달도는 어떠한가? 학습자의 학습 목적은 무엇인가? 학습자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주요 상황은 어디인가?

〈표 14〉 언어 교수·학습 자료 분석 틀(외적 분석)

분석 기준	분석 내용
접근성	학습자가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다른 매체(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VOD 등)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
학습 지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방송 교재 또는 연습 자료를 제공하는가? 학습 관리 체계를 제공하는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있는가?

〈표 15〉 언어 교수·학습 자료 분석(내적 분석)

분석 기준	분석 내용
교육 목표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가? 교육 대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 목표에 대상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교육 원리	교수·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어떤 언어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학습 내용	주제 및 소재가 적절한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문법·어휘·발음·화용 등 언어 내용이 적절한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문화 학습 내용이 적절한가? 성·인종·계층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
학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학습이 고르게 이루어지는가? 특정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는가?
학습 평가 및 피드백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연습 및 평가가 제공되는가?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가?

(3) 분석 결과

지금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EBS의 <한국말 쉬워요>, EBS PLUS 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총 세 편이지만 지면 관계상 본 자료에는 EBS <한국말 쉬워요>만 포함하고

자 한다.

국립국어원과 EBS가 공동 제작한 <한국말 쉬워요>는 국내 최초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전에 개발된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외국인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어 교육 방송 역사에서 최초로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가. 미디어 제작자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의 끝에 제시된 제작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제작자 및 제작 의도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획 : EBS
- 제작 : 주몽 (제작 지원 : 방송위원회 방송 발전 기금)
- 제작진
 - 책임 프로듀서 : 김현
 - 진행 : 이동우
- 제작 방향
 -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격 한국어 회화 교육 프로그램
 -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방송
 -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거의 구사할 수 없는 인구학적 조사에 의거,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독특한 문화와 어법을 쉽게 풀이

이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용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텍스트 개발자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제작진으로 명기된 진행자는 코미디언으로서 재치 있는 진행 능력을 발휘하지만, 학습자의 수

준과 목표로 설정한 학습 내용의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과 대화하듯이 빠른 속도로 발화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다는 제작 방향과 잘 맞지 않는다. 외국인 학습자로 출연한 일본인 학습자(한국 거주 12년), 러시아인 학습자(한국 거주 3년, 1~10회 출연), 루마니아인 학습자(한국 거주 13년, 11회부터 출연)는 중급 또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이다.



나. 미디어의 구성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텍스트 형식으로는 크게 스튜디오 강의, 비디오 클립, 자막이 사용된다. 주로 스튜디오 진행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도입 단계에서 목표 상황을 제시하는 비디오클립, 제시와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비디오 클립, 후반부에서 궁금증 사연이라는 비디오 클립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걸쳐 진행자의 발화, 목표 문장, 외국인의 발화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막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 표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구성

단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내용을 사용된 텍스트 형식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⁴⁴⁾

〈표 16〉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및 내용

구성	내용
도입	• 진행자가 인사한 후 학습자를 소개한다.
제시	• ‘비디오 클립’으로 성우의 설명과 함께 목표 의사소통 상황을 보여준다. • 진행자가 목표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알려 주고 학습자들에게 따라하게 한다.
연습	• ‘비디오 클립’으로 목표 문장을 여성 결혼 이민자가 잘못 쓴 것을 제시, 수정해 준 후 따라하게 한다. • 진행자가 목표 문법의 의미를 설명한 후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법을 사용한 발화를 유도한다. • 진행자가 목표 상황과 관련하여 어휘를 확장한다. 응용 표현을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대답 후 따라하게 한다. • 진행자가 여러 응용 표현에 대해 학습자 두 사람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한다.
궁금증 사연	• ‘비디오 클립’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가 출연하여 궁금한 관용 표현을 읽는다. • 스튜디오의 학습자가 의미를 설명한 후 진행자가 부연 설명을 한다.
마무리	• 화면에 목표 문장, 응용 문장이 제시되며 성우가 읽어 준다. • 진행자가 그날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학습 목표와 관련된 게임을 제안한다. • 진행자가 그날 배운 문장들을 말하고, 학습자가 따라하며 마무리한다.

다.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 공지사항, 시청자 게시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지사항에서는 주요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알게 해 준다. 시청자게시판은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그나마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글을 남기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실제 대상인 결혼 이주 여성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VOD 다시 보기 동영상은 5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학습자가 속도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44) 프로그램 구성을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2007년 4월 15일에 본 방송이 방영된 ‘제7회 검은색 바지를 사고 싶어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라. 미디어의 언어

목표 언어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수준이 초급인 데 비해 진행자의 발화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목표 문법의 형태, 목표 문장 및 응용 문장, 그리고 의미 설명은 자막으로 모두 제공되어 학습자가 들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 미디어의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거의 구사할 수 없는 인구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초급 수준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표 문법 및 표현을 초급 수준으로 설정한 것에 비해 진행자와 출연한 외국인 학습자의 발화 수준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상 시청자와 진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마. 미디어의 현실 구성

도입부의 비디오 클립을 통해 학습 목표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게 하고, 후반부의 궁금증 사연에서도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가족의 상황에서 제시하고 있어, 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에 토대를 두고 실제적인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한국인 진행자가 일본인 학습자, 러시아인 학습자(후반부 루마니아인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나라에 관련된 개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다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학습자의 국적이 일본, 러시아, 루마니아 등으로 한정되어 실제로 인구 비중이 증가해 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2) 언어 교수-학습 자료 분석 틀

가. 교수-학습 상황 분석

진행자는 한국어가 모어인 방송인(코미디언)으로서 한국어에는 능숙하나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다. 목표 수준이 초급 단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어휘 선택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시청하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의 초급 결혼 이주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거주지, 언어권 등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한국어 표현교육을 목표로 하며, 가정, 쇼핑, 교통, 관공서 등 학습자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나. 외적 분석

① 접근성

방송 편성 시간이 토요일 오전 새벽 6시 4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방송을 시청하기 용이하지 않다. 실제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방송 시간의 조정을 원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시청자들이 편성 시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BS 홈페이지(<http://www.ebs.co.kr>)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VOD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 가입 후 무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② 학습 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방송 교재, 연습 자료 등의 학습 자료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⁴⁵⁾ 또 웹 서비스를

45)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의 경우에는 방송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 교재를 출판한 바 있다.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속 회원의 진도 관리, 학습 독려 등이 가능한 별도의 학습관리시스템은 없으며,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 시청자게시판을 마련해 놓았으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내적 분석

① 교육 목표

홈페이지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설정은 결혼 이주 여성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교육 원리

교수·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각 강의 도입부에서 목표 상황을 제시한 후 목표 문법을 제시하여 연습하는 진행 방식을 볼 때 주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위주로 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 진행의 주요 방식은 목표 문장 및 응용 문장을 교사가 먼저 읽고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 기반을 둔 수업 진행으로 판단된다.

③ 학습 내용

총 26회로 구성된 강의의 목차를 바탕으로 다루어진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초급 학습자가 요구하는 일상생활 중심, 상황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격, 시간, 위치, 일과’와 같은 개념, ‘증상 표현하기, 약속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것도 나타난다.

문법 학습은 주로 초급 수준의 목표 문법을 사용한 문장 단위의 학습을 위주로 하며, 목표 문장에서 사용한 어휘와 관련된 확장을 통해 목표 문장의 응용 표현

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 진행자가 발음을 지적하여 다시 따라하게 하지만, 체계적인 발음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용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궁금증 사연’이라는 비디오클립을 통해 관용 표현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진행자가 외국인 학습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획된 문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학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활동이 따로 제시되지 않으며, 목표 문장 읽기, 따라 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주로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비디오 클립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가 잘못 쓴 목표 문장을 교정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형태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 활동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쓰기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진행자와 학습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학습 평가 및 피드백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연습은 진행 과정에서 간단히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연습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학습자의 발화가 잘못되었을 경우, 주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는 경우에 진행자가 수정 발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제공된다.

(4) 시사점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언어권별 차이, 도시/농촌 거주자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는 언어 교수법의 주요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계적인 문법 연습 위주의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부딪히기 쉬운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한 문법과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텍스트 개발 및 강의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 언어권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외국인이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부에 시청자의 역할 모델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를 출연시키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쌍방향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 중에 VOD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각 홈페이지의 메뉴를 대상 학습자의 언어권에 맞게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 시간에 시청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이 다시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쇄 교재로도 발간하여, 학습자들이 방송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2.1. 요구 조사 방법 및 내용

(1) 요구 조사 대상 및 방법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다

문화 가정 구성원 중 방송 매체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삼았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를 택하였다.

- 조사 대상 : 포천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한국어 학습자 56명(중국 15명, 베트남 18명, 러시아 13명, 필리핀 10명)
포천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강생 19명
- 조사 시기 : 2007년 12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학습자용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실시함)

(2) 요구 조사 내용

교사용 설문지는 크게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항목은 ①교육 현장 정보 ②교사 개인 정보 ③현재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평가 ④현재 방영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⑤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⑥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⑦한국어 교육 방송의 구성 ⑧ 한국어 교육 방송 편성 및 부가 서비스이다.

학습자용 설문지는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항목은 ①개인 정보 ②한국어 학습 정보 ③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④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⑤한국어 교육 방송 실시이다.

2.2 요구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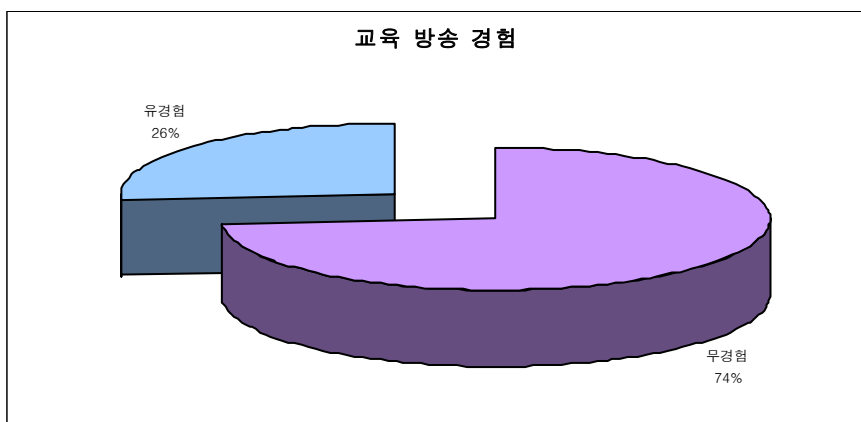
(1)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중 교육 방송을 경험해 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림 3>과 같이 경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74%, 경험해 봤다는 답변이 26%를 차지했다. 교육 방송을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시간이 없어서’가 35%, ‘교육 방송을 몰라서’가 30%,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20%를 차지했다. 이 조사 결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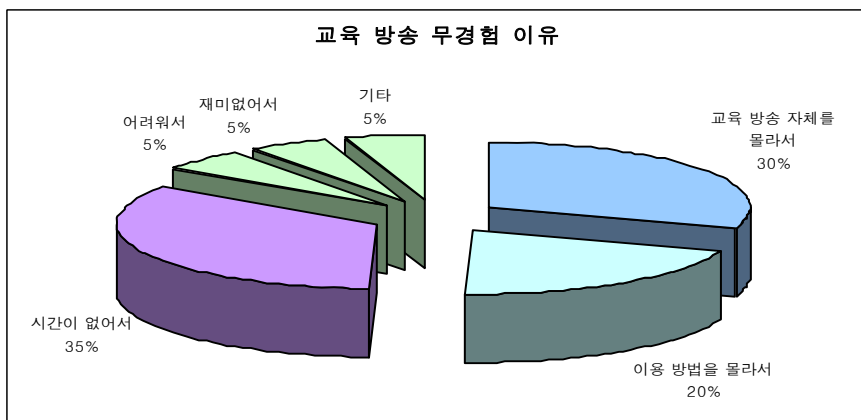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의 많은 수가 교육 방송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림 5>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59%, ‘조금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23%로 80%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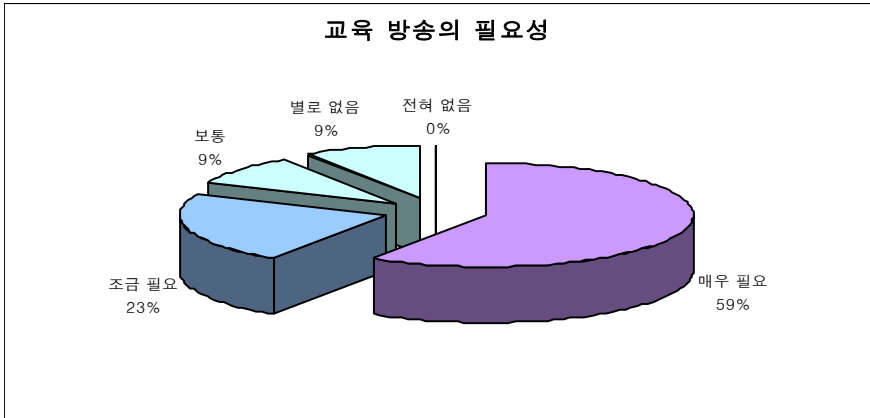
<그림 3> 교육 방송 경험



<그림 4> 교육 방송 무경험 이유



〈그림 5〉 교육 방송의 필요성



(2)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에 대한 정보⁴⁶⁾를 얻기 위하여 언어 기능, 언어 범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 문법과 표현이 26.2%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했으며, 발음 19.4%, 읽기와 쓰기 19%, 말하기와 듣기 16.7%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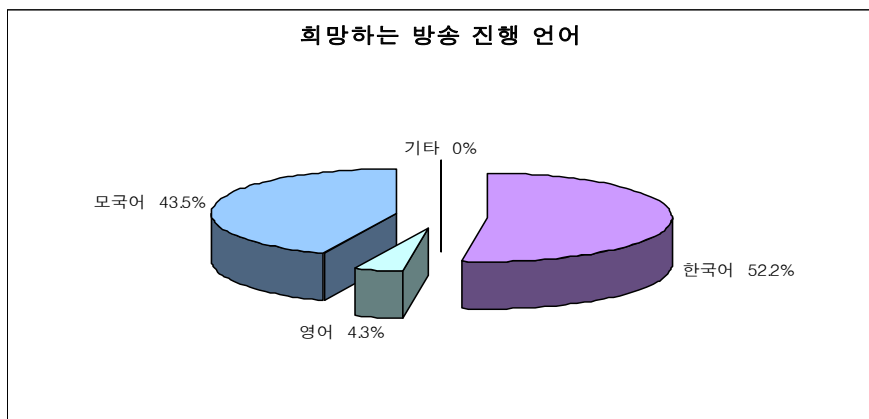
교육 방송의 대화를 구성할 때는 실생활에서 학습자들의 주 대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남편을 제1 대화 상대자로 답했으며(61.7%), 그 다음으로는 자녀(51.3%), 다른 나라 친구(47.8%)의 순서로 꼽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주 대화 상황은 가게와 시장(57.4%), 집(55.6%), 은행(49.6%), 약국과 병원(46.1%), 식당(44.3%)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방송 진행에 있어서 희망하는 언어는 <그림 6>과 같이 한국어가 52.2%, 모국어 43.5%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두 언어를 모두 고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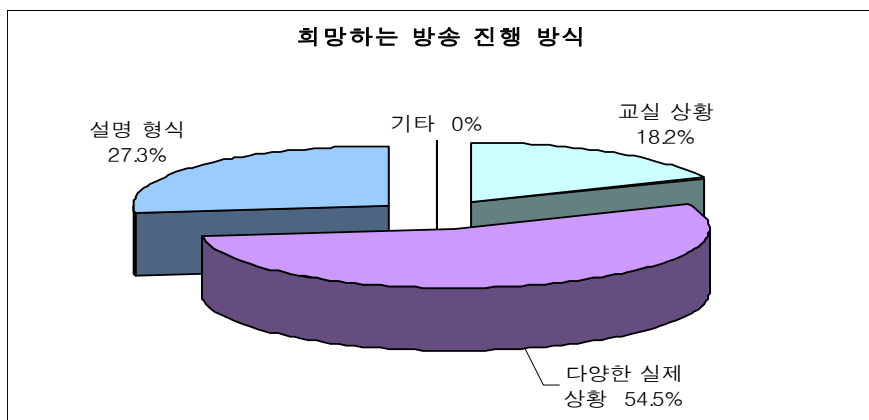
46) 교육 방송 내용, 주 대화 상대자, 주 대화 상황에 대한 분석 도표는 다음 장에서 교육과정 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였다.

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방송 진행 방식은 다양한 실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54.5%, 설명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27.3%, 교실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18.2%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언어를 실생활 상황 속에서 학습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6〉 희망하는 방송 진행 언어



〈그림 7〉 희망하는 방송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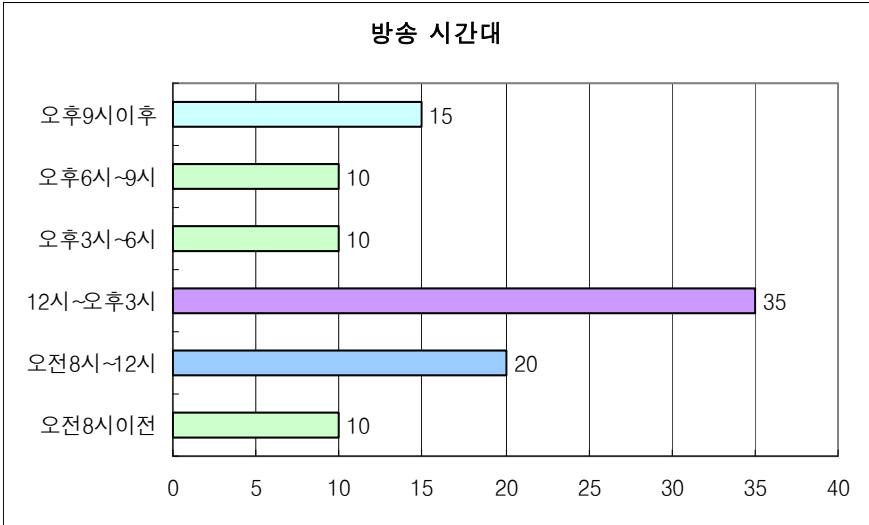
(3) 교육 방송 실시

한국어 교육 방송이 어떤 시간에 실시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17>과 같이 12시~오후 3시가 적절하다는 대답이 35%, 오전 8시~12시가 적절하다는 대답이 20%, 오후 9시 이후가 적절하다는 대답이 1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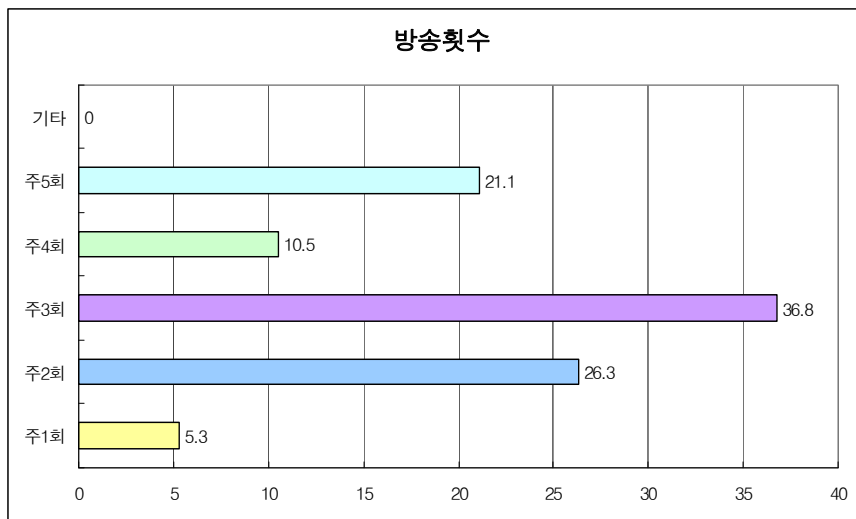
또한 방송 회수는 <표 18>과 같이 주 3회에 대한 대답이 가장 높았으며 36.8%를 차지했고, 주 2회가 26.3%, 주 5회가 21.1%를 차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주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희당 방송 시간에 대한 요구는 <표 19>와 같이 30분~1시간(47.4%), 1시간~1시간 30분(42.1%), 30분 이내(10.5%)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장시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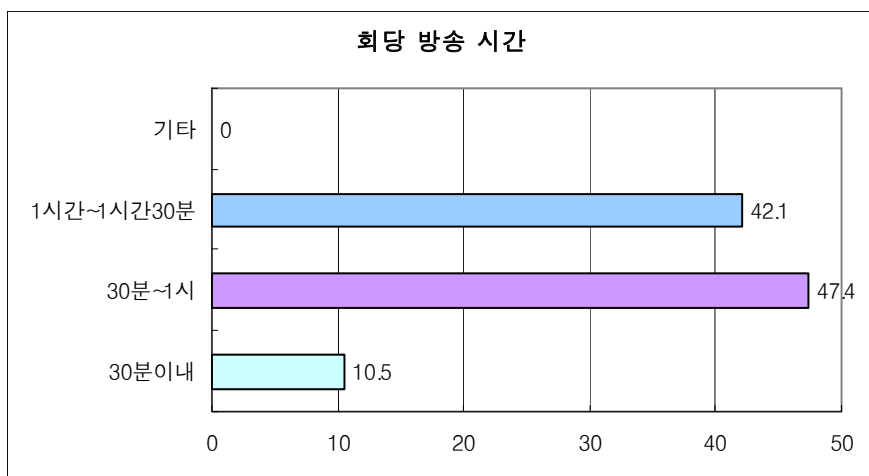
〈표 17〉 방송 시간대



〈표 18〉 방송 회수



〈표 19〉 회당 방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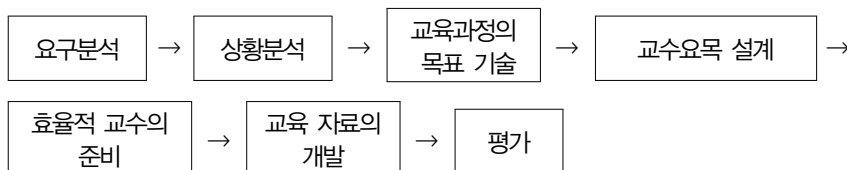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3.1.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

(1)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Richards, 2001).

〈표 20〉 교육과정 개발 단계



교육과정을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살펴봐야 할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요구 분석 :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인터뷰, 관찰 등)를 통해 조사, 분석
- 상황분석 : 사회적 요인, 기관 관련 요인,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분석
-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⁴⁷⁾
- 교수요목 설계 : 교수 내용의 선정과 배열
- 효율적 교수의 준비 : 특정 수업의 표준화와 수업 간 연계
- 수업 자료의 구비 : 교육 방송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활용
- 평가 내용과 절차 설계 : 교수·학습 결과 확인

47)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목적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예를 들어 사회적 재구조화로 두느냐 문화적 다원주의에 두느냐 등과 관련된다.

(2) 교육과정 개발 시의 주요 쟁점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단계별로 주요 쟁점들은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 및 교육 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별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구 분석⁴⁸⁾

① 쟁점

-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무엇인가?
- ✓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숙달도를 갖추기를 희망하는가?
- ✓ 희망하는 교수·학습 방법, 매체 등은 무엇인가?
- ✓ 어떠한 언어 기능, 내용을 학습하기를 희망하는가?

② 요구 분석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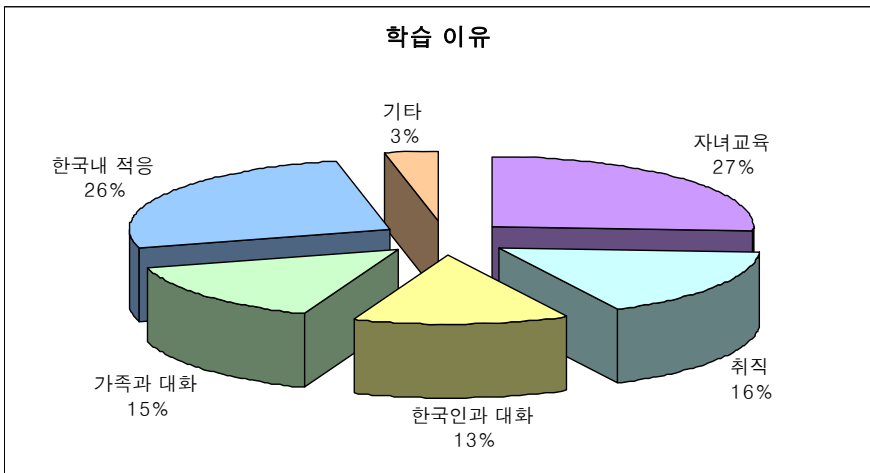
본 연구 과정에서 학습자 요구 조사 실시 결과를 앞장에서 기술하였다. 그 내용 중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몇몇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그림 6>과 같이 자녀교육(27%), 한국사회 적응(26%), 취직(16%), 한국인과의 대화(13%)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주제, 기능, 대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자녀 교

48) Nunan(1999 : 149-150)은 요구분석에서 다룰 요구를 내용에 관한 요구(content needs)와 과정에 관한 요구(process needs)로 나눈 바 있다. 흔히 기관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을 면담하거나 설문지를 통하여 (1) 인구 조사 (2) 학습 동기 및 활용도에 대한 조사 (3) 언어의 네 가지 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4) 언어 재료, 즉 어휘나 문법,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5) 학습자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장면, 주제 및 기능에 대한 조사 (6)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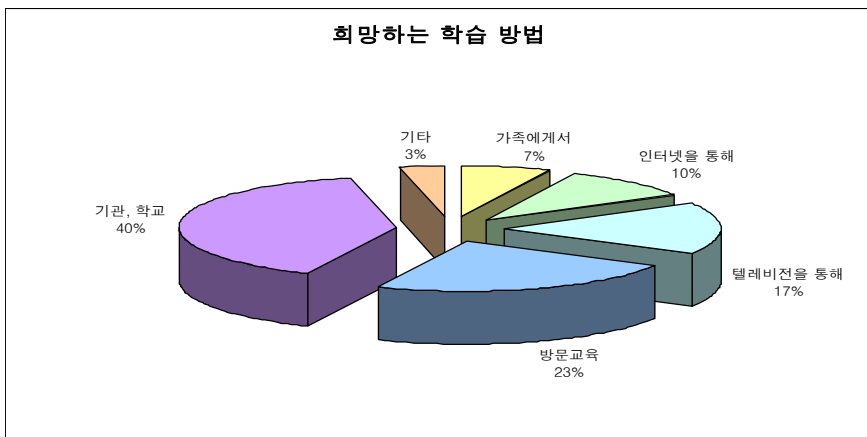
육, 더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1급 ~ 3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분석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그림 7>과 같이 한국어 학습 방법으로 기관, 학교를 통합 집합 교육(40%)을 가장 선호했으며, 방문 교육(23%), 교육 방송(17%), 온라인 교육(10%)을 희망하였다. 본 연구 과제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지만 실제로 교육 방송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 방송을 통한 학습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도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교육 방송에 대한 인지도 및 경험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교육 방송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험자는 26%에 지나지 않으며, 74%는 무경험자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을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되 그 요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 교육과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6〉 한국어 학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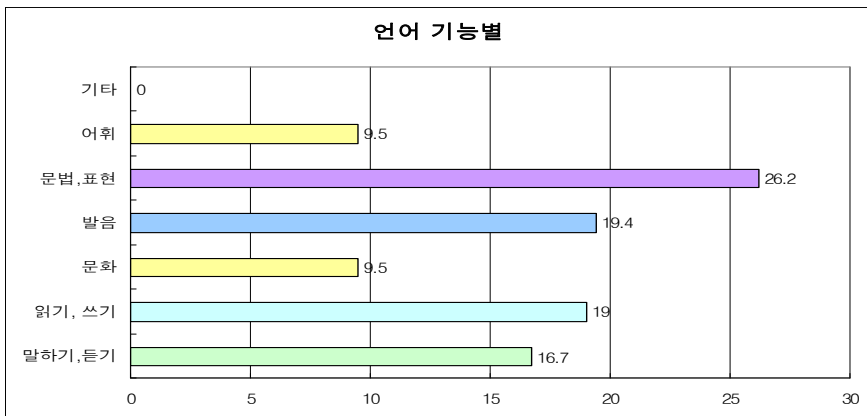


〈그림 7〉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방법



요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 기능은 김일란(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문법, 발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21>과 같이 문법 및 표현 학습(26.2%), 발음(19.4%), 읽기와 쓰기(19%), 말하기와 듣기(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상생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말하기, 듣기에 치중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1〉 학습을 희망하는 언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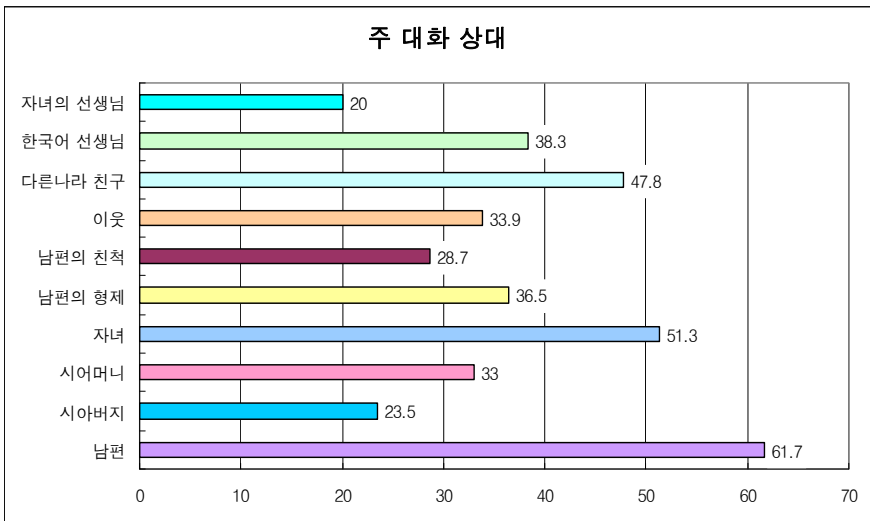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대화 상황, 대화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생활을 파악해야 한다. 요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 22>와 같이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대화 상대자는 남편(61.7%), 자녀(51.3%), 다른 나라 친구(47.8%), 한국어 선생님(38.3%)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경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각각 33%, 23.5%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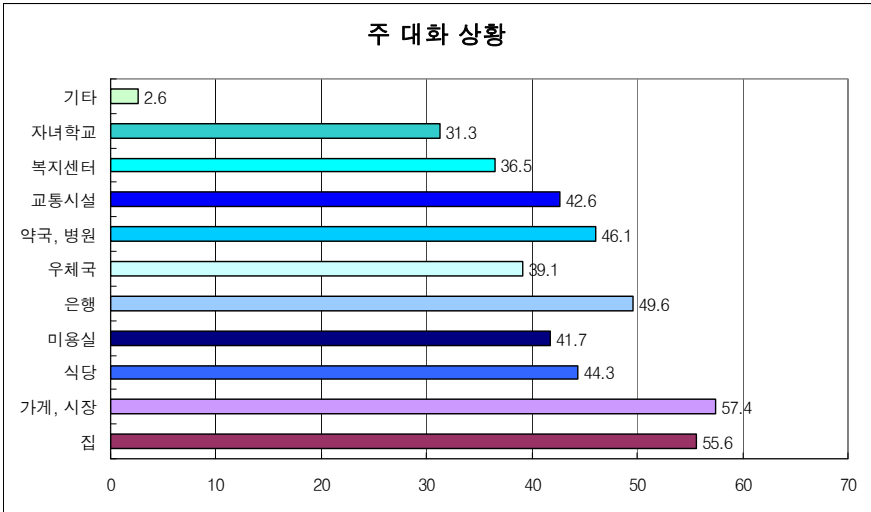
또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으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상황은 <표 23>과 같이 가게와 시장(57.4%), 집(55.6%), 은행(49.6%), 약국과 병원(46.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요구 조사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순서를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요구 분석 결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 및 선행 집필된 교재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2> 자주 접하는 대화 상대



〈표 23〉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



2) 상황분석

① 쟁점

✓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은 어떠한가?

-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 국가,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는 어떤 교육 체계가 채택되어 있으며, 어떤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가?

✓ 교육관련 기관 요인은 어떠한가?

- 교육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인은 어떠한가?

- 교사의 언어 숙달도, 교육 경력, 전문성, 교육 철학 등은 어떠한가?

✓ 학습자 요인은 어떠한가?

- 한국어 학습 경험, 학습 동기, 가용 학습 시간, 요구하는 교수 스타일 등은 무엇인가?

② 상황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사회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비단 본인의 개인적인 불편이나 사회 부적응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사교육력 저하, 학교 교육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미래의 한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는 가능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 방송이 이른 새벽에 방영되는 등 현실적으로 학습자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보다도 국가·사회적인 필요성과 의무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면대면이 아닌 일방적인 교수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게시판의 활용이나 방문 도우미 제도의 활용, 호주의 통신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원격 교육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방송의 특성상 6개월 단위의 편성을 고려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자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 방송의 진행자를 결혼 이주 여성의 모국어 권 외국인으로 할 경우 진행 교사의 발음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 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낳는다. 또한 한국어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어 교사를 주진행자로 하고, 모국어 화자를 보조 진행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요인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가용 학습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1회에 1시간 이내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학습자의 한국 거주 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 학습보다는 장기로 설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육 방송의 교육 시수가 짧을 지라도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한국인

과 교류의 기회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비하여 진도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교수요목 설계

① 쟁점

-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적합한 교수 요목은 무엇인가?
- ✓ 교육 내용의 목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할 것인가?

② 설계 방향

선행 연구 및 교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접하는 상황,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문법, 어휘, 발음 등이 적절하게 연계된 주제(상황)·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내용에 포함될 주제, 상황, 어휘, 문법 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최근까지 개발된 다양한 교육 자료를 1차 분석 자료로 삼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의 교육 내용을 2차 분석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어휘나 문법은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인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 3급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정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정확성을 기르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인과 생활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어휘를 어느 정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목록도 다문화 가정이 접한 실생활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한다.

4) 효율적인 교수의 준비

① 쟁점

- ✓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가?

② 설계 방향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교육 기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 2~3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교육 시간으로는 집합 교육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송은 학습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습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과 교육은 집합 교육을 통해 일부 보완, 점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교육 방송이 집합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방송용 교재를 함께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집합 교육에서 동일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집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 2~3회 교육 방송을 시청하고, 주 1회 집합 교육으로 주간 학습 내용을 보완, 점검한다면 교육 효과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방송과 집합 교육의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5) 수업 자료의 구비 및 평가

① 쟁점

- ✓ 교육 방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 교수·학습 결과의 평가를 위한 내용 및 절차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② 설계 방향

방송 매체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성한다. 특히 한국의 실생활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과제의 도입 단계에서 비디오 클립 장치를 활용하며, 문화 교육의 내용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방향성이라는 방송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게시판 활용, 집합 교육을 통한 일대일 피드백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방송의 매차시마다 퀴즈를 통한 간단한 평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방송용 교재에 일부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이끄는 자기 점검 방식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가능하다면 집체 교육이나 호주의 통신 교육에서 사용하는 원격 피드백 방식, 방문도우미 등의 활용도 바람직할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제

이상의 논의점을 검토한 결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교육 목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결혼 이주 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숙달도 등급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총 3개의 등급으로 설정하여 교육한다. 등급별 교육 목표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⁴⁹⁾

〈표 24〉 등급 설정

등급	목 표
1급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2급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기초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3급	일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표 25〉 등급별 교육 시간

등급	방송 상의 교육 기간	방송 상의 교육 횟수	방송 상의 교육 시간 ⁵⁰⁾
1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2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3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2) 교육 내용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언어 기능, 언어 범주별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과 집체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 3회 방송교육으로 학습한 후, 주 1회 2시간 정도의 집체 교육을 병행할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숙달도 목표이다.

50) 통상적으로 방송, 온라인 상의 교육 시간을 현장 교육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배로 산정함

〈표 26〉 언어 기능, 언어 범주별 주요 교육 내용

영역	내용
주제-상황, 기능	·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내용 · 기초적인 사회 생활 관련 내용 · 일상적인 사회 생활 관련 내용
언어 기능	· 4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 · 말하기-듣기 구어 학습, 읽기-쓰기의 문어 학습
문 화	·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의 생활양식과 언어 문화 ·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
발 음	· 기초 음운 체계의 발음 및 기본적인 음운 법칙 · 실생활의 구어 발음
어 휘	· 등급별 새로운 학습 어휘 수 1급 : 700~800 어휘 2급 : 1000~1100 어휘 3급 : 1000~1100 어휘
문 법	· 등급별 새로운 학습 문법 수⁵¹⁾ 1급 : 100 항목 이내 2급 : 100 항목 이내 3급 : 100 항목 이내

3)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최신 언어 교육 이론을 따르되, 다문화 가정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울러 교육 방송의 형태로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방송의 교수·학습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근거한 교수·학습법
- 다문화 가정의 특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수·학습법
-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법

51) 문법 항목 수는 목표 문법을 표현, 구문으로 제시할 것인지, 개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과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교육 자료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교육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용 교재를 함께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 방송용 교재는 교육 방송의 보조 자료이며, 동시에 집합 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이다.

- 교육 방송 프로그램
- 교육 방송용 교재

5) 평가

자기 점검 방식이나 원격 피드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 방송 제작 시, 교재 제작 시에 반영한다.

- 자기 점검 방식에 의한 평가
- 원격 피드백, 집합 교육과 방문 도우미를 활용한 면대면 피드백 방법의 모색

V.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 개발

1. 교재 집필 방향 및 교육 원리

1.1. 교재 집필 방향

이상에서 논의한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방송 개발 원리 및 교육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 방송 실시를 제안하며, 동시에 교육 방송용 교재는 어떤 방향으로 집필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교재 집필은 첫째, 교육 방송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방송 교육용 교재를 집필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물인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는

집합 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제안하고, 방송 교육용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염두에 두고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단원 분량 및 구성, 단원 모형은 모두 1회 방송 시간을 근거로 설계하였고, 매회 교육 내용이 ‘도입-전개-마무리’ 구조를 지녀서 완결성을 갖도록 집필하고자 한다. 또한 내용에서도 방송의 멀티미디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일방향 통신수단으로서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둘째, 방송용, 집합 교육용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집필한다.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프로그램 기본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에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재를 먼저 집필하므로,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는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 방송을 시청할 때 활용할 교육 방송용 교재이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교육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우며 교육 방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 교육에서도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과 학습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집필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일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과 달리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활 환경이나 거주 지역 등에서도 단기체류 외국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 학습 상황 등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교재의 성격을 띠게 된다. 본 교재 집필 과정에서도 요구 분석 및 상황 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교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넷째,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집필한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이다. 한국어 초급 학습자로서 교육 방송에 의존하여 독학할 경우, 모국어 설명이나 번역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 방송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주교사를 담당하고 학습자가 보조 교사로 함께 진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대화, 문법 설명, 어휘, 문화, 기타 지시문 등을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어 능력과 문어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여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자녀 교육도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 구어 능력과 문어 능력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 본 교재가 방송 매체를 이용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배양하여 문식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방송 상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4가지 언어 기능의 통합 방법을 모색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

여섯째, 실제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한국인 가족, 이웃과 생활하므로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 적응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본 교재 개발에서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은 우선 소재나 주제, 대화 상대자, 대화 상황 등을 선정하는 데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선정하였음을 의미하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어휘와 표현을 적극 활용하여 구어, 문어 텍스트를 집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읽기 텍스트를 숙련도에 맞게 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면서 한국 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일곱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집필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크게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자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 목적, 학습자의 연령 및 직업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방송교육 프로그램 제작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결혼 이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교육 자료를 선정하고 교육 방송

을 제작하도록 제안하였지만,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자녀 또는 그 밖의 한국인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내용, 자녀와 즐길 수 있는 문화 학습을 다수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였다.

1.2. 교재의 교육 원리

그동안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는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교수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으며, 언어 교육 이론에 근거한 교육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많은 선례들을 검토한 결과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송용 교재는 편의상 구조(문법)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근거하여 제작·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것이므로, 실생활 환경이 곧 언어 사용 환경이 되며 학습 내용은 실생활에서 그대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근거하여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교재는 최근 외국어교육 이론에서 널리 활용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근거하여 집필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최신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장 교사에게 간접적으로 교수 절차, 교수 방법을 안내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바, 본 자료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교육 목표 설정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

여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 가족과 친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모하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및 문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1) 1급의 교육 목표

한국에서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능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기본 어휘, 문법, 발음, 문장구조 등에 익숙하게 하여 암기한 표현을 활용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기능별 교육 목표⁵²⁾

① 듣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들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실용적인 텍스트를 들을 수 있다. 방해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느린 속도의 표준어를 들을 수 있다.
----	--

52) 기능별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숙달도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1급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듣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듣기 · 매우 간단한 안내 듣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듣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② 말하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설명 텍스트를 말할 수 있다. 개별음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하고, 기본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발음할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말하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말하기 · 매우 간단한 안내 텍스트 말하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말하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③ 읽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생활문을 읽을 수 있다. 사전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읽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읽기 · 매우 간단한 실용 텍스트 읽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④ 쓰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쓸 수 있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맞춰 글자를 쓸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쓰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쓰기 · 매우 간단한 텍스트를 쓰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쓰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3. 교수요목 개발

3.1. 주제(상황)-기능 중심의 교수요목 설계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의 요구 조사 결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은 상황-기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 연습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11%, 문법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를 차지하였다.

김일란(2007)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으로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황-주제 중심 교수요목’과 ‘기능 중심 교수요목’을 통합한 ‘다중 교수요목’을 제안하였다.

상황-주제 중심 교수요목은 상황이나 대화의 주제에 따라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된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정해 이와 관련된 어휘, 표현 등을 단원별로 배열하게 된다. 이와 달리 기능 교수요목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므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선정하고, 기능 수행과 관련된 어휘, 표현을 단원마다 배치하여 설계한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수요목은 특정 상황이나 주제와 의사소통 기능을 연결한 주제(상황)-기능 중심의 교수요목을 택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교재에 포함될 의사소통 상황, 주제 및 기능을 선정하기 위해 일반 어학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중복도에 근거하여 1차 대상을 선정하였다.⁵³⁾

53) 상황, 주제, 기능 목록은 본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참조할 것

3.2. 초급 교수요목의 실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초급 교수요목은 다음과 같다.

〈표 27〉 초급 교수요목

대단원	주제(상황)	소단원(강)	기능	문법과 표현
1	한글	1강	자모 익히기, 음절 구성하기	자음 1, 모음 1
		2강	자모 익히기, 단어 읽고 쓰기	자음 2, 모음 2
		3강	받침 발음하기, 문장 구성하기	받침 발음, 문장 구조
2	소개	4강	인사하기	저는 ~ 이에요/예요
		5강	국적 묻고 답하기	저는 ~ 에서 왔어요
		6강	자기소개 의 글 읽고 쓰기	제 이름은 ~ 이에요/예요
3	집	7강	집 안의 물건 이름 말하기	이/가 있어요
		8강	집 안의 물건 위치 설명하기	(이/가) 에 있어요
		9강	집을 묘사하는 글 읽고 쓰기	도
4	가족	10강	가족 관계 말하기	호칭
		11강	가족 소개하기	-어/아요, 에 가다
		12강	가족 소개 의 글 읽고 쓰기	을/를
5	날짜	13강	날짜 말하기	수 읽기
		14강	요일 말하기	에, 요일
		15강	안내문 읽기	-비/습니다
6	시간	16강	시간 말하기	시간 읽기
		17강	약속하기	에서
		18강	알림장 읽고 쓰기	하고
7	하루 일과	19강	하루 일과 말하기	부터/까지
		20강	과거 사실 말하기	과거
		21강	일기문 읽고 쓰기	
8	시장	22강	물건 가격 묻기	-(으)세요, 가격 읽기
		23강	물건 사기	단위명사
		24강	광고지 읽기	와/과

대단원	주제(상황)	소단원(강)	기능	문법과 표현
9	음식	25강	음식의 맛 말하기	음식 명칭과 맛
		26강	먹고 싶은 음식 말하기	-고 싶다
		27강	한국 음식 소개의 글 읽고 쓰기	르 불규칙
10	주말	28강	미래 사실 말하기	-(으)르 거예요
		29강	주말 계획 말하기	안+V
		30강	주말 계획 읽고 쓰기	-지 않다
11	가정생활	31강	가정생활 말하기	경어법 I (-사-, 께서)
		32강	높임말로 말하기	경어법 II
		33강	편지글 읽고 쓰기	의
12	계절과 날씨	34강	좋아하는 계절 말하기	-고, 은/는
		35강	날씨 말하기	보다
		36강	일기예보 읽기	ㅂ 불규칙
13	우체국과 은행	37강	우체국 이용하기	-지만
		38강	은행 이용하기	-(으)러 가다/오다
		39강	안내문 읽기	
14	전화	40강	도움 요청하기	-어/아 주다
		41강	정보 확인하기	-지요?
		42강	전화 메모 읽고 쓰기	
15	교통	43강	교통수단 이용하기	(으)로 (수단)
		44강	가는 방법 설명하기	-어/아야 하다
		45강	가는 방법 설명하는 글 읽고 쓰기	르 불규칙
16	식당	46강	음식 주문하기	형용사의 관형형
		47강	음식의 기호 설명하기	못 + V
		48강	식당 소개의 글 읽고 쓰기	만
17	길 찾기	49강	길 묻기	(으)로 (방향)
		50강	위치 설명하기	-(으)면
		51강	장소 안내하는 글 읽고 쓰기	-(으)십시오
18	병원	52강	증상 말하기	-지 마세요
		53강	금지 표현하기	-(으) 탈락
		54강	건강 관련 글 읽고 쓰기	

대단원	주제(상황)	소단원(강)	기능	문법과 표현
19	초대	55강	제안하기	-(으)러래요?
		56강	부탁하기	에게/한테
		57강	초대장 읽고 쓰기	
20	취미	58강	자신의 능력 말하기	-(으)르 수 있다/없다
		59강	취미 말하기	-기
		60강	취미 소개의 글 읽고 쓰기	
21	허락	61강	이유 말하기	-어/아서 (이유)
		62강	허락 구하기/받기	-어/아도 되다
		63강	체육관, 시설 이용 안내문 읽기	
22	집안일	64강	집안일의 어려움 말하기	-(으)니까
		65강	집안일에 대한 금지 표현하기	-(으)면 안 되다
		66강	생활 정보 읽고 쓰기	
23	한국어 공부	67강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	-어/아 보다
		68강	자신의 의지 말하기	-겠습니다
		69강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ㄷ 불규칙
24	옷차림	70강	감탄 표현하기	-네요
		71강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기	마다
		72강	광고문 읽기	
25	계획	73강	미래 계획 말하기	-(으)려고 하다
		74강	추측하여 말하기	-ㄴ/을 것 같다
		75강	계획 관련 글 읽고 쓰기	

4. 단위 구성 원리 및 단위 모형

4.1. 단위 구성 원리

초급 교재는 6개월 간 1주에 한 개의 대단원을 학습하도록 총 25개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1주 3회 교육 실시를 염두에 두고, 한 개의 대단원(1단원)은 세 개의 소단원(3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단위 구성은 1회의 교육 내용을

소단원(1장)으로 묶음으로써 매회의 교육이 완결성을 갖도록 한 것이며, 동시에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 주의 교육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주제, 언어 기술의 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단원은 한 개의 주제(상황)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소단원(3장)은 대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1주 3회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유사한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각 단원의 1장, 2장은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구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하였고, 3장은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구성하여 문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한 단원의 교육 시간은 90분이며, 1장의 교육 시간은 30분이다. 단원의 내적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대단원의 내적 구성

	교육 시간	주제	기능	언어 기술	문법 항목	어휘 항목
1장	30분	소주제 ①	기능 ①	말하기, 듣기	1~2개 항목	10개 이내
2장	30분	소주제 ②	기능 ②	말하기, 듣기	1~2개 항목	10개 이내
3장	30분	소주제 ③	기능 ③	읽기, 쓰기	1~2개 항목	10개 이내

4.2. 단원 모형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앞서 교재를 집필하므로, 본 교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내용으로 활용하게 되며, 동시에 교육 방송용 교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이 앞서 개발한 교재 모형과 달리 제작된다면 학습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다. 따라서 단원 모형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예측하여 설계하였으며, 동시에 교재를 집합 교육에서 활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교재 구성 방법도 활용하였다.

대단원은 도입과 1, 2, 3강으로 구성된다. 도입에서는 단원 주제와 관련된 사진들을 제시하고, 단원의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소단원(강)의 제목, 기능, 문법과 표현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29〉 단원의 전체 구성

도입	단원 주제와 관련된 사진 3강의 주제, 기능, 교육 내용 제시
↓	
1강	말하기, 듣기 중심의 소단원
2강	말하기, 듣기 중심의 소단원
3강	읽기, 쓰기 중심의 소단원

소단원(강)의 구성은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한 1, 2강과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3강을 달리 설계하였다. 1, 2강의 단원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30〉 말하기, 듣기 중심의 단원(1, 2강) 모형

수업 단계	교재의 항목	번역 여부	집필 방법
도입	소단원 제목	○	핵심 문장으로 제시
	학습 목표	○	목표 기능 및 목표 문장을 제시
	도입 사진		대화 관련 상황을 삽화로 제시
제시 [목표 대화 → 목표 문법과 표현]	대화	○	목표 문장(문법과 표현)이 상황에 맞게 활용된 대화 텍스트 제시
	발음	○	발음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발음만을 표기 발음 법칙 등은 책 뒤에 단원별 내용을 묶어서 제시
	어휘	○	목표 대화에서 사용한 새 어휘 10개 이내로 제시
	문법과 표현	○	문법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수업 단계	교재의 항목	번역 여부	집필 방법
연습, 활용	연습	○(지시문)	2~3개의 연습 문제
[문법과 표현 말하기 → 목표 대화 말하기]	활용	○(지시문)	1개의 활용 연습, 확장 어휘를 Tips로 제시
마무리	퀴즈	○(지시문)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2개
기타	문화	○	사진 자료, 문화 설명

소단원은 크게 도입, 제시, 연습과 활용, 마무리의 구성을 갖는다. 말하기, 듣기 중심의 단원은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구어 학습을 목표로 하므로, 상황이 있는 대화문을 먼저 제시하고, 대화 속에서 발음, 어휘, 목표 문법과 표현을 제시한다.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상황을 비디오 클립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디오 클립을 활용한 대화문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 요소(문법, 어휘 등)들의 쓰임을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성을 목표로 하는 연습, 활용 단계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진행함으로써 정확성에서부터 유창성을 기르도록 유도하였다. 현장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연습을 세밀하게 고안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 방송에서 작은 단위의 연습이 많이 차지할수록 학습자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생동감을 잃기 쉽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소단원에 2~3개의 연습 활동과 이를 통합한 활용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활용 연습은 단위 서두에 제시한 목표 구어 텍스트(대화)의 상황을 변경하거나 확장한 유형이므로, 활용까지의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늘의 목표 대화’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활용 연습에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확장 기능하도록 확장 어휘를 Tips로 제시하였다.

매회 방송은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간단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문제를 방송 상에서는 오락적인 기능을 가미하여 제작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가 참여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⁵⁴⁾ 쌍방향 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 교육 방송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소단원의 평가는 퀴즈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퀴즈는 문법과 표현 관련 문제 1개, 기능 표현 중심 문제 1개로 구성하여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측정하도록 하였다.

문화 부분은 교재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포함시켰으나 실제 방송에서는 다양한 순서로 활용 가능하다. 소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간단하게 기술하고, 풍부한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한 것이 본 교재의 특징이다. 교재의 문화 관련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방송에서는 동영상 자료로 제공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3강도 도입, 제시, 연습과 활용, 마무리의 구성을 갖는다. 문어 학습을 목표로 하므로 실제적인 읽기 텍스트(이메일, 게시판, 광고물 등)를 제시하고, 텍스트 속에서 어휘, 문법과 표현을 제시한다. 읽기 텍스트를 활용하게 되는 상황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습, 활용 단계에서는 쓰기 연습을 통해 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문법과 표현을 중심으로 한 문장 단위의 쓰기 연습이 이루어지며, 쓰기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과 표현을 활용하여 읽기 텍스트와 관련된 쓰기 텍스트(읽은 내용에 대한 답신, 읽기 텍스트와 유사한 텍스트 등)를 생성하도록 한다.

쓰기 연습은 현장 교육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만 교육 방송에서는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교육 방송에서는 학습자가 보드에 쓴 것을 보고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맞게 쓴 문장 고르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텍스트 쓰기는 교재에서는 과정 중심으로 집필하였지만 방송 상에서는 아이디어 모으기나 개요를 작성하는 첫째 과정만을 보여주고, 그 이외의 부분은 개인학습이나 집합 교육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는 완성된 학습자의 실제 글을 보여주는 데 그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 방송에서는

54) 전화 걸기 등으로 실시간 참여하도록 하거나 다음 회 방송에서 정답을 맞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철자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제작할 수 있다. 교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쓰기 부분에는 **Tips**로 철자 또는 문법에 대한 주의점을 담았다.

〈표 31〉 읽기, 쓰기 중심의 단원(3강) 모형

수업 단계	교재의 항목	번역 여부	집필 방법
도입	소단원 제목	○	핵심 문장으로 제시
	학습 목표	○	목표 기능 및 목표 문장을 제시
	도입 사진		대화 관련 상황을 삽화로 제시
제시 [읽기 텍스트 → 목표 문법과 표현]	읽기	○	실제적인 텍스트 내용 이해 문제
	어휘	○	읽기 텍스트에서 사용한 새 어휘를 10개 이 내로 제시
	문법과 표현	○	문법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연습, 활용 [문법과 표현 쓰기 → 텍스트 쓰기]	연습	○(지시문)	2~3개의 연습 문제 쓰기 활동으로 구성
	쓰기	○(지시문)	읽기 텍스트와 관련 있는 쓰기 활동 쓰기 활동은 과정 중심으로 제시 철자 또는 표현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을 Tips 로 제시
마무리	퀴즈	○(지시문)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기타	문화	○	사진 자료, 문화 설명

5. 교재 개발의 실제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참조]

VI. 결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 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문성,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방송용 교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부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참여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에 의한 교육 방송 체계 연구 및 교재 집필 작업은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 및 학습자 요구분석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외국어교육의 최신 이론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 및 자료 개발을 통해 한국어 교육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셋째, 현재까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물의 일부인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논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초급)는 추후에 이루어질 교육 방송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교육 방송용 인쇄 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집합 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하므로 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물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방송용 교재라는 점에서 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실용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물은 국외의 재외 교포 및 세종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 가능하므로, 한국어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주민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국가·사회적으로는 시급한 과제인 다문화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경(1980), 「방송영어 강의의 내용과 방법-KBS 생활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20, 영어교육학회. pp.137-145.
- 고야나기 가오루(2004), 『언어습득개론(김지선 역. 2006.)』, 한국문화사.
- 곽숙정(1995), 『교육 방송 TV의 일반인 대상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 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통계)』,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국어원(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 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권성호·서윤경(2005), 『교육공학적 관점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 김삼준(2007),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및 관리정책」 『2007년 8월 17일 한국어 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3차 총회 및 하계워크숍 발표 자료』,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pp. 34-44.
- 김선정(2006),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재외동포와 이주외국인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종언어학회, pp.125-130.
- 김우정(2006),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51-53.

- 김유정(1999),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학습자들의 인식」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60.
- 김일란(2007),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웅·정인성(2002), 『원격교육활용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85-100.
- 김현주(1998), 『텔레비전 유아대상 프로그램 제작진의 ‘교육성’과 ‘오락성’에 대한 정의와 실현 방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동(2006), 이주여성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pp.213.
- 노마 히데키·김진아(2006), 「NHK(일본방송협회) 텔레비전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5-134.
- 농림부(2007),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농림부.
- 목지연(2005), 『교육방송 영어 수업과 교실 영어 수업에 관한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성(2004),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7-48.
- 박경자(2004), 『원거리 교육과 언어 학습』, 경진문화사.
- 박경자·장복명(2002), 『영어교재론』, 박영사.
- 박영순(2006),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방성원·김현진(2007), 「공중과 방송을 통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실시 방안」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43.
- 배두본(1999), 『영어 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도서출판 원미사.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11-3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Arirang Korean Basics』 1, DARAKWON.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Arirang Korean Basics』 2, DARAKWON.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
래인력연구원·보건복지부.
- 설진아(2007),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정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
여」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67-84.
- 안정화(200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조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0차 학술대회 발표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53-86.
- 안정화(2007a.),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 안정화(2007b),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와 실제」 『제4차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 발표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제
단, pp.4-19.
- 여성가족부(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2006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 여성가족부·국립
국어원.
- 여성가족부(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 여성가족부.
-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유태영·김영수(1988), 『교육방송론』, 도서출판 나남.
- 윤인진(2006),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
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pp. 3-15.
- 李建亥(2001), 『TV 방송 영어 프로그램 분석 척도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혜(2007a),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실시 방법론 및 전반적인 체계의 개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7-26.

이미혜(2007b), 「한국 내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세종학당의 역할」 『중국해양대학 세종학당 개원 기념 세종학당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중국해양대학, pp.51-67.

이성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26-47.

이성언·최유(2006), 『다문화 가정 도래를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성현 외(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순애(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식(2006), 「한국어교육과정론」 『제3차 동남아/서남아 한국어교육자 초청연수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pp.283-308.

이정옥(2006),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적응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 72-84.

이진영(2006), 「국제결혼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GK대학특성화사업단 제 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75-494.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9-232.

이화여대 교육공학과(2004),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임철일(2003),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활용의 이해』, 교육과학사.
- 장수정(2006),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희(2003), 『영어 학습을 위한 TV 교육 방송과 인터넷의 활용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2002), 『교육방송 TV 영어 프로그램의 교실수업 활용 방안-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성·나일주(2004), 『원격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정일선(2006), 『국제결혼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일선·박은미(2007), 『경상북도 여성이민자 가족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지선(2002), 『중학교 영어 교육에서의 TV 교육 방송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원(2006), 「다문화 시대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방안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보급 계획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54-59.
- 조선경(2007),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록 · 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 (1)」,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1-510.
- 조항록(2006),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한국학」 『제3차 동남아/서남아 한국어교육자 초청연수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pp. 245-270.
- 조항록(2007),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2007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회언어학회, pp.51-65.
- 천병기(1992), 『방송에 의한 학습의 실제』, 영남대학교 출판부.

- 천병기(1993), 『방송 학습의 지도 원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은규·장은아·김은아·채숙희(2005), 「한국어 교육용 TV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7-298.
- 충청북도 교육청(2006),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방송개발원(1995),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한국방송개발원.
- 한국방송공사(1992), 『교양 프로그램 제작 편람』, 한국방송공사.
- 한국어세계화재단(2005),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황선영·조선경(2006),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1-118.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pp.287-329.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Celce-Murcia, M.(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Heinemann.
- Lafayette, R. C.(ed.)(1996), National standards, National textbook company.
- Nunan D.(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einle & Heinle.
- Nunan, D.(2003), Task-based syllabus design, Curriculum and syllabu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proceeding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AKLE.

Omaggio Hadley, A.(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Heinle & Heinle.

Richards, J. C. and Renandya, W.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vers, W. M. and Temperley, M. S.(1981),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Ur, Penny. (1996),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통계청 자료(06.12.31), 홈페이지 및 16개 시,도청 홈페이지.

통계청 자료(07. 3),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호적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2006. 1. 1. ~ 12. 31.)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의 인구동태 항목을 집계한 결과임.

행자부(2007. 8. 2),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여성자료실(<http://www.wmigrant.org/2007.12.2>)

법무부 자료(07.08.24),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법무부 자료(07.08.24),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1. 들어가기

최근에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교육학계의 화두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한국어 문화권역의 확산이다. 이런 현상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며 이 분야 전공자들은 사명감 속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때는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어의 국제화’ 또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이런 용어들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의 일방적 용어일 뿐 아니라 언어 침략주의적 사고방식의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한국어 문화권역의 확산 정책이 대외적으로는 탄탄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있는 합리적인 정책인지, 한류 열풍의 호황 덕분에 경제 문화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대내적으로는 영어 열풍에 따라 한국어가 위기에 처한 것인지 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둘이켜 보면 한국어 학습 열기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공산권의 몰락과 개방화 속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목받아 중국, 동남아, 동구권 나라들로부터 한국 배우기가 시작된 결과이다. 이것은 한국어가 배우기 쉽고 우수한 언어 때문이 아니고 국어학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규범 문법이 재미있고 배우기 쉬워서 나타난 결과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광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한류와 한국어 인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측

면이 강할 것이다. 물론,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다. 우연으로 보일 뿐 내면적 필연이 누적되어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한국어 학습 열기는 한국의 산업화라는 내적 요인과 한국 문화 상품의 성공적 판매 전략, 공산권 몰락이라는 외적 요인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등장하게 된 것이 영어가 우수해서가 아니고 해양 국가로 영연방을 건설한 영국과 그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건너간 미국의 강력한 국가 건설 덕분이라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즉, 언어는 철저히 언어 공동체인 의식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언어 자체가 특별한 매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언어 사용자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가 투영된 산물로 경제적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가 공용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어 사용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어를 강력하게 경제, 산업, 문화의 도구로 성공을 거두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한국어 문화권역의 확대라는 명제를 두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학당’이 무엇인지,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쳐야 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의 위상과 정신 문화사적 의미

2.1. 한국어의 사용 인구

크리스탈(D.Crystal, 1997)의 언어학 백과사전의 언어 통계는 한국어를 1990년 대 남북 7천만으로 조사한 통계이지만 10위권으로 보고 있다.

〈세계 20대 언어〉

1. 중국어 2. 영어 3. 스페인어 4. 힌디어 5. 아랍어 6. 포르투갈어 7. 벵갈어 8. 러시아어 9. 일본어 10. 한국어 11. 독일어 12. 프랑스어 13. 자바어 14. 이탈리아

어 15. 판잡어 16. 마라티어 17. 월남어 18. 텔루구어 19. 튀르크어 20. 타밀어
전 세계 6000여 언어 중에 한국어는 남한 4800만, 북한 2300만, 해외 700만 합
계 7800만 명이 사용하며 비례적 인구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어는 10위권의
대국 언어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도 UN 세계 주요 언어 분포 및 응용력 조
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세계 9위에 속한다는 보고도 있었고 유엔의 전문 기
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서 한국어를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들 언어는 문화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국제어 또는 국제 외교어(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
아어
- (2) 역사적인 문명어 : 중국어, 힌디어, 벵갈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튀르크어
- (3) 근대 제국주의어 : 포르투갈어, 일본어
- (4) 다민족어 : 자바어, 판잡어, 마라티어, 월남어, 텔루구어, 타밀어
- (5) 신흥 대국어 : 한국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신흥 독립국으로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
인 우리나라의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많아 신흥 대국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나
라들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전범 국가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바 없는 약소국가이었고 전쟁의 상처가 가장 오래 남아 아직도 고통
중에 있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흥 대국 언어로서 한국어가 21세기 문명사에서 가지는 정신 문화
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잠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1) 아시아의 공통점

- ①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 : 이 지역은 전 세계 모든 정신문화(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문화)의 발상 보존지이므로 고유한 아시아적 가치를 지녀 왔다. 지

금도 ‘여가와 쾌락’을 추구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적 안식처는 동양의 종교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② 아시아적 경험의 공유 : 열강의 침략 대상으로 고난의 역사를 지내 왔고 그 후유증으로 저개발, 빈곤, 독재, 부패 등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식민지 외래문화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고 각종 문화와 이념 투쟁의 경험을 겪었으므로 제3의 길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
- ③ 아시아적 희망의 공유 :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데 긴 동면에 빠져 있던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 일찍이 Oswald Spengler가 ‘서구의 몰락’에서 서구의 몰락과 위기를 예언한 바 있듯이 영원한 로마도 영원한 미국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억압받아 왔던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한국의 발전에 이어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일어나고 앞으로 아시아의 각국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에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므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다.

(2) 한국의 장점과 아시아의 협동

- ① 문화 측면 : 5000년 역사의 문화 민족이다. 한국의 10대 CI(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석굴암과 불국사,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 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참조
- ② 정신 측면 : 불교(삼국, 고려 시대), 유교(고려, 조선 시대), 기독교 문화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국가 발전에 활용하였다. 종교 분쟁이 없으며 종교에 대하여 대단히 우호적이다.
- ③ 평화 측면 :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전통과 비교하여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 민족으로 도덕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3 세계의 통합에 긍정적이다.
- ④ 경제 측면 : 대한민국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의 경제 성장과 근대화 노력은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중동 건설,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 ⑤ 정치 측면 : 왕조 정치, 식민지, 남북 분단, 군사 정권 시대를 거쳐 민주화 성취를 최단 시간에 이룩하였다.

대략 이런 한국의 평화와 근면의 국민정신이 보여 주는 국력이 정신 문화사적 가치와 어울릴 수 있기에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고 한국 알기, 한국어 배우기의 학습 열기도 뜨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2.2. 한국인의 이민 분포

국제이주기구(IOM)가 2005년에 발표한 ‘세계이민백서 2005’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의 20%인 35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은 ‘이민 천국’이며 이민 송출국 1위는 중국으로 그간 3500만 명이 이민 길에 올랐는데 전 세계 화교는 5500만 명이라고 한다. 2000년 현재 세계 이민 인구는 1억 7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35명당 1명이 이민자이다.

이민 송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2000만 명), 필리핀(700만 명)이 2,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900만 명이고 한인 동포는 600만 명이므로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필리핀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의 이민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미 개척 정신이 높은 진취적 국민성의 민족임을 보여 주어 이민자 총계로만 보면 세계화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수입국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1330만 명),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인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파키스탄 등이 상위 10국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었고 2003년 말 현재 그 수는 38만 8816명이며 이들 중 35.5%가 불법 취업자로 추정된다고 하며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중 5.2%만이 전문 기술자라고 한다.

2005년 1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 국민은 175개국 총 664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가별 재외 동포수는 중국 244만, 미국 208만, 일본 90

만, 독립국가연합 53만, 캐나다 20만, 호주 8만, 브라질 5만, 필리핀 4만 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해외 이민의 분포가 4대 강국(미, 일, 중, 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는 해외동포들을 한민족 연합 구성원의 일원으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3. 한국 내외국인의 교류 현황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4년도 총출입국자는 29,609,460명으로 2003년 대비 24%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내국인 출국자는 9,139,314명으로 인구 5명당 1명꼴로 출국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입국 인원이 국민 출국자의 약 63%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내외 교류 속에 국내 방문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모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70만 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10만 명 이상이고, 주로 산업 근로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인권 보호와 노동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한국어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3.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육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약칭 KSL)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약칭 KFL) 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재외동포 지역에서 가정이나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후자는 학교의 외국어 학습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재중, 재미, 재일 동포 사회처럼 한국어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후

자는 그런 공동체를 상징하지 않고 학습 시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이다.

최근에는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 방문 취업에 따른 비자 발급제 시행,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 등에 따른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공자 학원, 일본의 국제 일본어 보급 센터, 인도의 간디아카데미,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에 대응하여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일명 세종학당) 전략으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3.1. 국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

일반적으로 재외 국민에 대한 교육은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요 지역 대학에서 동아시아 학과의 한국어 전공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양 외국어 교육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2003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조향록 2005)

한국학교 : 일본(학교 4, 교원 170, 학생 1682)

아주(학교 12, 교원 496, 학생 3820)

중남미(학교 3, 교원 99, 학생 657)

구주, CIS(학교 1, 교원 17, 학생 70)

아, 중동(학교 4, 교원 38, 학생 106)

계 (학교수 14개국 24개교, 교원수 807명, 학생수 6335명)

한국교육원 : 일본(교육원 14, 교원 22, 동포 638546)

아주(교육원 1, 교원 1, 동포 2341190)

북미(교육원 7, 교원 8, 동포 2327619)

중남미(교육원 3, 교원 3, 동포 105643)

구주, CIS(교육원 10, 교원 12, 동포 652131)

계 (교육원수 14개국 35개원, 교원수 46명, 동포수 6065129명)

한글학교 : 일본(학교 57, 교원 155, 학생 2536)

아주(학교 133, 교원 1323, 학생 11754)

북미(학교 1096, 교원 8891, 학생 63554)

중남미(학교 52, 교원 363, 학생 3169)

구주, CIS(학교 625, 교원 1511, 학생 32981)

아, 중동(학교 31, 교원 202, 학생 969)

계(학교수 96개국 1963개교, 교원수 12243명, 학생수 113994명)

(*) 국가별 한국어학과, 한국학 전공 강좌 개설 대학 : 60개국 661개 대학(서아
정 2005)

동북아(중, 일, 몽골, 대만, 홍콩) : 5개국 384개 대학

유럽 : 12개국 37개 대학

북미 : 2개국 131개 대학

대양주 : 2개국 8개 대학

동유럽/CIS : 14개국 54개 대학

아프리카, 중동 : 8개국 10개 대학

동서남아 : 9개국 31개 대학

중남미 : 3개국 3개 대학

(*) 국가별 고등학교 이하

미국 : 2004년 39개 중고등학교 3800명 수강

일본 : 2000년 163개 고등학교 4587명 수강

중국 : 조선족 초중고 1200여 곳, 2003년부터 상해지역 고교 한국어 강좌
운영

중앙아시아 : 고려인 중심 중고교에서 한국어강좌 운영(타슈켄트 시 60개/
교사 150명)

호주 : 63개교 2000여 명 수강

3.2.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개화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1959년 창설된 연세대 한국어학당이나 1969년에 창설된 서울대 어학연구소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 올림픽 전후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고려대, 1988년에 이화여대, 1990년에 서강대 등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기에 이르고 앞 다투어 전국의 지방 대학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도 학위나 비학위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선교사, 주한 외교관, 군인, 기업인, 교환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 동기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취업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원과 평생 학습관,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한국어 교육의 두 축은 (1) 동포 한국어 교육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기본임을 알 수 있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각각에 고유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몇몇 한국어 교육자와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손호민(2005)의 견해 : 국제 경쟁력 증진, 한민족 공동체 형성 등 제시

- (1) 해외 대학에서 상급, 최상급의 한국어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초중고 대학을 통하여 초급으로부터 최상급까지의 한국어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한다.
- (2) 학생의 다양한 한국어 습득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다양화한다.
교육과정, 교재, 교수, 평가 등 전반에 걸쳐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 (3)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교육을 한다.

- (4) 대표적인 해외 대학에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사, 석사, 박사, 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교사, 한국어학자, 한국어 교육학자를 지속적으로 육성 배출시킨다.
- (5) 한인 동포 후세를 한국어-현지어의 이중 언어인, 이중 문화인으로 육성하고 시민과 민족의 이중적 정체성을 배양한다.

(*) 신현숙(2005)의 견해 : 정부와 민간 차원의 발전 방향 제시

- (1) 정부가 한국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국외 보급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교육부는 국제 교류 또는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내세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자격 인증과 지위도 일반적인 제도와 다르게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여 목표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야 한다.
- (2)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정부 차원에서 정립이 된다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담아낸 표준화 교재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 (3) 현재의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의 발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증가, 한류 열풍과 한국어 학습 동기의 강화,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시행이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 유석훈(2005)의 견해 :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제시

- (1) 학제적 연구와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 (2) 열린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해야 한다.
- (3) 내용 중심의 한국어 교육, 과제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같은 내용과 과제에 기반을 두고 학문, 직업 등의 특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한류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중심에 한국어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5) 한국어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 전반에서 전문가의 지속적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이중 언어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서아정(2004)의 견해 :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의 방향 제시

(1) 비학문적 측면에서의 환경 조성으로 한국어 수요를 꾸준히 창출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 문화적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공, 한국 방문 및 연수 기회 제공에서부터 태권도, 대중 예술 보급,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한 한국 사회의 매력 표출, 경제 발전을 통한 취업 기회 증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비중 확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국제교류재단 등이 연합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면 쉽게 만들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집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교재 개발, 교사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교원 양성, 교육 기반 확충이라는 3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 각급학교 한국어 교원 현업 교육 강화
- 언어권별 한국어 교수법 연구 지원 확대
- 언어권별, 지역별 교재 현지화 지원 확대
- 고등학교 이하 교육 기관 교원 양성 체제 구축
- 국내 한국어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환경 개선
- 정규 교육 기관 외의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수요 수용

이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외적 조건과 과제

- 선진 한국의 실현 :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 국가 이미지 향상
- 선진 한국 문화의 발현 : 현대와 세계화 조류에 맞추는 한국 문화의 재탐구와 재창조
- 언어 정책 요인 : 국어 정책, 한국어 정책, 외국어 정책
언어 제국주의가 아닌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차원의 정책
국제 이해 교육 강화 : 국제 간 문화 교류에 대한 바른 태도
폐쇄적 민족주의, 문화 제국주의 -> 언어문화 교육(국제 이해 교육) 강화

(2)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내적 조건과 과제

- 표준 교육과정, 교재 개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평가 방법 개선의 4대 영역별 과제
-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의 상관성 정립
- 한국어 교사 양성, 한국어 교육 기관 정책 마련

이런 외적 조건은 한국어 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요인과 국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적 조건은 국내의 국어 정책과 외국어 정책이 모두 관여하는 요인들이다. 적어도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민 누구나 예비 한국어 교사를 키울 각오로 국제화 시대에 국어 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국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여 장차 한국어 교육 상황에 직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건과 과제

4.1.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외적 조건

(1) 국가 선진화 : 국가 경제력, 국가 경쟁력의 선진화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중상위권이므로 선진화를 위해 정치, 경제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109위), 인구(25위) 등 절대 규모에서는 뒤지는 편이나 경제 규모를 대변하는 GDP 규모(7930억 달러)는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또한, 무역 규모는 수출액과 교역 규모(5000억 달러)에서 세계 12위에 올라 있다. 교역에서 중계 무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04’에 따르면 전체 60개의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 경쟁력이 35위, 과학 경쟁력이 19위, 기술 경쟁력이 8위였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종합 경쟁력이 29위로 평가되었다.

(2) 국가 도덕성

국가의 부패가 낮고 공직자의 부패도가 낮으며 투명도가 높은 나라가 청렴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2005년에 발표한 세계 159개국의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헝가리, 이탈리아와 함께 40위에 속한다. 이 순위는 1인당 국민 소득과 거의 비례 관계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40위 이상으로 올라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이다.

한 마디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외적 요소는 한국과 한국 문화권역의 확대이다. 한국과 한국 문화권역의 확대 없이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이 매력적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야 한국어 교육도 진흥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어 교

제가 우수하더라도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낮고 국가 신뢰도, 인지도가 낮다면 한국어를 배울 까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경쟁력은 한국의 국력과 비례하는 것이다.

4.2.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내적 조건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내적 조건과 과제는 한국어 교육 관련 사항으로 정책 기관, 교육과정 개발, 교재, 평가 도구, 교수 학습 분야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각종 자료 개발을 들 수 있다.

(1) 정책 기관의 역할 분담

현재 한국어 교육 업무 수행 기관 및 소속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① 교육부 : 국제교육협력관 소속의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원(Korean Center, 주요 동포 지역에 설립한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학 교수 파견 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사업 및 한국어 능력 시험 주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학술 대회, 초청 연수)

② 문화관광부 : 문화정책국 국어민족문화과

국립국어원(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초청 파견 연수, 한국어 문화학교 운영)

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초청 연수, 한국어 교육 능력 시험 주관)

한글학회(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③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재단(Teen Korean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학 교류, 한국어 교육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한국어 교육자 파견)

④ 노동부 : 한국어 능력 시험(고용 허가제)

⑤ 정보통신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IT 청년 봉사단 파견 사업)

과거에 이들 기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중복 투자가 많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한국어 국외보급사업협의회’라는 조정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 규정도 2005년에 만들어져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4개 부처와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원,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6개 사업 기관이다.

그러나 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중복 사업이 우려되므로 기관별 세부 특성화에 따른 통합 조정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다. 적어도 교육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전문 사업 기관과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지원 사업 기관이라는 2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 축이 해외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주도록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주재국에서 소수 민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정체성을 살려 생존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주재국 모두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바람직한 이중 언어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언어 제국주의로 가지 않도록 상호 교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포 교육의 중요성은 폐쇄적 민족주의 차원이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화교나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비교하고 미합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의 민족 융화주의의 정책을 비교 연구

하여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다양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에서 비계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에서부터 의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양상은 다양하다.

- ① 학습자 언어권별 교육과정 :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남아시아권,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유럽어권, 남미권 등
- ② 동포 국적별 교육과정 : 재외 국적 동포(이민) 자녀 가정교육, 한국적 유학, 주재원 자녀 가정교육, 새터민 및 자녀 가정교육 등
- ③ 정규 초중등 교육과정 : 외국 초중고 한국어 교육과정(일, 중, 미 등 동포 지역, 호주의 외국어 프로그램), 귀국자 자녀 국내 적응 교육과정, 귀순자 자녀 한국 적응 교육과정
- ④ 정규 고등교육 교육과정 : 외국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
- ⑤ 특별 교육과정 : 주말 한글학교 교육과정, 주재원 자녀 교육과정
- ⑥ 특수 목적 교육과정 : 일반 교육과정(생활 한국어 교육), 특수 목적 교육과정(학문, 직업, 근로자 교육 등)
- ⑦ 기관별 교육과정 :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원,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 ⑧ 국내외의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 국내외 대학 학위과정, 대학 부설 양성 과정 등

이런 다양한 학습자와 교사 교육과정을 생각할 때 자국어 교육의 국어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한국어 교육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요구 분석, 상황 분석, 교육 목적과 목표 분석, 교육 내용 구성, 교재 개발, 교수 학습 방법 제시, 교육 평가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여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 민현식(2003)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① 교육 이념과 목적 : 기관의 교육 이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 기술
- ② 등급별 일반 교육 목표 : 등급별로 중점 지도 목표를 개관 기술
- ③ 교육과정별 편제와 배당 시간 : 등급별, 교과목별 편제와 배당 시간을 기술
- ④ 학습자 상황 :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기술

(2) 교육과정의 내용

- ① 교육 내용 : 6대 영역(1~6급별로 위계화한 6대 영역 기술)
 - 선수 시간 : 사전 선행 학습 조건 기술
 - 주제 영역 : 학습 목표 관련 훈련 주제들을 기술
 - 상황 영역 : 학습 목표 관련 훈련 상황들을 기술
 - 담화 영역 : 위 주제, 상황을 병행하여 고려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별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기술
 - 문법 영역 : 문장과 표현, 어휘, 발음, 표기 영역별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기술
 - 문화 영역 : 문화를 포함하여 문화 전반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기술
- ② 교수 학습법 : 3대 영역별로 표준 교수 학습법 제시
- ③ 교재 : 3대 영역별로 교보재 개발 및 활용 방법 제시
- ④ 평가 : 3대 영역별로 평가 유형, 평가 영역, 평가 방법 제시

4.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개선

한국어 교재는 근대 계몽기부터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 외국어로 된 문법, 회화서 형식의 교재를 많이 개발하였다. 그 후 국내외에서도 언어 교육 기관이나 대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도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1988년부터는 그 이전의 교재와는 다른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었다. 아울러,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문화 소개나 문화 교육이 교육 현장과 교재에 반영되었고 다양한 온라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손호민(2004)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방향

- (1)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다양화
- (2) 초중고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교육 자료 개발
- (3) 한국어를 다른 학과목과 연계시키는 교육 자료 개발
- (4)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교육 자료 개발
- (5)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언어적 차이점, 모국 문화와의 문화적 차이점을 잘 반영시키는 교육 자료 개발
- (6) 의사소통 능력의 효율적 습득을 위한 참신한 이론과 실제, 교수법, 교재 개발 방법론, 능력 평가법 등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 자료 개발
- (7) 한국어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

(*) 김중섭(2005)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 (1) 개발되고 있는 교재의 등급이 초급, 중급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중급, 고급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 (2) 기능별 교재의 부족이다. 실제 의사소통은 네 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수목표가 통합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학교 기관의 교재들 역시 언어의 네 가지 기능과 문화, 그리고 주제와 기능 등이 통합된 것으로 개발되어 출판되고 있으나 오히려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 문법 교재 등 영역별 전문 교재 또는 참고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3) 보조 자료 개발의 부족이다. 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목적이 취업, 진학 등의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교육 현장 밖에서 학습 자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주 교재 개발과 함께 연습 교재(워크북), 나아

가 한국어 문화 항목이 반영된 부교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 교수 학습의 개선

교수 학습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가지를 교사나 학습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매체가 발달한 선진국과 매체 활용이 어려운 개도국들을 생각할 때 학습자 언어권에 따른 교수 학습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매체가 부족한 곳이나 실용 언어 교육을 강조하여 번역 실습 강의를 많이 개설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문법 번역식 교수 학습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 동기를 고려한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교수법의 장점을 종합하여 개선된 교재들을 만들고 이런 매체 활용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재 및 교안의 개발 노력은 물론 교수 학습법의 경험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 세계 모든 한국어 교재와 교안, 교수 학습법들을 모아 ‘교재 은행’을 인터넷상에서 구축하고 누구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설이 취약한 개도국에는 학습용 시디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훌륭한 교사는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남의 수업을 참관하여 자기 학습법 증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5. 한국어문화학교(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7년 업무 보고를 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 세계에 이른바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0개, 2016년까지 200

개를 목표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세종학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한글학교와 한국어학교 그리고 외국어의 각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학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런 국가의 어문 정책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며 또한 신중해야 하기에 일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며 국가의 어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5.1. 세종학당의 명칭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을 밝히기 전에 먼저 그 명칭을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세종 대왕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 시대의 제4대 임금으로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손꼽고 있는 성군이다. 세종 대왕은 재임 중에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백성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만드신 분이다. 바로 ‘세종’은 여기에서 따왔다.

또한, ‘학당’(學堂)은 서민과 양반을 구분하지 않은 한민족의 학습 기관인 ‘서당’(書堂)을 연상해서 따왔지만 한자어 ‘사숙’(私塾)과 고유어 ‘글방’과도 같은 뜻이며, 개화기에는 ‘학당’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명칭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의 ‘~ 학당’과 같은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아위원회의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세종의 개혁정신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이름으로 적합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5.2.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학교·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각 대학(국내외)의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규 교육 차원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에게 외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와 국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재단과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비공식 기관인 ‘한글학교’에도 지원해 오고 있다.

두 부처(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를 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외의 한국어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말과 글이 이질적 문화권역 간의 문화 교류와 정보 소통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 각국은 ‘문화 강국’은 곧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와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이 결합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 문화 권역 확장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넷째, 중국의 동북 공정, 일본의 우경화 등 한국 주변 국가의 국가 팽창 전략에 대응하여 언어문화 권역 확장을 위한 거시적이고 세계주의 지향의 국가 언어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는 큰 흐름의 변화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류’ 문화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실시되는 한국의 방문 취업제(조선족 대상, H-2)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학습 수요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의 주요 대상은 외교관, 학자, 유학생, 재외동포 2세~3세 등이었으나, 이제는 현지의 일반 대중으로 저변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는 이것뿐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국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의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습 수요자가 크게 증폭하고 있다.

이렇게 국외의 언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도권 안에서의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해 왔다.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향 문화가 교류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접맥된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교육 대상은 현지민과 국외로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민이 될 것이다.

세종학당의 설립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현지 지식인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세종학당의 교육은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산이다. 과거의 한국학 연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한국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언어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해 온 주입식 방식과는 다르게 쌍방향 문화의 교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셋째,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지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언어는 문화의 바탕이 되므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진흥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3.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세종학당의 운영은 국외의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이나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이 될 것이며 기존 교육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방형 체제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기존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이런 대학을 피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런 것도 한국어 교육의 진흥 전략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점은 수정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운영 방식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제도와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연간 운영비(교재 개발비, 강사료, 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등)는 한국 정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수강생은 본인의 교통비와 교재 구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급 규모와 편성은 현지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대체로 연간 1,000명 내외를 20여 명의 단위로 교육을 한 것이며 언제나 개방할 수 있는 현지 개방형 체제로 운용될 것이다.

한국어 학습 교재는 기존의 범용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 교재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하여 당분간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 자료(애니메이션 또는 강사 직접 출연)를 활용할

것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자료를 현지인이 점검하는 교재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는 동영상 형태로 개발되어 서비스 중이며, 일본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도 동영상 형태로 개발 중이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른 바 ‘U-세종학당’ 형태로 추진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학당은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시설과 연계하여 세종학당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한 곳은 18곳(몽골 3, 중국 11, 중앙아시아 2, 미국 1, 러시아 1)이며, 개원한 곳도 15개교(몽골 3, 중국 9, 중앙아시아 2, 미국 1)이다.

구체적으로 업무 협정을 체결한 곳을 살펴보면 몽골 지역은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국립사범대학교, 국립대학교이며 중국 지역은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 천진외국어대, 중국해양대, 북경외국어대, 중국인민대, 북경원광문화교류공사, 한국언어문화연구소, 서안외국어대, 광둥외어외무대, 월수외국어대이며, 중앙아시아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카자흐스탄 국립대, LA한국문화원, 모스크바한국문화원이다.

또한, 세종학당을 개원한 곳은 몽골 지역은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등 3곳, 중국 지역은 연변과학기술대 등 9곳, 중앙아시아는 비슈케크대 등 2곳, 미국 지역은 LA 한국문화원이다.

아울러, 올해 개강을 진행 중인 곳도 3곳(중국 양주대, 월수대,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이 더 있으며 세종학당을 설립하려고 신청한 곳도 8곳(중국 2곳, 홍콩 1, 일본 2, 베트남 1, 필리핀 1, 타지키스탄 1)이 더 있다.

세종학당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세종학당 파견 교원 9명을 선발하여 6개월의 연수를 마친 후에 2곳(몽골, 일본 지역)에 파견하였고, SBS 드라마(온리유)를 이용한 한국어 교재 DVD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MBC 문화방송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이용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초급 한국어 교재(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5개 언어(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총 20권을 개발하고 있다.

◆ 제1단계(2007년~2011년) : 동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100개교)

지역 \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몽골 지역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25개교
중국 지역	10개교	10개교	10개교	15개교	15개교	60개교
중앙아시아 지역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15개교
계	18개교	18개교	18개교	23개교	23개교	100개교

◆ 제2단계(2012년~2016년) :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100개교)

지역 \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동남아시아 지역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서남아시아 지역 (인도, 파키스탄, 네팔)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계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 단, 1단계와 2단계 세종학당 개설 계획은 현지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4. 세종학당의 기대 효과

세종학당의 설립은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스, 중국의 공자 학원, 일본의 일본어 교육 센터와 비슷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에서 세종학당은 다른 나라와의 교육 기관과 그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에 의한 쌍방향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세종학당의 기대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문화 연대를 통한 한국 문화 산업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가 현지민을 중심으로 저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게임 산업, 음반 산업, 영화 산업 등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문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가 동북아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제2차 산업의 노동 인력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되고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게 되어 한국 사회에 적응이 빨라져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어 교육은 곧 우리나라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확고하게 확보할 것이다.

6.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한국어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려면 한국어 교육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학은 88 올림픽 이래로 발전되어 와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다. 이는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사정이 비슷하여 학문적 정체성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체성이 규명되어야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사 양성, 임용, 연수 단계에 따라 한국어 교육학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발전하게 되며 학습자도 체계적 교육 과정에 따라 재미있고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인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어 교사 양성도 일정한 표준 교육과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에서 전문 교사 양성을 명시하고 그러한 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시행령에 밝힌 것이다.

아래 도표는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므로 이는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규명하는 단초가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를 살펴본다.

(*) 백봉자(2001)에서는 교육과정을 일반교사 양성과정, 전문교사 양성과정, 국외교사 연수과정으로 나누고 표준 교과과정을 (1) 국어학 (2) 언어학 (3) 교육학 (4) 한국어교수법 (5) 한국학의 5대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분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을 교육학 속에 넣은 것이 특징이다.

(*) 박영순(2001)에서는 언어 내적 분야와 언어 외적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1) 언어 내적 분야

- ① 언어 기능 교육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② 문법 교육 :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국어사
- ③ 문화교육 : 한국인의 가치관과 전통, 한국의 예술,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생활 풍습, 한국 문학

(2) 언어 외적 분야

- ① 교육 분야 : 교육과정론, 교육방법론, 교육평가론, 교재론, 교사론
- ② 학습자 연령 및 학력별 : 초중고, 대학, 일반인별
- ③ 학습자 성격별 : 외국인, 재외동포
- ④ 언어 능력별 : 초급, 중급, 고급, 원어민급
- ⑤ 지역별 :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노어권 등

(*) 민현식(2005)에서는 한국어학, 한국어교과론, 한국어 교육과정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 (1) 한국어학 : 이론언어학(음운론, 어휘론, 문장론 등), 응용언어학(언어 습득, 사회언어학 등)
- (2) 한국어교과론 : 기능교육(말하기), 문법교육(발음교육), 문화교육(한국어문화)
- (3) 한국어 교육과정론 : 교육 기본 영역, 교육 정책 영역, 실습 영역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 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 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 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7. 바람직한 한국어 교사상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만큼 중요한 것을 없다. 모든 여건이 미비하더라도 유능한 교사가 있다면 그 모든 상황적 제약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그들이 알게 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서, 한국인의 표본이자 한국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 한국과 한국인을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교육자, 학자 또는 연구자, 교사의 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교육자로서의 자질

- ① 인격자(Personality) : 풍부한 교양, 인간 존중, 제자 사랑, 윤리 준수 등
- ② 전문성(Professionalism) : 전문 지식, 방법, 이해, 전달 능력 등
- ③ 지도력(Leadership) : 구성원 존중, 전체 의사 조율, 학습 목표 달성 유도 등
- ④ 한국어 능력 시범자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권위자
- ⑤ 학습자의 상대자 : 대화, 연습, 조력, 조언, 조율, 격려 등

(2) 학자로의 자질

- ① 한국어 전문가 : 한국어에 대한 이해, 한국어 연구의 소양 등
- ② 전문적인 언어학자 :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언어의 본질 등
- ③ 대조 언어학자 :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 간의 지식 등
- ④ 외국어 전문가 : 외국어 실력 등
- ⑤ 문화 전달자 :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등
- ⑥ 한국어 교육 전문가 : 한국어 교육의 전문 연구인 등

(3) 교사의 태도

- ① 문화 상호주의 : 타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 등
- ② 가치 중립의 자세 : 학습자의 국적, 인종, 종교 등
- ③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필요
- ④ 학습자에 대한 보편적 자세 : 특정 학생 편애는 금물
- ⑤ 한국어 교육의 침병 : 한국,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 ⑥ 자기 계발 : 다양한 시도 등
- ⑦ 학습자의 조력자 : 안내심 발휘 등
- ⑧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 : 평생 직업 등

8.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을 다루어 보았다.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언급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곧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외적 조건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문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문화의 정신이 필요하며 타민족에 대한 우월주의나 비하주의를 청산하고 국제 간 문화 이해를 위해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적 조건으로 한국어 정책 기관들이 기관 조정 협의회를 통해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 내용 문제로는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다양화가 필요하고 한국어 교육용 문법의 기술, 각종 문법 용어의 통일, 교재 개발 시 문화 교육의 연계,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종학당이 추진하려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 개설될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지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어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며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문화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교사가 되는 길은 소명의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어는 대국 언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어 연구자와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어의 연구, 한국어 교육용 자료의 개발 등에 힘쓰며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확립에 힘쓴다면 한국어 교육은 틀림없이 21세기에 주목받는 학문 분야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제1회 전국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논문 발표 자료집,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민현식(2005),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05),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한겨레말글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
한겨레말글연구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서아정(2004), 해외 각급학교별 KFL 교육 현황,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차 국
제학술대회논문집
- 신현숙(2005),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손호민(2005),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유석훈(2005),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조항록(2005),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비전, 한국문법교육학회 제6회 전국학
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_____(200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집.

[부록]

세종학당 운영 및 관리 현황(2008년 2월 현재)

I. 세종학당 운영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에 부응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 확대
-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어 문화권역 및 한국 문화산업시장 확대 도모

□ 운영 목표

- 전략적 한국문화마케팅의 효율성 증대
- 한국어 한국문화 통합 교육으로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효과 증대
- 표현과 이해 중심의 한국어 능력 향상
- 현지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확대

□ 세종학당의 설립 형태 및 운영

- 재외 한국문화원·관광공사를 거점으로 한 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

-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원 형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

□ 세부 내용

- 코리아센터,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거점의 한국어강좌 개설
 - 교육과정 : 정규 과정, 특화 과정, 특별 과정(세부 사항은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참고)
 - ※ 위 기관이 없는 지역은 관련 기관(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 등 기존 교육 기관)과 계약 후 저녁 시간에 시설 사용

▶ 문화원 역할

- 현지 외국인 대상(한국문화 향유자, 해외 주재 한국기업 근로자 등) 한국어강좌 운영
- 세종학당 운영 기관장 회의 개최(화상회의)
- 현지 한국어교육 관련 수요 조사 실시(재외 공관과 연계)
-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재교육 실시 및 교원 커뮤니티 운영(국립국어원과 연계)

- 지원 사항
 -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비, 강사비, 운영비 등 지원
 - 성적 우수자 초청 연수
 - 세종학당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 지원
- 교육 기간 : 1년(초급1 : 3개월, 초급2 : 3개월, 중급1 : 3개월, 중급2 : 3개월)
-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융합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
- 세종학당 활용 교원 양성 지원
- U-세종학당 구축을 통한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 지원

II. 세종학당 현황

□ 세종학당 현황 파악

- 각 세종학당의 운영 주체
 - 업무 협정 체결 기관
- 운영 관리 기관 유형
 - 국립국어원 직접 관리(7곳)
 - 몽골 : 울란바타르 대학, 국립사범대학
 - 중국 : 연변대학, 연변과기대학, 해양대학
 - 키르기스 : 비슈케크인문대학
 - 카자흐스탄 : 카자흐국립대학
 - 문화원
 - 북경문화원(6곳) : 북경외국어대학 배훈학원, 중국인민대학 신지자원관리학원, 북경중원광문화교류 유한공사 원광교육자문중심, 한국언어문화연구소, 서안외국어대학교, 광둥외어외무대학
 - LA 문화원(1곳)
- ※ 모스크바 문화원, 상해 문화원 관할 대학 2곳, 북경문화원 추가 관할 2곳 개설 예정
- 한국 대학(2곳)
 - 영남대학 : 중국 양주대학
 - 공주대학 : 몽골 국립대학
- 세종학당별 예산 집행 방향
 - 4~5년 경과 기간을 두어 점차 유료 운영으로 전환 추진
 -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4~5년 동안은 무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 개설 지역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수강료로 충당하는 방안 마련

III. 분야별 지원 현황

□ 교과 과정 및 교재 발간·배포

- 운영 과정 및 시간
 - 초급 1(3개월), 초급 2(3개월), 중급1(3개월), 중급2(3개월)
 - 주 시간 : 1주 최소 240분(휴식 시간 포함) 이상
- 교재 개발 및 사용
 - 2008년부터 국어원 개발 교재를 사용할 예정
 -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사용 교재 개발 현황(7개 국어 30권)
 - 교재 종류 : 한국어 초급 말하기, 한국어 초급 듣기, 한국어 초급 읽기, 한국어 초급 쓰기
 - 언어 : 타갈로그어(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영어
 - ※ 일본어는 2008년 3월 출판 계약 예정임
 - 교재 사용 : 하반기 개설 학기부터 사용
 - 개발 계획
 - 중급 교재 개발 및 현지화, 교사용 지침서 개발 : '08년 추진
 - YTN 또는 아리랑 TV를 활용한 한국어강좌 개발 : '08년 추진
- 교재 배포
 - 한림출판사의 해외 판매망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
 - 교재 비용 : 기관 비치용(교사용) 15부는 국어원에서 공급하고 수강생 학습용은 본인 부담으로 구입

□ 학생 선발 및 관리

- 학생 선발 방법
 - 해당 국가의 해당 지역 신문 공고 등

- 성별, 학력,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되, 만 12세 이상으로서 성인학습자와 함께 학습이 가능한 자
- 대학의 세종학당의 경우 해당 대학 한국어과 학생이 1/3 이상이 넘지 않도록 선발
- 한국 진출 기업 취직자 우선 선발
- 세종학당의 지원서 심사 후 입학 허가

IV. 세종학당 '08년 운영 주요 내용

□ 개설 지역 및 강좌 운영

○ 개설 지역

- 재외한국문화원의 한국어강좌 세종학당으로의 전환 추진
- 중국 : '07년 협정 체결(문화원 관할 포함)된 산둥위해분교, 월수외국어대학, 서남민족대학 등 추가 개설 계획
- 러시아 : 모스크바 문화원 관할 대학 1곳 추가 개설 계획

○ 강좌 운영 일정

- 2월 :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접수 및 검토
 - 3월 : 1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학기 시작
 - 3월~6월 : 세종학당 운영 및 중간 평가
 - 7월 : 2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학기 시작
 - 7월~익년 1월 : 세종학당 운영
 - 익년 1월 :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제출 등 결과 평가 및 정산 확정
- ※ 위 일정은 국가와 지역의 학사 일정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음

□ 세종학당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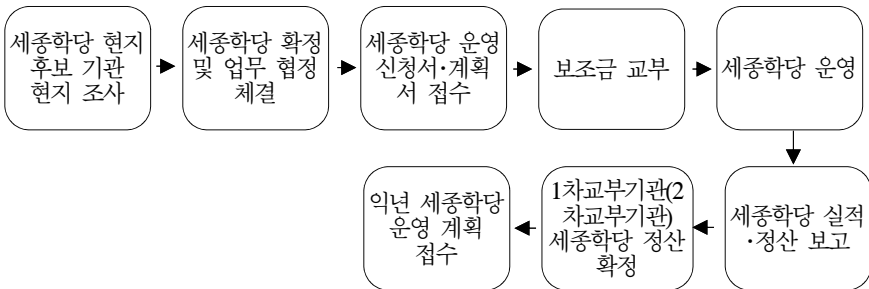
- 오프라인 평가 자료 개발(3~4월)
- 온라인 평가 체계 구축(7~8월)
- 2~3개소 지정 운영 실태 현지 조사(6월~7월)
- 종합 평가(6월~9월)

□ 국외 한국어 보급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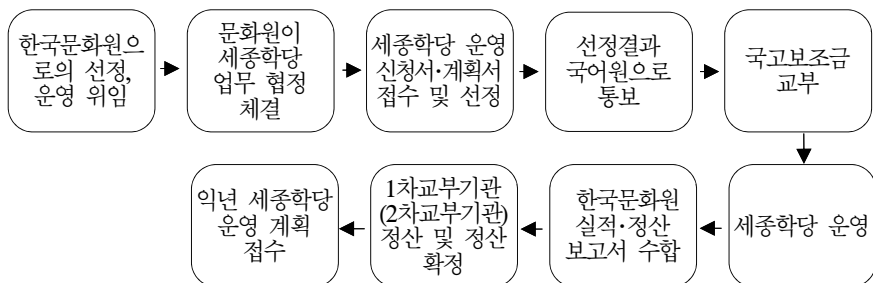
- 국외 한국어 보급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국외한국어보급협의회(3월 4일) 이후

V. 세종학당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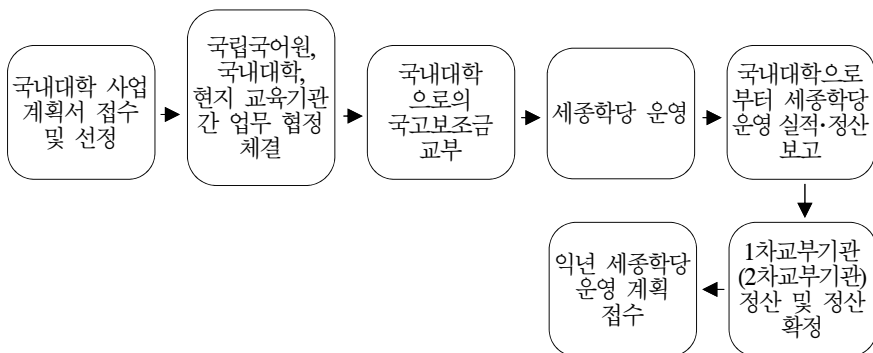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직접 관리 운영 세종학당



○ 재외 한국문화원 관리 운영 세종학당



○ 국내 대학 관리 운영 세종학당



담당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발 행 인 이 상 규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 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8년 4월 21일

발 행 일 2008년 4월 23일

인 쇄 크리홍보주식회사
